

티베트와 中國의 傳統的 관계에 대한 研究史的 이해*

金 翰 奎

1. 머릿말
2. 吐蕃-唐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3. 西蕃-宋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4. 烏斯藏-蒙元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5. 烏斯藏-明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6. 西藏-滿清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7. '티베트'와 '中國'의 歷史的 概念을 통해서본 傳統時代 티베트와 中國의 關係
8. 결론

1. 머릿말

1950년에 中華人民共和國의 人民解放軍이 티베트의 拉薩 등지에 進駐하고 1959년에 14世 達賴喇嘛가 拉薩를 탈출하여 印度로 亡命, 티베트 臨時政府를 수립한 이후, 티베트의 獨立問題는 전 세계인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주로 티베트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티베트 독립의 當爲性을 강조하기 위해 티베트 獨立國의 역사적 由來와 傳承을 거론하였고, 中華人民共和國의 티베트 支配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티베트 獨立不可論의 이론적 근거를 역대 中國 王朝들과 티베트의 관계로부터 발견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티베트 獨立(=이른바 '藏獨') 當爲性에 관한 양측의 聲明戰은 자연히 歷史論爭으로까지 발전하여, 티베트 獨立問題는 단순한 정치외교적 현실문제의 차원을 넘어 역사학 분야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포섭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티베트문제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와 현실적인 利害關係을 거의 갖지 못한 국가에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東아시아史의 전체 구조에 관심을 갖는 學人이라면 이 문제를 학문적 관심의 권역 밖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티베트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티베트 獨立國의 역사적 존재로부터 발견하려는 노력이나 中國 국가의 티베트 支配 당위성을 전통적 티베트-中國 관계로부터 확인하려는 노력은 이미 達賴喇嘛+麻의 망명 이전에도 없지않아 있었지만¹⁾, 양측에 의한 逆方向의 노력이 서로 충돌하여 학문적 論爭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1967년에 티베트인 Tsepon W. D. Shakabpa(夏格巴·汪秋德丹)가 『Tibet: A Political History』란 책을 미국 Yale대학출판부에서 英文으로 출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1976년에 印度에서 티베트文으로 출판되고, 1980년에는 다시 『藏區政治史』란 제명으로 1980년에 中文으로 中國에서 출판되어, 곧 西歐와 티베트 및 중국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어켰다. 티베트인으로서 中華人民共和國의 티베트 지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全國人大常委會副委員長직을 맡고 있던 阿沛·阿旺普美가 이 책을 읽고 언급한 바와 같이 “西藏獨立”을 고취하는 사람들은 모두 Shakabpa 책에 의거”하게 되었다.²⁾ 역시 티베트인으로서 당시 西藏社會科學院 건립을 준비하고 있던 多杰才

1) 1924년에 영국인 티베트전문가 Charles. Bell의 『Tibet Past & Present』가 Oxford에서 출간된 이후, 프랑스인 J. Bacot가 1946년에 『Introduction a L'histoire du Tibet』을 Paris에서 출간하여 티베트가 물질생활방면에서는 中國의 일부이나 정신생활상에서는 고대의 印度에 속하였음을 논증하였고, 英印 駐拉薩辦事處主任으로 활동하다가 拉薩에서 가장 최후에 탈출한 영국관원 Hugu. E. Richardson이 1962년에 『A Short History of Tibet』을 New York에서, 『Tibet and Its History』이란 題名으로 英國에서 再版하여 政治的 측면에서 과거의 티베트가 中國에 속하지 않은 政治實體였음을 증명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인 Giuseppe. Tucci는 『Tibetan Painted Scrolls』을 1949년에 Rome에서 출간하고(漢譯本은 杜齊, 『西藏中世紀史』, 中國社會科學院 民族研究所, 1980), 중국인 李鐵桴(Li Tieh-Tseng)이 1963년에 『The Historical Status of Tibet』을 New York에서 출간(『Tibet Today and Yesterday』이란 題名으로 NY에서 1960년 再版)하여, 전통시대의 티베트가 中國의 일부였음을 입증하려 노력한 바 있다.

2) 『1959年3月10日事件의 真相』(中國藏學 1988-2): 羅潤蒼에 의하면, “이 책이 출판된 뒤 達賴喇嘛와 赤江 등 達賴喇嘛集團 상층인물의 높은 찬양을 받았다. 達賴喇嘛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는 藏人 스스로 쓴 첫 영문판 西藏 정치지위에 관한 王統史이다. 서장의 정확한 지위를 밝혀야 할 필요가 높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근현대부분을 보강할 것을 고무, Shakabpa는 일률 增補하여 1976년에 백만자에 달하는 藏文增補本을 출판하였다. 이 책의 영문판이 나온 이래, 達賴喇嘛 분열주의집단은 이를 지극한 보물처럼 떠 받들면서, 마치 ‘서장독립’의 ‘理論綱領’과 ‘역사증거’를 발견한 양 좋아하고, 외국의 일부인들도 이를 講話와 글썽 때 인용하고 있다.” 羅潤蒼, 『評Shakabpa의『藏區政治史』』(中國藏學 1992-3) 4쪽.

브은 “만약 우리가 이 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서장사회과학원은 성립할 필요가 없다”³⁾고까지 극언할 정도로, Shakabpa의 책은 親中的 티베트인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⁴⁾ Shakabpa의 책은 실천적 티벳독립운동에 믿음직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非歷史學 분야에서 티벳 독립문제에 접근하려는 학자들에게도 역사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和蘭의 國際法學者 Michael C. van Walt van Praag가 지은 『The Status of Tibet: History, Rights, and Prospects in International Law』(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7; van Praag, 『西藏的地位』, 1990)이다. 中共西藏自治區黨委第一書記를 역임한 바 있는 陰法唐의 말처럼, “이 책의 기초는 Shakabpa에게서 왔으며, 국제법과 민족자결권 등 내용을 첨가하여 舊西藏이 갖는 ‘독립 국가’ 지위를 논증하려 기도하였다. 이 책이 한번 중국에 유입되자, Shakabpa 책과 마찬가지로 즉시 중국 藏學과 사회과학계의 반박, 배척의 聲浪에 빠져 들었다.”⁵⁾ 이후 Shakabpa와 van Praag의 두 책은 ‘藏獨’ 즉 티베트 독립설을 집대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국 藏學界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다.⁶⁾

Shakabpa와 van Praag의 책이 티베트독립설의 집대성이라면, 王賁 崑饒尼

3) 陰法唐, 『西藏歷史地位』(民族出版社, 1996) 序言

4) Shakabpa의 책이 중국학계에 큰 충격을 준 까닭은 著者가 티벳인, 그것도 티벳의 독립을 주도한 주요한 지도자였다는 점, 그 때까지 중국인들이 접근하지 못한 주요 藏文 자료들을 논거로 삼고 있다는 점, 英文과 藏文, 中文 등으로 출판되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5) 陰法唐, 앞의 책 序文

6) van Praag의 책에 대한 중국측의 비판은 주로 역사와 국제법 등 두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楊公素의 「評范普拉赫의『西藏的地位』」(中國藏學 1990-2)와 柳升祺의 「評范普拉赫先生的西藏史觀及其他」(中國藏學 1992-1) 등은 전자의 경우이고, 李澤銳의 「殖民主義者侵華策略的自白-評范普拉赫先生近著『西藏的地位』」(中國藏學 1990-2)와 宋岳의 「對歷史的篡改 對國際法的歪曲-簡評范普拉赫『西藏的地位』」(中國藏學 1994-2) 등은 후자의 경우라 하겠다. 楊公素는 駐西藏代表外事辭館을 歷任한 외교관 출신이고 柳升祺는 ‘해방’전 國民政府 蒙藏委員會 駐藏辦事處 英文秘書를 지낸 바 있는 학자이며, 李澤銳와 宋岳은 國際法 전문가다. 당연히 民族學 전문가도 이 비판에 참여하였다. 姚兆麟의 「西藏和祖國的關係不容歪曲-駁范普拉赫『西藏的地位』」(西藏研究 1992-4, 1993-1)가 대표적인 경우다. Shakabpa에 대한 비판은 湯池安의 「評夏格巴『西藏政治史』」(所謂供施關係的政治循環)(西藏研究 1985-1)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비판은 Shakabpa의 반응(『易刀出曲解膿包之椎針』, 印度, 藏文『知識』月刊 1986-45)이 있었기 때문에, 湯池安은 Shakabpa를 재비판하였다. (『夏格巴自欺欺人之談可以休矣』, 西藏研究 1987-1) 그 뒤, 恰白.次旦平措의 「西藏簡明通史」(1991)와 羅潤蒼의 「評夏格巴的『藏區政治史』」(中國藏學 1992-3) 등도 Shakabpa 비판대열에 참여하였다.

瑪 唐家衛 等 중국인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西藏歷史地位辨』(北京, 民族出版社, 1995)은 Shakabpa와 van Praag 비판의 집대성이다. 이 책은 Shakabpa와 van Praag의 두 책을 살살이 분석하여 조목 조목 비판함으로써 티베트 독립설을 일거에 침묵케 할 의도로 씌였었는데, 그간에 이미 발표된 Shakabpa와 van Praag에 대한 비판들은 이 한권의 책에 모두 집대성되었다. 이 책은 “전면적, 체계적으로 ‘西藏獨立’論을 비판 반박한 好書”⁷⁾라는 이유로, 중국학계의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호평을 받았다.

티베트 독립의 당위성을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서 찾으려는 티베트 및 서방측의 노력이 중국인들의 반대에만 부딪혔던 것은 아니다. 서방의 티베트 전문가들 가운데에 중국측 입장을 옹호하는 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⁸⁾ 臺灣 학계에서도 중국학계의 일반적 움직임에 호응하였다.⁹⁾ 티베트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하에 있었던 印度의 관계학계에서는 티베트 독립설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중국학계의 즉각적인 비판에 봉착하였다.¹⁰⁾ 이처럼 티베트 독립설을 둘러싼 논쟁은 티베트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의 국가 담당자들과

7) 陰法唐, 「一部還西藏歷史以來來面目的好書-評學術專書『西藏歷史地位辨』」, (中國藏學 1996-1) 99쪽. 中共西藏自治區黨委第一書記를 역임한 바 있는 陰法唐은 “『西藏歷史地位辨』은 비교적 전면적, 체계적으로 ‘西藏獨立’論을 비판 반박한... 好書이다... 만약 Shakabpa와 van Praag의 두 책이 ‘西藏獨立’論의 대표작이라면, 『西藏歷史地位辨』은 ‘서장독립’論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비판과 반박의 대표작이라 말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陰法唐, 「一部還西藏歷史以來來面目的好書-評學術專書『西藏歷史地位辨』」, (中國藏學 1996-1) 99-104

8) 캐나다인 A. Tom Grunfeld가 쓴 『The Making of Modern Tibet』(Bath Press, Avon, 1987)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 책은 譯. 戈倫夫, 『現代西藏的誕生』(中國藏學出版社, 北京, 1990)이란 이름으로 漢譯되었다. 이 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은 鄧銳齡의 다음과 같은 書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서장역사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研究天地의 도래를 계시하고, 서장을 이해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溫潤한 지식의 新雨露를 帶來하였다... 이 책은 當代에 나온 최대의 공헌이다.” (評譯. 戈倫夫新著 『近代西藏的誕生』, (中國藏學 1988-1) 21-29쪽)

9) 한 예로 1992년 4월 臺北에서 열린 ‘西藏與中原關係國際學術討論會’에서 발표된 臺灣政治大學 民族研究所 張駿遠교수의 ‘中國歷朝主權在西藏的承繼及確定-由行政觀點看-」(『臺灣西藏與中原關係國際學術討論會』, 中國藏學 1992-3 紹介)의 내용은 중국학계의 주장과 흡사하다.

10) 錫金 甘托克朗 西藏學研究所 創辦人이자 所長이요 Calcutta大學 近百年國際關係史 교수인 Nirmal Chandra Sinha가 『How Chinese Was China's Tibet Region?』(印度 Calcutta 費爾瑪 KLM私營股分有限公司出版, 1981)이란 책을 써서 티베트와 중국의 전통적 관계를 낮게 평가하고 티베트와 인도의 관계를 강조하자, 藏委會委員 一員으로 1944에 進藏하여 民國政府를 위해 일한 바 있는 李茂郁이 『西藏的過去現在和未來都是中國不可分割的一部分-駁尼爾瑪爾. 錢德拉. 辛哈著“這藏中國的西藏地方過去是中國的?”關於西藏的若干謬論』(中國藏學 1990-4)을 발표하여 이를 비판하였다.

의 논쟁 수준을 넘어 이미 국제적 논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어떤 중국 인학자는 van Praag의 책을 평하면서 “西藏은 중국영토의 不可分割의 일부분 인데, ‘서장의 지위’와 같은 문제가 무슨 연구할 가치가 있단 말인가? 荷蘭은 멀리 歐亞大陸의 서쪽끝에 있어 중국과 만리 먼곳에 떨어져 있는데, 일개 荷蘭人이 왜 중국영토 西藏에 그토록 농후한 관심을 갖고 이토록 큰 氣力을 소모하면서 무슨 ‘서장의 지위’를 연구하게 되었는가?...영국인도 인도인도 아닌 하란인이 이 일에 왜 간여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¹¹⁾ 물론 티베트 독립설을 둘러싼 논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자설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그 논리적 근거를 티베트-중국의 전통적 관계로부터 찾으려 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논쟁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참여하여 학문적 논쟁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들 논쟁참여자들의 의도가 정치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이 논쟁은 엄밀한 역사학적 검증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티베트와 중국의 전통적 관계는 이른바 중국적 세계질서를 구성한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티베트 독립설을 둘러싼 이 국제적 논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王貫 等の『西藏歷史地位辨』에서는 Shakabpa와 van Praag 등이 주장한 티베트 독립설의 내용을 1. ‘西藏不屬中國’論, 2. ‘唐蕃爭鬭爲主’論, 3. ‘宋代中心外移’論, 4. ‘(元朝以後)僅有擅越關係’論, 5. ‘明朝對藏無趣’論, 6. ‘滿蒙均非中國’論, 7. ‘西藏政治實體’論, 8. ‘西藏無需解放’論, 9. ‘中共侵掠西藏’論, 10. ‘中共侵犯人權’論, 11. ‘西藏民族自決’論, 12. ‘流亡政府合法’論 등 12개 방면으로 나뉘어 정리한 다음, 이들 조목 조목 비판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을 한 편의 글 안에서 모두 정리, 검토하는 것은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의 성격상으로 보아도 모든 쟁점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19세기말에 이르러 전통시대의 티베트-중국 관계가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양측이 다룬 쟁점의 성격도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티베트-중국 관계에 대한

11) 李澤銳, 「殖民主義者侵華策略의 自由-評范普拉赫先生近著『西藏的地位』」, (中國藏學 1990-2) 4쪽.

12) 王貫 齊觀尼瑪 唐家衛 等, 『西藏歷史地位辨』, (民族出版社, 北京, 1995) 3-5쪽

연구사적 정리 역시 전통시대와 근현대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吐蕃과 唐이 티베트와 중국에서 병존하였던 시기부터 西藏과 滿清이 공존하였던 시기까지, 즉 전통시대의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에 관한 티베트 독립론자들의 이해와 그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시대별로 章을 나누어 살펴 본 다음에, 그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티베트’와 ‘中國’의 歷史的 概念을 통해서 티베트와 中國 관계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19세기말 이후의 티베트-중국 관계에 관한 양측의 논쟁도 전통시대의 그것과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쟁점이 풍부하게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전통시대의 그것과 다른 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別稿에서 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론에서 티베트 독립론을 주장하는 측을 ‘티베트측’이라 略稱하고 티베트 독립론을 반대하는 측을 ‘중국측’이라 약칭한다. 그러나 이것이 티베트인만이 티베트 독립론을 주장한다거나 티베트인은 모두 티베트 독립론을 주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중국인만이 티베트 독립론을 반대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여기서 ‘티베트측’이라 함은 ‘티베트 독립론을 주장하는 측’을 가리키고 ‘중국측’이라 함은 ‘티베트의 중국 귀속론을 주장하는 측’을 의미할 뿐이다.

2. 吐蕃-唐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티베트독립론과 그 반대론의 다툼은 흔히 吐蕃과 唐의 관계에 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양측은 모두 吐蕃이 티베트 최초의 통일국가였고 토번과 당의 관계가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형성한 첫번째 단계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논의도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정리,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1) 티베트측의 吐蕃-唐 緊張關係論과 對等關係論

吐蕃과 唐의 관계에 관한 티베트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것은 양국의 관계가 전쟁이 주조를 이룬 긴장관계였으며 대등하고 독립된 관계였다는 것이다.

Shakabpa는 그의 저서 제2장 '티베트 초기 王들의 帝國'에서 唐과 吐蕃 간의 전쟁관계와 唐에 대한 吐蕃의 군사적 우세를 주로 서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hakabpa는 "중국인들은 (吐蕃에) 도전하였으나 패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唐의) 皇帝는 마침내 公主의 出嫁에 동의하였다"¹³⁾고 하였다. van Praag는 그의 저서 제1장 '초기의 정치사' 제1절 '821년의 티베트-중국 條約과 帝國時代'에서, 821년에 세워진 唐蕃盟碑와 티베트 및 唐朝의 역사기록들에서 "7세기에서 9세기 중엽까지의 티베트는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팽창주의적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더불어 중앙아시아를 다룬 강력한 경쟁자로 묘사되었다"고 하였으며¹⁴⁾, 제8장 '티베트의 역사적 지위'에서도 "帝國時代의 티베트는 의심할 여지없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의 하나였다. 唐 皇帝의 威德을 찬양한 중국 史官들조차도 티베트가 당시 중국의 최대 경쟁자로서 8세기에 이르러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 시기 티베트의 독립성과 우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781년에 唐의 황제가 吐蕃에 파견한 使臣이 吐蕃君主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당시 吐蕃과 唐이 독립된 두개의 대등한 국가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인용하였다.¹⁵⁾

(2) 중국측의 唐-吐蕃 友好關係論과 上下關係論

唐과 吐蕃 緊張關係論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양국이 긴장관계 못지않게 親密友好關係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양국간의 文化交流를 특히 강조하였다. 王貴 등은 이를 위해 다음의 몇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¹⁶⁾

첫째, 拉薩 大昭寺에 세워진 唐蕃會盟碑에는 "남방의 天竺, 서방의 大食, 북

13) Tsepon W. D. Shakabpa, *Tibet: A Political History*, New York, Potala Publications, 1988, p. 26.

14) Michael C. van Walt van Praag, *The Status of Tibet: History, Rights, and Prospects in International Law*,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7, p. 2.

15) van Praag, pp. 119-120.

16) 王貴 喜饒尼瑪 唐家衡 等, 『西藏歷史地位論』, (北京, 民族出版社, 1995) 37-44쪽.

방의 突厥, 涅表 등이 모두 (吐蕃에) 畏服하여 다투어 朝貢하고 俯首聽命한다... 동방에는 漢國이 있어 땅이 大海 日出之處에 미치고 그 國君은 남면의 尼婆羅 (네팔) 등국과 같지 않아 가르침이 선하고 덕이 깊다”는 귀절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곧 松贊干布 때부터 누대의 藏王이 唐朝와 친밀한 관계를 취했음을 증좌한다.

둘째, 松贊干布는 唐朝와 왕래하면서 中原 漢族의 선진적 생산기술과 문화를 흡취하는데 크게 힘썼다. 그는 大臣을 당 황제에 보내어 請婚하여 641년(貞觀 15)에 당 太宗의 宗女인 文成公主를 迎娶하였는데, 문성공주가 入藏할 때 당 황제는 釋迦牟尼佛像과 珍寶, 金玉 西木+廚, 經書, 經典 360卷을 보내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외에도 각종 寶器와 食物, 卜筮典籍 300종, 전악을 식별하는 明鑒, 營造와 工技著書 60종, 404종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醫方 100종, 醫療器具 6종, 醫學論著 4종, 대량의 비단과 의복 등을 보내었다고 한다. 문성공주는 박학다재하고 佛敎를 독신하며, 拉薩에서 토목을 크게 일어켜 大昭寺 小昭寺 등을 지었다. 松贊干布도 漢地로부터 石+展磨, 紙墨 등 생산기술과 中原의 농구제조, 방직, 도자기제조, 야금, 건축 등 생산기술도 계속 받아들였다. 그는 藏文을 창제하고 長安에 귀족자제를 보내어 詩書를 학습케 하고, 漢族文人을 초청하여 表疏를 짓게 했다. 이로 인해 자연히 吐蕃사회의 생산력을 크게 제고되고 그 경제, 문화적 발전도 촉진되었다. 704년에 藏王 赤德祖贊도 청혼, 710년에 金城公主와 결혼하였는데, 이때도 많은 중국의 문물이 토번으로 들어가 큰 영향을 미쳤다. 토번의 전통적 打球游藝, 토번부녀 사이에 유행한 椎髻, 赤+者面 등도 중원에 전래되어 漢族文化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또한 松贊干布는 吐蕃에 唐朝의 官制를 모방하여 각급 관원을 설치하였다. 토번의 司法 관원인 ‘噶寒波制+手述’는 唐蕃會盟碑에 ‘刑部尙書’로 번역되었다. 그는 府兵制를 모방하여 군사조직을 건립하고, 당의 年號를 모방하여 자기의 年號도 제정하였다.

셋째, 吐蕃王朝와 唐朝 사이의 使節往來도 매우 빈번하였다. 『唐會要』와 『唐書』吐蕃傳, 『新唐書』와 『通鑑』 등에 기재된 바에 의거하면, 토번왕조가 세워진 지 얼마되지 않은 634년부터 토번이 붕괴된 846년까지, 213년간에 양측 관원이 모두 191회 왕래하여 연평균 1차 왕래하였다. 그 가운데서 唐使가 入蕃한 것이

66차, 토번관원이 赴唐한 것이 125차였고, 어떤 때는 1년에 4차례나 遣使하기도 했다. 649년에 당 太宗이 즉자 唐朝는 사신을 토번에 보내어 告哀하고 松贊干布는 사신을 통과하여 弔祭하였다. 당 高宗은 松贊干布를 '駙馬都尉 西海郡王'으로 冊封하고, 그 뒤에 '宗+貝王'으로 晉封하였다. 그리고 그의 石像을 만들어 당조의 다른 王公將相의 石像과 같이 太宗의 陵墓 옆에 나열하였다.

"唐蕃의 정치관계가 비상히 긴밀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위의 사실들을 나열한 王貴 등은 "고금 중외의 역사사실로 보아 계급사회에서는 戰爭이 불가피한 것"이라 하면서, "唐朝와 吐蕃의 관계도 결국 戰爭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동시에 우호교왕과 공동번영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¹⁷⁾고 주장하였다.

티베트측의 唐-吐蕃 '對等獨立關係'論에 대한 중국측의 반론은 '唐-吐蕃上下關係'論이다. "吐蕃과 大唐이 당시 두개의 국가였다"는 van Praag의 주장에 대해, 王貴 등은 "그렇다. 우리는 당시 唐蕃이 兩國이었고 唐朝가 아직 吐蕃에 派官設治하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松贊干布가 관원을 보내어 당 太宗에 弔祭하고 당 高宗이 여러 차례 그를 王으로 책봉하고, 松贊干布가 당 고종에게 글을 보내어 忠心을 표명하는 등의 史實로 보아, 唐蕃 양국이 완전히 평등하였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上下之分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명한 藏族史家인 格敦群培는 1946년에 편저한 『白史』에서 松贊干布가 당의 황제를 칭예하여 '山山+額之雁'이라 하고 자기는 '宅中之雁'에 비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松贊干布도 스스로 당 황제의 정치지위가 더 높고 정치분량이 더 무겁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다. 實事求是의로 말한다면, 唐朝가 통치한 中國은 당시 亞洲世界상에서 점한 지위와 영향은 吐蕃王國보다 확실히 더 높고 더 컸다"¹⁸⁾고 응수하였다.

중국측이 吐蕃國의 독립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티베트의 독립성까지 중국측에 의해 인정된 것은 아니다. 姚兆麟에 의하면, "吐蕃과 大唐의 관계에 관하여... (중국)학술계에서는 양종의 다른 看法이 있는데, 그 한 종류의 의견은 당시 中國의 영토상에는 두개의 政權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또다른 종류의 의견은 吐蕃이 唐朝에 臣屬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西藏獨立'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van Praag는 吐蕃이

17) 王貴 등, 49쪽.

18) 王貴 등, 44-45쪽.

일개 강대한 정권으로서 唐朝에 臣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西藏이 일개 '독립적 국가'였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徒勞이니, 어떠한 역사학자도 이러한 논증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에서 본다면, 吐蕃과 大唐은 모두 我國 고대에서 현란한 역사를 창조하였고, 토번의 贊普 松贊干布와 당 太宗 李世民은 모두 叡智卓識의 민족영웅이었으니, 이들이 개창한 민족우호교왕의 관계를 통해 200여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漢藏 양대민족이 견고한 우의를 결성하게 하였다."¹⁹⁾ 한편, 藏軍이 漢軍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당 황제가 어쩔수 없이 嫁女에 동의하였다는 티베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王貴 등 중국측은 "완전한 역사적 왜곡이요 중상"이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松贊干布와 文成公主의 혼인을 "藏漢民族 단결사상의 일대 사건"으로 적극 평가하였다.²⁰⁾

(3) 吐蕃과 唐의 和親關係

吐蕃과 唐의 관계에 대한 티베트와 중국 등 양측에서 제시한 논거가 논리적 근거로서 얼마만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大昭寺 會盟碑의 비문에 唐을 우호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 당-토번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비문은 문자 그대로 '會盟碑'의 비문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종결하고 會盟을 약속하는 비문에 우호적 귀절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외교적 표현을 근거로 하여 양국 관계의 實際를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토번과 당은 705년부터 821년 사이에 모두 8차례에 걸쳐 會盟하였음²¹⁾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8차례나 회맹을 되풀이하였다 함은 곧 적어도 7차례나 회맹의 약속이 깨어져 전쟁 상태로 전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음을, 즉 會盟에 의한 양국 和好關係의 기초가 매우 危弱하였음을 의미한다. 당-토번 관계의 主潮가 평화와 우애가 아니라 전쟁과 긴장이었음은 어떠한 논설로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19) 姚兆麟, 「西藏和祖國的關係不容歪曲-駁范曾拉赫「西藏的地位」一書」, 《西藏研究》1992-4, 1993-1) 171쪽.

20) 王貴 等, 47쪽.

21) 黃奮生, 『藏族史略』(民族, 1985) 91-97쪽.

둘째, 중국측은 松贊干布와 文成公主, 赤德祖贊과 金城公主의 결혼을 티베트와 중국의 문화교류와 '藏漢民族 단결사상의 일대 사건'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과장된 평가임이 분명하다. 300년 토번-당 관계사에 있어 이 두 사건은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그것이 갖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도 그만큼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문화교류사상에서 볼 때, 티베트문화와 중국문화의 관련성은 티베트문화와 인도문화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약 티베트를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원으로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한국이나 월남 등 다른 성분들과는 구분되는 매우 이색적인 성분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文成公主와 金城公主의 티베트出嫁가 티베트-중국 문화교류사상에서 접하는 위치, 즉 그것이 티베트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도 아직 구체적으로 점점,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단발적 사건으로써 토번과 당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세째, 토번과 당 양국 사신의 빈번한 내왕으로써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빈번한 通使는 양국간 외교적 懸案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양국 간의 제도적 관계를 표현할 수는 없다. 양국간 통사의 내용은 대부분 전쟁과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만큼, 冊封이나 朝貢 등의 제도적 기능을 동반하지 않은 빈번한 통사는 양국간의 전쟁과 긴장관계를 강조할 뿐이다. 당 高宗이 松贊干布를 '駙馬都尉 西海郡王'으로 책봉하고 그 뒤에 '宗+其王'으로 冊封한 사건은 文成公主의出嫁에 따른 일회성 행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당측의 책봉에 대한 토번측의 대응, 즉 책봉의 접수와 朝貢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발성 사건이 양국의 冊封朝貢關係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네째, 당 高宗의 松贊干布 冊封을 들어 唐과 吐蕃 사이에 '모종의 上下之分'이 있었다는 주장은 위의 이유로 인해 접수하기 어렵다. 더구나 1945년에 편저된 책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唐朝가 통치한 中國이 당시 亞洲世界상에서 점한 지위와 영향은 吐蕃王國보다 확실히 더 높고 더 컸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비논리적이다. 王貴 등도 스스로 "우리는 당시 唐蕃이 양국이었고 唐朝가 아직 吐蕃에 派官設治하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였거니와, 大昭寺 唐蕃會盟碑(821)에서 "西爲大蕃 東爲巨唐"이라 明記한 바와 같이, 吐蕃人

과 唐人은 양국을 대등하고 독립적인 隣敵國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토번이 당의 그것과는 다른 獨自의 年號를 사용하였음도 양국의 관계가 이념 상으로도 獨立의인 對等關係였음을 傍證한다. 무엇보다도 토번과 당 사이에 8 차례나 會盟이 되풀이된 것은 토번에 대한 당의 군사적 열세에 기인하였으며, 663년에 있었던 大非川戰에서의 당의 치명적 패배와 763년에 있었던 吐蕃軍의 唐 首都 長安占領은 모두 당에 대한 토번의 군사적 우세를 나타낸 사건들이다. 군사력의 우열이 곧 국제적 지위의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번과 당의 관계가 전쟁과 긴장관계로 지속되었고 토번의 군사력이 당의 그것을 지속적으로 압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의 국제적 지위가 토번의 상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측은 文成公主의 吐蕃 出嫁가 唐軍의 군사적 패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吐蕃軍의 연속적 군사적 압력이 唐으로 하여금 文成公主를 토번에 출가케 한 결정적 이유의 하나가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토번과 당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앞서 발표한 古代 中國의 世界秩序에 관한 研究에서 漢代의 국제관계를 和親關係와 內屬關係 등 두 종류의 유형으로 양분한 다음, 다시 화친관계를 쌍방이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이고 대등한 和親1關係와 명분상으로는 冊封朝貢體制에 의해 규정되나 실질적으로는 대등하고 독립적인 和親2關係로 나누고, 내속관계를 다시 일방이 명실상부하게 다른 일방에 종속적으로 지배되는 內屬1關係와 명분상으로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郡縣的 支配體制에 포섭되나 실질적으로는 冊封朝貢體制에 의해 규정된 內屬2關係 등 4종의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었는데,²²⁾ 이러한 분류는 漢代 이후, 특히 唐代의 중국 국가와 주변국가와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토번과 당의 관계는 전형적인 첫번째 유형, 즉 和親1關係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토번과 당은 서로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단 한 차례 당의 皇帝가 토번의 군주를 冊封한 적이 있었으나, 토번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朝貢으로 대응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두고 冊封朝貢體制에 의해 규

22) 金翰奎, 『古代 中國의 世界秩序 研究』 (一潮閣, 1981) 191-398쪽.

정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는 漢代의 경우 匈奴가 漢에 來朝稱臣하기 전까지의 匈奴와 漢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니, 匈奴의 군사력도 漢을 압도한 바 있었으며 양국은 長城을 경계로 國界를 나눈 隣敵國이었음을 서로 인정하였다. 특히 漢은 匈奴의 침공을 피하기 위해 漢 皇帝의 公主를 匈奴 單于에게 出嫁시킴으로써, 吐蕃의 군사적 침공을 둔화시키기 위해 吐蕃君主에 公主를 두 차례나 출가시키기로 한 唐代 對蕃政策의 先例를 만들었다.

吐蕃과 唐의 관계는 和親關係로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의 관계가 시종 화친관계를 지속하였던 것은 아니다. 8차례에 걸친 토번-당의 會盟은 양국의 관계가 전쟁 혹은 和親關係를 거듭 교차하였음을 明證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토번-당 관계로부터 전통적으로 吐蕃이 中國의 일부였음을 입증할만한 역사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徒勞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토번과 당이 빈번하게 사신을 교환하였다거나 문화교류를 이룩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토번이 중국의 일부였음을 입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西番-宋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1) 티베트측의 티베트-宋 無關論과 宋代中心移讓論

van Praag는 吐蕃'帝國'이 무너지고 '분열의 시기'가 이어짐에 따라 "티베트의 對外關係 중심이 中國으로부터 印度와 네팔로 옮겨졌다"고 하면서, 바로 "이곳(인도와 네팔)으로부터 이 나라의 정신적, 문화적 삶을 고무할 신선하고 강렬한 자극(즉 佛教)이 도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唐이 멸망한 뒤, "중국과 티베트 사이에 '無人之境'이 생겨나 지방 首領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결국 중국인과 티베트인 사이의 관계는 五代와 宋代의 전 시기를 통해 변경 부족들 사이의 우호적 왕래나 사소한 충돌 정도에 그쳤다. 실제로 티베트와 중국 정부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왕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제3의 중앙아시아 세력인 蒙古에 의해 두 나라가 정복되어 다시 접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²³⁾고 하였다.

(2) 중국측의 北宋-西蕃 上下隸屬關係論

티베트측의 五代 및 宋代 中國-티베트 無關論에 대하여, 중국측은 宋代의 중국과 티베트는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하나는 北宋時代의 중국과 티베트는 茶馬互市 등을 통해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며, 그 둘은 北宋의 皇帝가 西蕃(=宋代 티베트의 중국식 칭호)의 추장을 冊封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上下隸屬關係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측은 宋代 티베트의 대외관계 중심이 중국으로부터 인도 방면으로 옮겨졌다는 티베트측의 宋代中心移讓論도 적극 거부하였다.

王貴 등에 의하면, “宋朝는... 西夏王朝의 入犯에 대한 방위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11세기부터 원래 吐蕃王朝가 점거한 甘肅省 남부와 河西走廊, 青海省 동부, 四川省 서북부 등 藏族지구에서 屯田戍邊政策을 힘써 추진하고 이들 藏區의 경영과 治理을 강화했다. 농업이 적절한 곳에서는... 황무지 토지를 藏族에게 발급하고 免稅 耕種케 하였다... 목축이 적절한 곳에서는 藏民을 招募하여 牧馬, 牧羊케 하고 牧業稅를 감면하여 목축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상업이 적절한 곳에서는 藏民과 漢民 사이의 교환을 촉진하여 有無를 서로 통하게 하여 양측 모두 이익을 얻게 하였으니, 전통적 漢區의 茶葉, 布帛과 藏區의 축산물, 珠玉 등의 무역을 크게 발전케 하였다. 宋朝는 陝西省, 甘肅省, 四川省의 많은 지방, 특히 雅安, 臨邛, 臨夏 등에 馬市를 설립하여 漢區의 茶葉을 藏區의 馬匹와 교환하는 業을 專營케 하여, 저명한 茶馬互市를 출현시키고, 동시에 기타 토산품을 경영케 하였다... 이러한 기초위에, 송조는 河西走廊동의 藏族 부락에 弓箭과 기타 무기를 발급하고 藏族 弓箭手를 초모하여, 장족이 漢族 民兵과 유사한 군사체제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 西夏의 침범을 공동으로 방어하였다.”²⁴⁾

또한 王貴 등에 의하면, “北宋이 개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원래 吐蕃의 일개 부락 수령이었던 口+角斯羅가 青海省 湟水流域에서 정권을 건립하였다. 이는

23) van Praag, pp. 4-5.

24) 王貴 等, 52쪽.

藏族 주체의 최대의 地方封建政權이요, 藏族의 제1개 安多政權이다. 그는 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황제에게 遣使 納貢하고 官職을 구걸하였다. 宋朝는 西夏를 막는 작용을 평가하여 그에게 賞賜, 封關 등 방식으로 이 장족부락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1032년에 송 仁宗은 그를 ‘寧遠大將軍 愛州團練使’로 冊封하고 俸祿도 후하게 주었다. 1041년에는 ‘檢校太保充保順, 河西等軍節度使’로 책봉하였다. 그 뒤,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宋朝로부터 관직을 받았다. 口+角斯羅部는 宋朝에 稱臣하였고, 이 部의 통치지구는 송조가 전국을 구획한 26路(省에 상당) 중 秦鳳路에 예속되었다. 1116년에는 이 지구 전체가 송조의 郡縣이 되었다... 이외에도 宋 眞宗은 1001년에 涼州(武威) 藏族 六谷部 수령 潘羅支를 ‘鹽州防禦使兼靈州西面都巡檢使’로 임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王貴 등은 “이처럼 이들 장족부락과 송조의 上下隸屬關係는 명확하니... 이들 지구는 이미 처음부터 中國 宋朝에 隸屬되었다”고 결론지었다.²⁵⁾

또한 王貴 등은 “夏格巴가 口+角斯羅 등 部의 藏族이 宋朝에 귀속했다는 중요한 정치사실과 군사관계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藏區와 西夏 간의 매우 긴밀, 중요한 종교, 문화적 연계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으며, ‘上路弘法’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고 ‘下路弘法’에 대해서는 적게 이야기하여 西藏宗教史의 일 단면만 편파적으로 서술하여 역사의 진상을 옹폐하였다”고 비판하였다. 王貴 등은 “西藏과 印度의 聯系문제는 부인할 수 없으니, 특히 송대에 서장과 인도의 종교연계는 확실히 비교적 많았지만, 정치상으로는 이 때 서장과 인도의 사이에는 아무런 연계가 없었으며, 경제상으로도 연계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서, “종교관계만 하더라도, 당시 서장지구와 인도의 연계도 비교적 밀접했지만, 이와 동시에 青海, 甘肅省 등 安多 지구도 극히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었으니... 송대 漢族 지구의 문화도 衛藏 지구의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요컨대 van Praag가 송대에는 서장의 대외관계 重心이 인도로 옮겨졌다고 한 논단은 완전히... 역사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武斷이요 空洞의 결론이다”고 비난하였다.²⁶⁾

25) 王貴 著, 53-56쪽.

26) 王貴 著, 57-8쪽.

(3) 北宋과 西蕃의 局地的 冊封朝貢關係

중국측은 송대, 특히 北宋時代에 중국과 티베트 사이에 茶馬互市 등을 통한 경제적 관계가 긴밀하였고 北宋 정권과 티베트의 일부 지방정권 사이에 冊封과 朝貢이 교환되었으며 티베트와 青海, 甘肅地方 사이에 일정한 문화적 연계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北宋과 西蕃 사이에 上下隸屬關係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역사적으로 티베트가 中國의 일부였음”을 입증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北宋과 西蕃 간의 茶馬互市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宋蕃 간 茶馬互市가 北宋 정권의 제정에 크게 공헌하였음이 잘 알려지게 되었다. 宋蕃 간의 茶馬互市는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國境貿易이었으며, 양국 왕실간의 朝貢貿易과는 그 본질적 성격을 달리하였다. 따라서 北宋과 티베트 사이 茶馬互市의 번성은 양국간의 제도적 관계를 이해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둘째, 安多 지방의 口+角斯口+羅部和 涼州(武威) 藏族 六谷部 수령들에 대한 宋朝의 冊封과 이들의 稱臣朝貢은 당시 宋蕃關係의 매우 특이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7세기 중엽에 吐蕃王國이 붕괴되고 티베트 본부는 “種族分散 大者數千家 小者百十家 無復統一矣”²⁷⁾의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들 青海와 甘肅 일대의 티베트 諸部는 당시의 티베트를 대표할 수 없으며, 이들과 北宋의 관계만으로 당시의 티베트와 중국 관계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셋째, 티베트와 西夏, 혹은 青海, 甘肅省 등 安多地區의 밀접한 종교, 문화적 연계가 사실로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문화교류가 정치적 지배 및 예측관계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시의 西夏와 安多 지역이 과연 中國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확인되어야 한다.

宋代의 中國은 遼東 방면에서 흥기한 契丹과 女眞 등과 河西 방면에서 흥기한 黨項羌 등에 의해 침탈되었고, 北宋이든 南宋이든 中國 전역을 지배하지 못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중국 바깥으로까지 그 정치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송이 口+角斯口+羅部 등과 冊封朝貢關係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양자 모두 黨項羌 西夏의 압력을 받아 공동으

27) 『宋史』 권492 吐蕃傳.

로 西夏에 대항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²⁸⁾ 티베트 역시 大分裂時期를 맞고 있어, 중국 국가와의 총체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宋代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두고 '上下隸屬關係'를 운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양자의 관계가 '局地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티베트 독립론자들의 宋-티베트 無關論 역시 과장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와 티베트의 일부 정치세력 사이에 冊封朝貢關係가 발생하였음은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明代 중국 국가와 티베트의 관계에서 여실히 볼 수 있듯이, 漢인이 수립한 중국 국가와 티베트인이 수립한 정치세력 사이에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冊封朝貢關係가 宋代에서 처음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4. 烏斯藏-蒙元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1) 티베트측의 元朝 以後 티베트-中國 檀越(供施)關係論

van Praag와 Shakabpa는 元代 이래 西藏地方이 中國 版圖로 歸入되었다는 중국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원대 이후 中國 국가의 皇帝와 티베트 大喇嘛 사이의 '檀越'關係(즉 '供施'關係)를 확인함으로써 '티베트獨立'의 논리적 근거를 찾았다.

Shakabpa는 '喇嘛와 施主'라는 표제의 제4장에서 van Praag와 같이 蒙古皇帝와 薩迦喇嘛의 檀越關係 즉 供施關係를 강조하였다.²⁹⁾ 그는 1254년에 忽必烈이 八思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티베트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양도하였음을 밝혔다. "...나는 당신 밑에서 배운 뒤에 당신의 승려들과 사찰들을 계속 돕도록 고무되었으며, 당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가로 당신에

28) 黃奮生, 『藏族史略』(民族出版社, 1985) 169-161쪽.

29) Shakabpa가 供施關係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18세기에 土觀活佛 曲吉尼瑪가 『宗教流派鏡史』에서 "成吉思汗의 兵威가 藏地에까지 미쳐 阿里三圍와 衛藏四部 多康三區를 통일하고 遣使入藏하여 薩迦班智達에게 厚饋하고 供施之緣을 締結하였다"고 하였으며, 松巴大堪布 耶喜班覺은 『如意樹史』에서 "滿洲의 諸皇帝는 黃教와 供施關係를 結成하였다"고 하였다. (湯池安, 『評夏格巴』『西藏政治史』, 中所謂供施關係的政治涵義, 西藏研究 1985-1, 11쪽)

게 선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편지는 나의 선물이다. 그것은 전 티베트를 다스릴 권위를 당신에게 부여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종교적 체제와 당신 백성의 신앙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施主로 선택된 만큼, 당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 편지에 의해, 나는 당신의 종교를 보호할 책임을 질 것이다.” Shakabpa는 이렇게 해서 건립된 “蒙古의 汗과 티베트 喇嘛 사이의 供施關係는 ‘하늘의 해와 달’과 같다고 한다”고 하면서, 供施關係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247년에 薩迦班智達이 闊端 王子에게 항복할 때부터 1295년에 忽必烈 大汗이 죽을 때까지 티베트에 대한 蒙古의 군사적 통제가 이루어진) 전 시기를 통해, 티베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는 티베트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忽必烈的 재위기간에 몽고 지배자와 티베트 喇嘛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闊端이 薩迦班智達에게 보낸 편지와 忽必烈이 八思巴에게 보낸 편지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君主가 臣下에게 보낸 것과 같지만 후자는 施主가 喇嘛에게 獻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후자는 施主-喇嘛關係의 독특한 중앙아시아적 개념의 한 예를 보인 것이니, 그 안에는 종교적 세력의 정신적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평신도 권력의 세속적 지원이 주어져 있다. 몽고 지배자와 티베트 喇嘛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西歐의 정치적 용어로는 定義될 수 없다. 大汗의 진정한 태도는 자신의 정신적 스승이자 티베트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八思巴를 즐겁게 하기 위해 기꺼이 먼 거리를 여행한 것에서 잘 나타났다. 티베트로 돌아가는 八思巴를 수행하여 安多 지역까지 먼 길을 여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大汗의 태도는 양자의 관계가 상호 협조와 존중에 기초를 둔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몽고의 忽必烈汗과 티베트 八思巴 사이에 구축된 供施關係는 티베트인과 몽고인 사이와 이후 滿洲 皇帝와 達賴喇嘛 사이의 정치-종교적 관계의 기초로 유지되었다. 滿洲와의 供施關係는 淸朝가 멸망한 1911년에 종식되었다.”³⁰⁾

van Praag도 成吉思汗(정기스칸)의 손자 闊端(고단)과 티베트의 불교지도자 薩迦班智達 사이에 “티베트인들에게 ‘檀越’ 혹은 ‘供施’ 關係로 알려진 독특한 관계가 건립되었다”고 하면서, “이 관계는 이후 元 皇帝들과 티베트 薩迦喇嘛

30) Shakabpa, pp. 66-71.

들의 사이 뿐만 아니라 후대 滿洲 皇帝들과 達賴喇嘛들 사이의 독특한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였다”고 말했다. van Praag의 논증에 의하면, “그 뒤에 檀越關係는 보다 정치적 성향을 띄게 되었으니, 施主는 군사력을 제공하여 喇嘛와 그의 가르침(혹은 그의 교회)을 보호하도록 기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施主의 世俗 大權조차 그의 종교적 필요에 대한 喇嘛의 공헌과 맞바꾸어졌다. 사실 忽必烈汗(쿠빌라이칸)은 薩迦班智達와 그의 후계자이자 조카인 八思巴를 통해 13세기 중엽까지 티베트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통치)권력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스승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여 ‘國師’라는 직함을 주고 뒤에 다시 ‘帝師’라는 직함을 증여하였으며, 이러한 직함은 八思巴의 후계자들에게도 승계되었다. 이리하여 佛教는 蒙古帝國 동부의 전지역에서 國敎로 신봉되었고 티베트의 薩迦喇嘛는 이 지역 최고의 종교적 권위가 되었다. 그에게 증여된 이 직함의 대가로, 이 喇嘛는 ‘마개화된’ 몽고 정복자가 중국과 그들의 세계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통성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몽고 황제와 티베트인 간에 상호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帝師 八思巴는 세속적 책임과 종교적 책임을 二元化하는 이론을 개발하였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皇帝는 지각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 다스리는 최고의 세속적 통치자인데 반해, 티베트의 喇嘛는 일체의 종교적 영역에 있어 최고의 정신적 통치자이자 지배자였다. 兩者는 帝國의 이원적 질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 서로 독립적이었다. 이 이론에 의해 몽고의 황제들은 중국 왕조의 계승자가 아니라 보편적 佛國 皇帝의 계통을 잇는 정통적 계승자로 간주되었다... 帝師는 자신의 정신적 역할에 더하여, 이전에 薩迦班智達이 그러했듯이, 티베트 전 지역에 대한 세속적 지배권까지 황제로부터 양도받았다. 그는 佛教와 티베트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承政院)과 僧俗 사무를 관리하는 本欽을 통해 티베트를 통치하였다.”³¹⁾

이처럼 van Praag와 Shakabpa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양자 모두 元帝와 티베트 薩迦派 수령의 관계를 정치적 支配被支配關係로서 보다는 주로 정치-종교적 檀越(供施)關係로써 설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중국측이 元帝와 티베트 薩迦喇嘛의 供施關係를 굳이 강조한 까닭은 이를 통해 티베트의 ‘독립국가’적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31) van Praag, pp. 5-6.

Shakabpa는 “忽必烈이 티베트 3區를 八思巴에게 獻給함으로써 티베트는 완전히 獨立自主하였다. 30수년이 지난 뒤, 忽必烈皇帝는 전 중국을 통치하고 元이라 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蒙古는 중국을 통치하고 티베트와는 供施關係를 가졌다. 그리고 獨立自主의 티베트의 토지와 백성은 근본적으로 蒙古人과 中國人의 통치와 간섭을 받지 않았다’³²⁾라고 하였다. van Praag도 蒙古와 티베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蒙古에 의해 지배된 전 시기를 통해, 티베트는 帝國의 한 독특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으며, 제국으로 완전하게 통합된 적은 없었다”³³⁾고 하였다.

(2) 중국측의 元帝-薩迦法王 檀越-主屬關係兼有論

티베트측과 중국측이 전개한 논쟁의 쟁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元代의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측이 역사상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음을 주장할 때 언제나 두서에 내놓는 말이 곧 ‘元代 이래로 티베트는 中國의 版圖에 納入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티베트 독립론자들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檀越關係論’을 거론했어야 했으며, 반면에 중국측은 티베트측이 제시한 ‘檀越關係論’을 격파해야 할 제1차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元代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에 관한 티베트측의 논의, 즉 ‘檀越關係論’은 중국측의 3단계 반론에 부딪혔다.

중국측 반론의 첫번째 단계는 티베트측이 “중국황제와 티베트 大喇嘛 사이에는 上下主屬關係는 없고 오로지 檀越關係만이 있었다”는, 이른바 ‘僅有檀越關係論’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王貴 등은 “元朝 중국 황제는 西藏 政教首領(특히 薩迦法王)에 대해 종교상의 檀越關係 뿐만 아니라 정치상의 上下主屬關係도 갖고 있었으나, Shakabpa와 van Praag는 이를 엄폐, 왜곡, 韋造하였다”³⁴⁾고 규탄하였다. 王貴 등에 의하면, “西藏獨立論은 19세기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00여년간 되었지만, ‘檀越關係만 있었다’는 논의는 13세 達賴喇嘛가 圓

32) Shakabpa, 「易+刀出曲解體包之推針」(印度, 藏文『知識』月刊 1986-45); 湯池安, 「Shakabpa自欺欺人之談可以休矣」(西藏研究 1987-1) 50쪽. 이 글은 湯池安, 「評Shakabpa『西藏政治史』中所謂供施關係的政治涵義」(西藏研究 1985-1)를 비평함.

33) van Praag, pp. 6-7.

34) 王貴 等, 71-76쪽.

寂한 뒤, 國民政府가 1934년에 黃慕松을 專使로 西藏에 보내어 致祭했을 때, 西藏地方政府가 비로서 공개적으로 국민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 '僅有檀越關係'論은 '서장독립'론을 수반, 복무하면서 元代 이래 서장지방정권이 중국조정에 예속한 史實 근거를 망령되이 동요시킨 奇談怪論이다."³⁵⁾ 王貴 등은 "일찌기 薩迦王朝時期的 藏文史料중에서 元朝皇帝와 西藏 大喇嘛 사이에 檀越關係가 있었음을 서술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檀越關係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종교상의 檀越關係외에도 정치상의 上下主屬關係, 즉 통치와 피통치의 관계가 있었음도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적 檀越關係로써 정치적 主屬關係를 엄폐, 대체하려 해서는 안된다"³⁶⁾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중국측의 입장은 '僅有檀越關係'論을 부정하고 '檀越主屬關係兼有'論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중국측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檀越關係'의 성격을 종교적 관계로 제한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티베트측이 檀越關係를 종교적 관계임과 동시에 정치적 의미도 함께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통해 종교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를 동시에 설명하려 하였는데 반해, 중국측은 단일관계를 종교적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단일관계로써는 정치적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즉 중국측은 '종교적' 단일관계와 '정치적' 상하주속관계를 엄격히 구별한 것이다. 이는 王貴 등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학자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적 측면이다. 예컨대, 湯池安은 "供施關係은 兩國關係가 아니며 國과 國의 어떠한 관계도 산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元朝王室은 薩迦派와만 供施關係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內地의 허다한 田地를 佛寺에 賜給하고 內地의 허다한 漢族住持와도 供施關係를 결성하였다... 皇帝와 高僧大德이 供施關係를 맺었다고 해서 황제가 헌상하거나 賜給한 토지의 國家領土의 성질이 개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八思巴가 灌頂하고 받은 13萬戶이든 3區이든 간에 이 토지는 여전히 元朝 版圖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檀越關係로부터 정치적 의미를 적극 소거하였다.³⁷⁾ 臺灣의 張駿逸도 "藏方은 항상 佛家の 관점에서 출발하여 皇帝를 施主로 보았으나, 사실상 이는 각 종파가 황제의 세력에 빙자하여

35) 王貴 等, 60쪽.

36) 王貴 等, 62-65쪽.

37) 湯池安, 「評夏格巴『西藏政治史』中所謂『供施關係』的政治涵義」, 西藏研究 1985-1, 13-15쪽.

자기 신분을 제고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다른 종파와 경쟁하여 敎區를 확대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서장의 영도인물과 중앙의 정치인물이 어떠한 權越關係를 맺었던 간에, 정치상의 主從關係를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³⁸⁾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면에 대한 중국측의 논의는 이 단계에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측은 元帝와 薩迦首領의 權越關係를 일개 종교적 관계로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양자의 정치적 관계를 ‘上下主屬關係’로 규정하여 강조함으로써, 元代 이래로 티베트가 중국의 版圖에 納入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려 하였다. 王賁 등은 먼저 闊端과 薩班·貢口+葛堅贊 사이의 관계를 이른바 ‘上下主屬關係’로 규정하였다. 그들의 논증에 의하면, “1229년에 成吉思汗의 제3자 穴口+內闊台가 즉위하여 甘肅, 靑海 및 원 西夏의 屬區를 제2자인 闊端에게 分封해주었다... 闊端은 1240년에 涼州(武威)에서 大將 多塔納波를 보내어 西藏을 쳐들어가게 하였다. 多塔는 衛藏 일대의 藏傳佛教 각 교파의 정황을 이해한 후, 闊端에게 佛學에 조예가 깊은 薩迦派 고승 薩迦班智達·貢噶堅贊에게 涼州에서 西藏의 일을 상의하도록 迎請할 것을 건의하였고, 闊端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1244년에 薩迦班智達에게 편지를 보내어 불렀다... 이에 薩迦班智達은... 涼州에 가서... 闊端을 만나, 서장 지방세력을 대표하여 몽고왕실과 직접적 연계를 맺게 되었다. 闊端과 薩迦班智達은 西藏이 蒙古汗國에 귀순하는 구체적 조건을 의정하였는데, 그 대체적 내용은, 蒙古가 薩迦人員을 達魯花赤으로 임용하여 金符와 銀符를 내리고, 모든 吐蕃地區의 頭人은 반드시 薩迦의 金符人의 명령을 듣되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吐蕃 각지에서 官吏와 戶口, 貢賦清冊 3人+分을 繕寫하고 1人+分은 각지 관리가 스스로 보존하고 2분은 闊端과 薩迦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으며, 蒙古는 관원을 衛藏에 파견하여 薩迦의 인원과 회동하여 稅目을 의정하도록 하였다. 薩班은 衛, 藏, 阿里的 각 僧俗 수령에 편지를 보내어 이를 통지하고 아울러 서장이 몽고에 귀부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중국을 통일한 蒙古汗國(뒤의 元朝)이 西藏에서의 薩迦敎派의 領袖 자위를 인정하고 薩迦人員이 衛, 藏, 阿里를 통치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음을 설명하였다. 政敎合一의 薩迦地方政權이 西藏을 통치하게 된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³⁹⁾

38) 張駿逸, 「中國歷朝主權在西藏的承繼及確定-由行政觀點看-」, (衛), 「臺灣西藏與中原關係國際學術討論會」(中國藏學 1992-3) 159-60쪽 제인용.

王貴 등은 忽必烈과 八思巴 간의 관계도 ‘上下主屬關係’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논증에 의하면, “1251년, 蒙哥가 汗位에 오른 뒤, 藏漢의 광대한 지구를 그 弟 忽必烈에게 주어, 원래 闊端의 領地에 속한 西藏은 忽必烈 관할하로 돌아갔다. 忽必烈도 闊端의 정략을 계승하여, 藏族 인사중에 서장통치를 도울 수 있는 종교수령을 부식하려 하였다. 1252년에 忽必烈이 雲南을 南征하고 金沙江 이동 藏族地區를 정유할 때, 衛藏 각 지방세력이 제차 蒙古汗國에 귀순을 표시하였다. 이 때, 薩迦班智達은 이미 죽은 뒤여서, 忽必烈은 涼州에 사람을 보내어 薩迦敎派의 새 수령 八思巴에게 와서 만날 것을 청하였다. 八思巴는 忽必烈에게 충성을 표시하고, 忽必烈은 八思巴를 좌우에 두고 그를 서장통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였다. 1260년에 忽必烈이 大汗位에 즉위한 뒤, 八思巴를 國師로 冊封하였다. 1264년에 忽必烈이 몽고 上都에서 燕京으로 천도한 뒤, 조정 안에 總制院을 설립하여 전국의 불교사무와 藏族地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八思巴로 하여금 國師의 신분으로 總制院의 일을 겸장케 하였다. 1271년에 忽必烈이 大元이라 국호를 고치고 稱帝한 다음, 八思巴를 帝師, 大寶法王으로 책봉하였다. 唐朝에서는 宣政殿에서 吐蕃 使節을 접대하였기 때문에, 元朝에서도 1288년에 總制院을 宣政院으로 개명하고, 帝師인 八思巴로 하여금 宣政院을 겸령케 하였다. 선정원은 樞密院과 中書省, 御史臺 등과 함께 皇帝가 직접 장악하는 元朝 중앙의 4대 기구의 하나였기 때문에, 八思巴는 황제가 임명한 元朝 중앙정권의 한 고급관원이었다. 그 뒤, 원조의 역대 황제는 薩迦敎派의 유식한 大喇嘛를 帝師로 選封하여, 定制를 이루었다.” 그들은 “만약 원세조 忽必烈과 薩迦.八思巴 간에 종교상의 檀越관계만 있었고 정치상의 上下主屬관계는 없었다면, 일개 檀越施主에 불과한 忽必烈이 어떻게 受施高僧인 八思巴를 불러 좌우에 侍하게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詔書를 주어 全藏통치권과 관직을 수여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따라서 원태조 成吉思汗과 衛藏수령들 사이에 모종 정도의 上下主屬關係가 있었고, 闊端王子와 薩班.貢噶堅贊, 元世祖 忽必烈과 薩迦.八思巴 사이에는 施主와 受施者의 檀越關係 외에도 君臣關係, 즉 정치상의 上下主屬關係가 있었음은 다룰 수 없는 史實이었다. 이외에도, 원세조는 八思巴의 弟 恰那多吉을 ‘白蘭王’으로 책봉하고 金印을 주었다. 이로

씨 藏族 인원이 元朝皇帝로부터 王爵을 칙봉받은 첫 예가 열렸다. 白蘭王은 명을 받들어 西藏 사무를 총관하였고, 그의 사후에, 八思巴의 추천을 받아 皇帝로부터 임명된 薩迦本欽이 西藏을 다스렸다. 이는 모두 원조와 薩迦高僧 사이에 上下主屬關係가 있었음을 명증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⁴⁰⁾

중국측 반론의 제3단계는 元이 티베트에 3宣慰使司都元帥府(=衛+藏+阿里)를 설치하여 任官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관리를 파견하고 驛站을 설치하는가 하면 戶口를 조사하고 元朝의 曆法과 刑法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통치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논거로 내세워, 元代 이래로 티베트가 中國의 版圖안에 納入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王貴 등에 의하면, “唐朝 말년 이래 원래의 吐蕃王朝 관할지역이 분열되어온 상황에 근거하여, 元朝는 宣政院 아래에 전국 藏區를 3개 宣慰使司都元帥府(吐蕃等處, 吐蕃等路, 烏思藏納里東古魯係 등 3路)로 구획하고, 선정원부터 선위사사도원수부에 이르기까지 萬戶 이상의 중요관원은 모두 선정원이나 帝師가 提名하여 皇帝가 聖旨를 하달하여 위임하여야 유효할 수 있었다. 군사와 국방상 필요에 의해, 원조는 항상 군대를 파견하여 西藏에 주둔케 하였다. 서장 각지 수령의 대다수가 致數를 겸령한 정황에 근거하여, 원조는 西藏의 ‘帥臣以下’의 각급 관원은 모두 반드시 ‘僧俗并用, 軍民通攝’케 하여, 軍務뿐만 아니라 民政도 관할하게 하였으니, 이러한 僧官과 俗官의 並行 제도는 이후 계속 역대 서장지방정부의 定制가 되었다. 衛, 藏, 阿里 각지의 人口疏密과 物產豐饒不等의 정황에 근거하여, 원조는 각지의 貢賦 액수를 규정하고, 西藏 지구에 15개 驛站(甲姆)을 설치, 각 역참 사이에 다시 小驛站을 설치, 서장의 교통과 전운사업을 완비하고, 驛道 연변에 거주하는 민에게 馬匹의 출동의무를 부과하여, 公文을 전송하고 왕래하는 관원의 숙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서장지방의 烏拉制度를 형성하였다. 원조는 서장 각지에 軍站도 설립, 중앙정권의 서장지방 軍政 사무의 통할을 강화하고, 조국 內地와 서장지방의 경제, 문화연계를 더욱 밀접케 하였다. 원조의 曆法과 刑法도 서장에서 실시되어, 薩迦本欽은 원조 법전에 의거하여 서장지방의 民刑律條를 개정하였다. 원대 朝廷이 서장지방에서 범인을 판결, 처형한 일도 발생했다. 예컨대, 南宋의 恭帝는... 西藏에서 처형되었고, 1281년에 衛藏 13만호를 관리하던 薩迦本欽이... 忽必烈에 의해 문죄되어 처형되었다... 원조는

40) 王貴 等, 68-70쪽.

또한 관원을 여러 차례 西藏에 보내어 戶口를 조사하여... 13만호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王貴 등은 "만약 元朝 황제가 일개 순수한 權越施主였다면, 어떻게 受施高僧 西藏薩迦喇嘛의 지역에서 구역을 획하고, 군대를 주둔하며 역참을 설치하고 공물을 거두고 관리를 위임하며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元代의 티베트는 元의 일개 省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薩迦世系史』에서 "...蒙古 忽必烈 황제의 轄地는 모두 11個省이다. 藏區 2地面은 비록 一省에도 부족하지만, 大法師(八思巴)住地와 佛法弘揚之所이므로 일개 省으로 계산하여 委付한다"고 한 것은 "명확히 西藏이 元朝 중국 12省중의 1省임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라 하고, 마르코폴로가 여행기에서 명확하게 '西藏省(The Province of Tibet)'이라 하였음을 또다른 논거로 제시하였다.⁴¹⁾

元代 티베트가 元朝의 '일개 省'에 불과하였다고 단언한 王貴 등의 논단은 적지않은 중국인 학자들의 찬동을 받았다. 예컨대, 楊公素는 "몽고족이 건립한 중국 元朝가 서장을 중국의 통일적 행정구획에 따라 관리하였음은 중국역사를 조금만 아는 이도 잘 아는 사실이다. 元朝는 전국을 약간의 路로 나누고 路 이하는 약간의 宣慰司와 千戶, 萬戶 등으로 分管하였으며, 藏族지구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는데... 이러한 지구 행정관리의 분획은 대체로 지금까지 실행되어 왔다"⁴²⁾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중국인 학자들 가운데는 당시 티베트의 지위를 다소 융통성있게 규정한 이도 없지 않아 있었다. 예컨대, 湯池安은 "물론 元朝의 西藏통치는 蒙古본토와 大江南北과 달랐다... 僧俗수령이 서장 政敎사무를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니, 자연 일정한 自主權을 가졌다. 이러한 특수관계는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西藏은 元朝의 중앙정부 통치하의 自治區였다고 할 수 있지만, 自治區는 결코 獨立國과 같지 않다"⁴³⁾고 하였다. 이처럼 중국인

41) 王貴 等, 71-76쪽. 姚兆麟도 "사실 서장이 전 중국의 특수한 일부분이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van Hraag가 이 '특수'성을 가지고서 서장을 중국의 바깥으로 떼어놓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 『元史』에서는 元朝의 통치자들이 '郡縣吐蕃 設官分隸'하여 帝師로 하여금 領하게 하고 宣政院을 세웠다 하니... 실제로 중앙의 통치권이 배몰어진 것이다. '特殊的'이란 곧 이 지방이 宣政院의 관할로 劃歸되었다는 것이다. 宣政院은 元朝 중앙정권의 4대 기구의 하나로서, 서장의 軍政사무와 전국의 불교사무를 分管하였다. 서장의 軍政이 중앙의 統管하에 있었는데, 불가분할적이라 할 수 없단 말인가? 원조는 帝師制度를 건립하였고 帝師는 조정의 命官이었다."고 하였다. 姚兆麟, 『西藏和祖國的關係不容歪曲-駁范普拉赫「西藏的地位」一書』(『西藏研究』 1992-4, 1993-1) 171-2쪽.

42) 楊公素, 「評范普拉赫的「西藏的地位」」(『中國藏學』 1990-2) 23쪽.

43) 湯池安, 「夏格巴自欺欺人之談可以休矣」(『西藏研究』 1987-1) 52 쪽.

학자들 사이에도 약간의 의견차이가 발견되지만, 중국측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견해는 元帝와 薩迦法王의 관계는 君臣上下主屬關係였고 원대의 티베트는 蒙元の 통치하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대 이래로 티베트는 中國의 영토에 納入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3) 元帝와 薩迦喇嘛의 供施關係 및 冊封朝貢關係의 兼有

元帝와 薩迦喇嘛 등이 檀越關係를 가졌다는 티베트측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중국측 반론의 제1단계는 티베트측이 元帝와 티베트 政教首領(특히 薩迦法王)이 종교상의 檀越關係만 가졌을 뿐 정치상의 上下主屬關係는 갖지 않았다는 ‘僅有檀越關係論’을 주장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보아, 중국측의 이 1단계 반론은 과장된 것이다. van Praag는 闊端과 西藏의 薩迦班智達 사이, 元朝皇帝와 薩迦喇嘛 사이를 ‘檀越關係’로 규정함과 동시에, “忽必烈汗은 薩迦班智達와 그의 후계자이자 조카인 八思巴를 통해 13세기 중엽까지 티베트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통치)권력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하고, “티베트는 忽必烈이 중국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忽必烈的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중국이 독립을 얻기 전에 이미 그 실질적 독립을 회복하였다”고 말함으로써, 티베트에 대한 몽고 황제의 중국적 지배력을 인정하였다. 王貴 등도 이를 두고 “그의 이야기는 모순된다”고 비판하였는데, 모순된다 함은 곧 van Praag가 檀越關係와 모순되는 별개의 정치적 관계가 공존함을 인정하였다는 뜻이다. Shakabpa도 薩迦班智達가 闊端의 招降을 받아들여 티베트의 僧俗首領들과 함께 蒙古에 귀순하고, 그 대가로 중부 티베트의 13萬戶에 대한 세속적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Shakabpa는 闊端과 薩迦班智達 사이는 군주와 신하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薩迦班智達가 闊端 王子에게 항복할 때부터 忽必烈 大汗이 죽을 때까지 티베트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蒙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 비록 Shakabpa와 van Praag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양자 모두 元帝와 薩迦首領들 사이에 檀越關係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복속과 피복속의 관계도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들 티베트측의 견해는 중국측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티베트측이 檀越關係를 더 강조한데

반해, 중국측이 정치적 服屬被服屬關係를 더 강조하였다는 것 뿐이다.

중국측 반론의 제2단계는 元帝가 薩迦首領을 帝師와 法王 등으로 冊封하고, 기타 本欽, 宣慰使, 安撫使, 萬戶, 千戶 등을 책봉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양자의 '上下主屬關係'를 강조한 것이나, 이러한 冊封의 사실은 冊封朝貢關係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것이 직선적으로 '원대 이래로 티베트가 중국의 판도에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특히 宣慰使 이하 萬戶, 千戶 등의 책봉은 곧 上司制度의 운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역시 唐代 羈縻+絲州體制나 明代의 上司制度和 마찬가지로 중국 국가가 중국 바깥의 諸部를 간접적, 형식적으로 지배하는 양식의 하나였을 뿐이다.

중국측 반론의 제3단계는 元이 티베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達魯花赤을 주재케 하며 戶口를 조사하고 驛站을 설치하는 등 티베트를 직접 지배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원대 이래 티베트가 중국 판도에 납입되었다'는 가설을 입증하려 한 것이나,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사실들은 蒙古가 정복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항용적으로 피정복민에게 요구하는 '6事'와 내용이 흡사하며, 6事が 요구되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독립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高麗의 경우 蒙古에 항복하고 6事を 강요받았지만, 그 독립왕국으로서의 위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6事 외에도, 元은 高麗에 자국의 曆法과 刑法을 강요하고 그 國王을 처형하거나 元朝의 諸侯王으로 책봉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고려의 독립성은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들어 元代 티베트의 독립성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당시 高麗 등 유사한 事例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내리지 않는 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烏斯藏-明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1) 티베트측의 元明非繼承關係論과 明代티베트獨立取得論

티베트 독립론자들은 明代의 중국 국가와 티베트 정치세력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 하나는 明은 티베트에 대한 元朝의 정치적 권리를 계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에 대하여 별다른 정치적 관심을 갖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明代 중국 국가에 대하여 당시 티베트의 정치세력들은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Shakabpa는 “明朝의 중국 황제들이 앞선 시대의 몽고인으로부터 서장에 대한 권력을 계승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 근거로서 “帝國을 세운 몽고인들은 먼저 티베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한 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마침내 중국을 정복하였다. 티베트는 強曲堅贊(1302-64)시기에 몽고로부터 독립을 얻었으며, 중국은 1368년에 朱元璋의 영도하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더구나 明廷에 초대받은 티베트 喇口+麻들은 일찌기 蒙古의 조정에 초대받은 이들의 정치적 역량과 같지 않았다”⁴⁴⁾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그는 “이 시기 동안에, 중국의 明廷은 티베트의 지도자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였다. 중국인들은 몽고의 諸部와 타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들 몽고 제부는 동부 터키스탄과 북부 티베트의 코코노 지역, 심지어는 남부 러시아로 침투하고 있었다”⁴⁵⁾고 하였고, “明의 皇帝는 티베트를 독립적인 ‘서방의 왕국’으로 보았을 것임이 분명하다”⁴⁶⁾고 하였다. van Praag 역시 “中國에서 건립된 明은 蒙古帝國 전체를 접수하지는 못하였으며, 티베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의 논중에 의하면, “첫 황제인 太祖(朱元璋)는 元朝와 티베트의 지방 僧俗首領들 사이에 있었던 聯系를 약간 회복시키려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 앞서 몽고인 정복자들이 가졌던 권리와 특전을 복구시키려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시도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明의 황제들은 티베트 통치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날 중국 史官들은 대외관계에 대한 유교적 해석에 맞추어 중국과 티베트의 교섭을 朝貢關係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적 동기에 의해 明廷으로 파송된 티베트 사절들이 『明史』에는 ‘朝貢使節’로 언급되었다. 사실 대부분의 사절단 파송은 말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이고, 때로는 급박한 수요에 의해 재촉되었다. 중국의 군대가 여전히 북방에서 몽고의 諸部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몽고의 말

44) Shakabpa, p. 73.

45) Shakabpa, p. 90.

46) Shakabpa, p. 84.

은 중국에 공급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에 말을 공급한 사람들은 티베트인이었다. 티베트인, 특히 그 종교적 지도자들은 명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때때로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몽고의 지배 가문들과 유대관계를 지속시켰다. 티베트는 네팔왕국과 카쉬미르와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가졌으며, 어떤 때는 그들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티베트는 모든 이웃 나라들과 종교적,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⁴⁷⁾

티베트 독립론자들의 明代 중국국가와 티베트 제 세력의 관계에 대한 두번째 관점은 적어도 明代에는 티베트 불교의 格魯派와 중국의 정권 사이에 아무런 정치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hakabpa는 “蒙古 朝廷의 앞선 관행을 따라 明廷이 새로운 정신적 스승을 찾기 위해 티베트에 사람을 보내었을 때, 위대한 高僧 가운데서 그 초청을 받아들인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永樂帝는 格魯派의 창시자인 宗喀巴의 명성을 듣고 중국을 방문해 주도록 그를 초청하였으나, 宗喀巴는 그 초청을 사절하였다. 두번째 초청이 왔을 때, 그는 제자 釋迦也失을 明廷에 대신 보내었다”고 하면서, “지위낮은 喇嘛에까지 특별히 대우하고 격조 높은 직함을 수여한다거나 저명한 高僧들은 초청을 거절하고 제자를 대신 보낸 일 등은 이 시기의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明의 皇帝는 티베트를 독립적인 ‘서방의 왕국’으로 보았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⁴⁸⁾ 또한 그는 “이 기간 동안에, 티베트인과 몽고인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교섭이 있었으며, 俺答汗과 達賴喇嘛 사이에는 상호 직합의 교환까지 있었다. 이 때의 蒙古는 독립된 나라였으며, 이는 滿清時代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티베트는 明代에는 中國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다. 明 황제는 중국과 접경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티베트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⁴⁹⁾고 하였다. van Praag도 “유교적 전통이 다시 한번 더 帝國의 朝廷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몇명의 황제들을 제외하고서는, 明은 元朝를 특징지은 佛教 愛護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고, “중국의 永樂帝는 宗喀巴의 영향력이 중대함을 인식하여 그를 明廷에 초청하였다. 宗喀

47) van Praag, pp. 7-8.

48) Shakabpa, pp. 83-84.

49) Shakabpa, p. 90.

巴는 사절하였으나, 황제가 고집스럽게 거듭 초청하자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 施主가 되겠다는 제안을 받아 들였다. 티베트의 年代記 撰者는 중국 황제의 使者가 達賴喇嘛라는 譽稱을 보내어 왔다고 기록하였고, 중국의 史家들은 『明史』에서 ‘서방 나라들의 외국인’에 대한 喇嘛의 통치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格魯派가 밀접하게 제휴할 동반자로 선택한 상대는 몽고인이었다. 몽고와 티베트의 유대관계는 다시 한번더 정치적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⁰⁾

(2) 중국측의 明朝‘衆建多封’論과 明-烏斯藏 ‘上下主屬關係’論

明이 티베트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티베트측의 주장에 대하여, 王貴 등 중국측은 明朝가 티베트에 관해서 건국초부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반박하였다. 그 증거로서 그들은 明太祖 朱元璋이 南京에서 稱帝한 다음 해(1369)에 관원을 西藏에 보내어 各部의 귀순을 명령하였음을 例舉하였다. 王貴 등에 의하면, “이 같은 노력의 결과, 忽必烈의 제7자 西平王 阿-土魯赤의 5세손인 鎮西武靖王 卜納剌가 명태조의 詔諭를 접수하여 1371년에 元朝가 頒發한 印信을 갖고 南京에 가서 歸順을 표시하니, 명조는 元朝가 준 印信을 거두고 靖南衛指揮同知로 임명하였다. 또한 元末에 퇴거한 최후의 일개 攝帝師 朗喀貝桑波도 明朝의 조유에 응하여 1373년에 南京에 가서 入朝歸順하니, 명태조는 그를 火+只盛佛寶國師로 봉하고 玉印을 주었고 朗喀貝桑波가 추천한 衛藏지구의 元朝舊員 100명 이상에게도 明朝는 각급 관직을 주었으며, 衛藏과 기타 藏區 각지의 僧俗 수령들도 다투어 南京에 가서 歸附를 표시하고 朝貢 請封하면서 元朝의 옛 印信을 바꾸고 명조의 새 인신을 얻어가니 명조는 일률적으로 그들에게도 새 관직을 주었다.” 明朝는 티베트에 대한 元朝의 권력을 계승하지 못하였다는 티베트측의 주장에 대하여, 王貴 등은 “이처럼 明朝는 건국 직후에 詔勅을 발하여 入朝를 접수하고 관직을 封授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元代 藏區 각지의 政教首領과 관원들로 하여금 臣服케 하고, 전국 藏區를 조정의 통일적 治理하에 두고, 먼저 원조에 귀속한 西藏地方에 대한 통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반박하였다.⁵¹⁾

50) van Praag, pp. 7-9.

티베트에 대한 元朝의 권리를 명시 계승하지 못했다는 티베트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중국측이 제시한 반론의 두번째 논거는 “西藏지방에 대한 統治를 강화하기 위해, 明朝는 건국초에 祖國 內地, 특히 雲南, 貴州, 四川, 廣西, 湖廣 등 소수민족 거주지구의 군사행정제도와 같은 것을 저장지방에서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王貴 등에 의하면, “明朝는 元朝가 전국 藏區에 설립한 3개 宣慰使司都元帥府를 2개의 指揮使司와 1개의 軍民元帥府로 바꾸었다. 즉 원래 ‘吐蕃等處’ ‘吐蕃等路’ 2개 宣慰使司都元帥府를 합병하여 ‘八木甘司’衛指揮使司로 만들고, 원래 ‘烏思藏納里速古魯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를 나누어 ‘烏思藏’衛指揮使司와 ‘俄力思’軍民元帥府로 만들었다. 그뒤 八木甘司衛指揮使司와 烏思藏衛指揮使司는 都指揮使로 승격하였다. 그 아래에 行都司, 衛, 所 등 기구를 설립하였다. 각급 기구의 관원, 즉 指揮使, 指揮副使, 指揮同知, 元帥, 指揮僉事, 招討, 巡檢, 萬戶, 千戶, 副千戶, 所鎮撫 등은 모두 明朝 중앙에서 직접 당지의 僧俗首領을 勅封하여 담임케 하고, 조정에서 통일적으로 그들의 官階品級을 규정하고 印誥와 錦綺 등을 頒授하였다. 이들은 모두 朝廷의 命官으로, 그 승진과 임면, 교체는 모두 명조의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였다. 그 중 萬戶는 永樂年間에 조정에서 廢除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王貴 등은 “明朝의 전국 藏區에 대한 통치는 기본적으로 元朝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단지 명의상의 약간 변경만 있었다”고 결론지었다.⁵¹⁾

王貴 등 중국측이 내놓은 세번째의 반론은 ‘衆建多封’論이다. 그들은 “藏區와 朝廷의 정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明朝의 西藏 통치방법은 元朝에 비해 같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명은 하나의 敎派와 하나의 首領을 통해 티베트를 간접적으로 통치하던 元과는 달리 복수의 교파와 복수의 수령을 동시에 冊封하여 티베트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王貴 등에 의하면, “元대에 藏傳佛教의 여러 敎派중 황제는 특히 薩迦派를 부식하려 애썼기 때문에, 살가파가 독세하여 衛, 藏, 阿里지구의 政敎大權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元末明初에 1+葛魯敎派가 크게 발전하여 薩迦교파의 지위를 대신 얻어, 衛藏 대부분 지구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뒤 얼마되지 않아, 格魯敎派가 흥기하니, 이른바 ‘일개 지방에 일종의 話가 있고 일개 寺廟에 일종의 法이 있다’는 林立의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51) 王貴 等, 78-80쪽.

52) 王貴 等, 80-81쪽.

정황에 근거하여, 명조는 원조가 薩迦一派를 중시한 방법을 바꾸어, 지방실력을 가진 각 교파의 수령들에게 모두 封號를 내려주었으니, 이른바 명대의 兼建多封政策이었다. 명조는 藏區에서 3대 法王과 5개 王을 책봉하였다. 法王은 僧官 직위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이다. 제1 法王은 大寶法王으로, 3대법왕의 으뜸인 이 지위는 口+葛瑪口+葛舉派의 楚布口+葛瑪巴 活佛에게 봉해졌다. 그는 永樂帝의 초청으로 南京에 가서 大寶法王에 책봉되어, 西藏佛教의 敎主가 되었다. 대보법왕은 원래 원대에 薩迦.八思巴에게 봉급된 封號였다. 그의 제자들도 명조에 의해 大國師나 國師 등으로 책봉되었다. 제2 法王은 大乘法王으로, 薩迦法王에 봉해졌다... 이 교파의 승려 貢口+葛札西가 황제의 요청으로 南京에 가서 책봉되었다. 제3의 법왕은 大慈法王으로, 명조는 宗喀巴가 창립한 格魯敎派를 주의하였다. 명 成祖는 사람을 보내어 宗喀巴를 남경으로 초청하였으나, 그는 제자인 釋迦也失을 대신 보내어, 1414년에 大國師로 봉하고 1434년에는 大慈法王으로 봉하였다. 이들 3대 법왕은 모두 師徒나 轉世를 통해 서로 전승하여, 다시 朝命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이들 세 법왕은 모두 명조가 준 封號를 매우 중시하였으니, 예컨대 楚布口+葛瑪巴 活佛이 藏傳佛教의 敎主로 인정받은 것은 이 교주의 지위가 명조 황제의 책봉으로 인해 왔기 때문이다... 3대 法王 외에도, 明朝는 藏族지구의 일부 政敎首領들을 王으로 책봉했다. 王의 지위는 法王보다는 낮고 大國師나 國師보다는 높다. 명조가 책봉한 5개 王 가운데 하나는 1406년(永樂 4)에 巾+白竹口+葛舉派의 수령 札巴堅贊을 闡化王으로 책봉한 것이다. 그 둘은 1407년에 八+木甘靈藏 僧人인 著思巴兒監藏을 贊善王으로 책봉한 것이고, 그 셋은 1407년에 八+木甘館覺 僧人인 幹卽南哥巴藏卜을 護敎王으로, 그 넷은 1413년에 直貢口+葛舉派의 僧人 領眞巴兒吉監藏을 闡敎王으로, 그 다섯은 1415년에 薩迦派 僧人 南渴列思巴를 輔敎王으로 책봉한 것이다. 이들 5개 王은 모두 封地를 영유하고 그 嗣承은 朝廷에 보고하여 다시 책봉을 받아야 했다. 이들도 모두 명조가 준 封號를 비상히 중시하여, 行文중에 그 이름 앞에 항상 ‘王’자를 붙여 썼다... 이외에도, 明朝는 西天佛子, 大國師, 國師, 禪師, 都綱, 喇麻 등 각종 僧官의 명호를 책봉하였다. 이들 승관들은 모두 조정으로부터 印信과 號紙를 받고 조정을 위해 ‘충성되게 職貢을 닦고 人民을 撫治’해야 했으며, 그들의 襲職과 승진도 조정에서 직접 결정하였다.” 王貴 등은 “이

러한 사실이 明朝가 西藏을 매우 중시하여 서장에 대해 主權을 충분히 행사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⁵³⁾

중국측의 네번째 주장은 복수의 티베트 首領들이 明朝의 冊封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朝貢함으로써 明朝의 지배하에 온존하였다는 것이다. 王貴 등에 의하면, “명조는 원조 이래 형성된 서장지방세력이 황제의 지지에 의존하여 자신의 政敎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藏區 각지 정교 수령이 다투어 朝貢하여 請封하는 정황하에서, 한편으로는 정치상으로 ‘衆建多封’을 실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후하게 回賞하여 藏區에 대한 영향을 확대함으로써 서장 각지방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서장 각지의 僧俗관원들은 명조의 일개 轄區의 수령이 되어 반드시 규정된 시간안에 조정에 牲畜과 毛皮, 藏絨, 藥材, 藏香, 銅佛, 卷軸畫佛 등 토산품과 수공예품을 貢獻하였다. 조정은 관례를 따라 수배 가치의 金銀, 金+少, 綢, 布, 葉茶, 食糧 등을 후하게 朝貢者에게 回賜하여 邊遠 藏區에 대한 關懷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貢賜 형식으로 출현한 조정과 藏區 지방 僧俗首領 간의 특수한 경제왕래는 명조 중앙정권이 서장지방을 治理하는 시정조치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외에도, 宋代 이래 형성된 藏漢族 지구간의 茶馬互市關係도 明代에 새로운 발전을 하였다. 명조는 甘肅 臨夏, 天水, 臨潭, 四川의 雅安, 松潘 등지에 茶馬司를 설립하여 茶馬市場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王貴 등은 이를 가리켜 明代의 ‘貢市 羈縻+絲’政策이라 하면서, ‘衆建多封, 貢市羈縻+絲’는 명조가 원조와는 다른 특징적 ‘治藏’政策이요 티베트 통치의 특수한 방법이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van Praag가 “명의 황제들은 티베트 통치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외교 사절을 교환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사실 대부분의 사절단 파송은 말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이고, 때로는 급박한 수요에 의해 재촉되었다”고 한데 대하여, 이를 ‘가소로운 착오일 뿐’이라고 차치하면서, ‘外交’란 말은 國과 國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나, 烏思藏과 八+木甘司는 명조 중국의 2개 轄區였고 그곳의 政敎首領은 모두 명조로부터 책봉받아 황제에 臣屬한 관원이고 그들이 派員赴京한 것은 완전히 중국 내부의 일로서 이는 일종의 ‘內交’일 뿐인데, 어떻게 이들 지방관원을 가리켜 ‘外交使團’이라 할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王貴

53) 王貴 等, 81-84쪽.

등은 van Praag가 ‘進貢回賜’와 ‘茶馬互市’, ‘徵發馬賦’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명조는 확실히 藏區에서 필요한 馬匹을 대량으로 획득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茶馬互市와 馬賦徵發을 통해 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茶馬互市는 茶를 대가로 하여 馬匹을 환취하는 것이고, 馬賦徵發은 賦役의 일종으로 단지 官府에서 일정한 값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⁴⁾

명과 당시 티베트 정치세력의 관계를 보는 중국측의 입장은 명과 巾+白木竹巴王朝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例示되었다. 티베트측이 巾+白木竹巴王朝를 독립국가로 규정한데 대하여, 중국측은 “明朝는 계속 서장지방을 유효하게 통치하였고, 황제와 藏區의 政教首領과의 사이에는 君臣關係, 上下主屬關係가 유지되었다”고 옹수하였다.⁵⁵⁾ 王貴 등에 의하면, “원래 元朝가 책봉한 13개 萬戶長의 하나였던 強曲堅贊은 다른 萬戶들과 격렬하게 투쟁하던 중에 결정적 승리를 거둔 다음, 두차례 관원을 원의 大都에 보내어 人貢하면서 황제의 封賜를 청구, 황제로부터 ‘子孫이 세습할 수 있는 誥勅’을 받음으로써, 비로서 衛藏 대부분 지구에 대한 통치지위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었다. 1357년에 元 順帝는 관원을 西藏에 보내어 強曲堅贊을 ‘大司徒’로 봉하였다... 強曲堅贊 당시 서장지방 巾+白木竹巴王朝의 ‘第司’(執政者)는 원대 중국 조정의 ‘大司徒’官이었으며, 조국 중앙정권으로부터 책봉받은 이 ‘大司徒’ 관직은 서장지방의 ‘第司’ 관직보다 더 중요하여, 여러 문서에 항상 보이게 되었다. 황제가 책봉한 이 관직의 명칭을 가짐으로써 強曲堅贊의 신분은 크게 제고되고 서장지방의 통치는 더욱 유력하게 되었다. 이는 곧 元末 조정과 서장 巾+白木竹巴王朝 사이가 上下主屬關係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요컨대 王貴 등에 의하면 “元末 明初 強曲堅贊과 그 후예가 수령이 된 巾+白木竹巴王朝는 中國 밖에 獨立한 적이 없었고, 중앙정권으로부터 통할받은 일개 地方性 정권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王貴 등은 “명조는 서장에 대한 통치역량이 날로 떨어지자, 어떤 곳에서는 몽고 각 부의 서장에 대한 영향력보다 크지 못하였음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명조 중앙정권의 서장에 대한 總關係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서장의 역대 정권들이 독립된 국가의 정권을 이루지 못한채, 중국 경내의 지방성 정권으로 남아있었다”고 강조하였다.⁵⁶⁾

54) 王貴 等, 86-88쪽.

55) 王貴 等, 78쪽.

티베트측과 중국측의 논쟁은 당연히 중국 明朝와 티베트 格魯派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삼았다. van Praag와 Shakabpa가 格魯教派를 창시한 宗喀巴가 황제의 赴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서술한데 대해, 중국측은 宗喀巴가 1408년과 1414년의 두 차례 황제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까닭은 年老하고 병이 많아 먼 길을 갈 수 없었으며 甘丹寺와 哲轟+豐寺, 色拉寺 등 3대 사찰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지, 宗喀巴가 황제의 명을 듣지 않고 京都에 가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대신 변명하였다. van Praag와 Shakabpa가 達賴喇嘛와 蒙古 俺答汗의 관계는 긴밀했으나 明皇帝의 관계는 소원했다고 하고 당시의 蒙古는 '독립된 나라'였다고 한데 대해서도, 이를 완강히 부정하였다. 王貴 등에 의하면, "3세 達賴喇嘛는 俺答汗을 통해 조정에 方物을 進貢하고 명조에 冊封을 청구하니... 명조는 3세 達賴喇嘛에게 정기적으로 入貢할 것을 허락하고, '八+木兒只唱'('金剛智'라는 뜻)이라는 名號와 勅命圖書을 주었다." 따라서 王貴 등은 "3세 達賴喇嘛가 俺答汗과는 친했으나 明皇帝와는 소원했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蒙古獨立國'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명대의 중국과 티베트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별다른 연계가 없었다는 티베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측은 "이는 완전히 사실에 위배되는 우스운 이야기다. 어느 누가 漢, 藏, 蒙, 滿 등 각족의 중국이 세계상 佛教 流轉이 매우 넓은 국가의 하나임을 모르는가"라고 하면서, "檀越施主가 된 명조의 황제는 元代와 마찬가지로 佛事를 요구하여, 西藏 受施高僧을 만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황제와 서장의 高僧 사이에는 종교상으로 여전히 檀越關係가 있었으며, 단지 원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매우 명확한 上下主屬關係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였다.⁵⁷⁾

(3) 明과 烏斯藏 諸國의 典型的 冊封朝貢關係

明이 티베트에 관심이 없었다는 티베트측의 이른바 '明朝無趣西藏'論이 과장된 것임은 중국측에 의해 적절하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명의만 약간 변경되었을 뿐', 明이 티베트에 대한 元의 권리를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중국측의 주장

56) 王貴 等, 89-91쪽.

57) 王貴 等, 93-94쪽.

역시 과장된 것임이 분명하다. 명은 국력의 강도나 帝國的 성격에 있어 원의 그것과 엄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티베트에 대한 대응도 그 기본적인 내용과 본질적 성격을 달리하였다.

중국측은 明代 中國 국가와 烏斯藏의 제 세력들과의 관계가 ‘上下主屬關係’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명은 烏斯藏의 3 法王과 5 王 및 여러 土司들을 冊封하였고, 이들과 進貢과 回賜를 교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명과 烏斯藏 諸國(혹은 제 세력) 사이에 典型的인 冊封朝貢關係가 성립,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책봉조공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다. 따라서 중국측이 이를 두고 ‘上下’關係로 표현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책봉조공관계는 불평등하나 독립적인 관계다. 따라서 중국측이 이를 두고 ‘主屬’關係라고 표현한 것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冊封하는 국가와 朝貢하는 국가의 관계를 흔히 ‘宗屬’關係라고 하는데, 이는 책봉하는 국가를 宗主國이라 하고 조공하는 국가를 藩屬國이라고 부르는데 연유한다. 그러나 宗屬關係는 從屬關係와 구별된다. 藩屬國은 宗主國으로부터 冊封을 받고 朝貢의 禮를 취하지만, 宗主國은 藩屬國의 內政과 外交를 간섭하지 않는다. 따라서 藩屬國은 엄연한 獨立國이며 宗主國의 ‘外國’이다. 명과 烏斯藏 諸國이 冊封朝貢關係를 유지하였다면, 烏斯藏 諸國은 명의 外國이요 獨立國이다. 따라서 明代의 中國과 烏斯藏의 관계는 王貴 등이 말하는 이른바 ‘包含被包含’의 관계가 아니다. 즉 명과 烏斯藏 諸國의 관계, 冊封朝貢關係로써 당시 烏斯藏이 中國의 일부였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

중국측은 明朝가 元代에 티베트에 설립된 3개 宣慰使司都元帥府를 2개의 指揮使司와 1개의 軍民元帥府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王貴 등은 “명조의 전국 藏區에 대한 통치는 기본적으로 元朝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단지 명외상의 약간 변경만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明代 烏斯藏에 설치된 明朝의 都指揮司 등은 土司制度의 실시를 의미할 뿐이니, 그 까닭은 都指揮使司 아래의 行都司, 衛, 所 등 각급 기구의 관원, 즉 指揮使, 指揮副使, 指揮同知, 元帥, 指揮僉事, 招討, 巡檢, 萬戶, 千戶, 副千戶, 所鎮撫 등은 모두 당시의 僧俗首領들이 담임하였기 때문이다.⁵⁸⁾ 명대의 土司制度는 唐代的 羈縻+絳州制度和

58) 중국측의 姚兆麟도 “明朝에 서장군 안에 포괄한 각 장족지구에 설치된 都指揮使司 宣慰司 招討司 萬戶府 千戶府 등은 당시 각 소수민족지구에서 실행된 土司제도와 완전히 일치된다”고 하였

흡사하여, 외형적으로는 마치 중국 국가의 일부인양 중국제도를 갖추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당지의 '故俗' 즉 자율적 정치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어, 중국과는 엄연히 구별되었다. 이들 土司들은 明朝의 冊封을 받고 朝貢으로 대응하였으나, 이들의 조공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였다. 王貴 등도 "回陽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朝貢 인원은 한번 와서 큰 이익을 획득하여, 致使入朝하여 進貢한 藏族 인원은 점차 증가하였다. 禮部 통계에 의하면, 15세기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藏區 각지에서 매년 進京朝貢한 인원은 3,40인에 불과하였으나, 60년대에는 2,3천인으로 증가하였다. 天順연간(1457-64)에는 '(朝貢)絡繹不絕, 賞賜不此+貝'의 현상이 출현하였다. 이들 朝貢者들은 사실상 대규모 貿易團體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명조는 부득불 조공 인원과 次數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명대의 '貢市羈縻+絲'政策이었다"⁵⁹⁾고 하였다. 王貴 등은 "'衆建多封, 貢市羈縻+絲'는 명조가 원조와는 다른 특징적 治藏政策이요 서장통치의 특수한 방법이었다"고 하였는데, 원래 '羈縻+絲'란 '外國'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王貴 등이 스스로 명의 對烏斯藏政策이 '羈縻+絲政策'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의 관계를 '上下主屬關係'라고 규정하는 것은 '羈縻+絲'의 역사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王貴 등도 스스로 "明朝의 국력은 元朝에 비해 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西藏에 대한 治理도... 원조처럼 서장에 군대를 보내 공격하거나 상주시키지는 않았다"⁶⁰⁾고 자인하였듯이, 명은 티베트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지도 못하였고 자국의 군대를 티베트에 파견, 상주시키지도 못하였다.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징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명이 티베트를 '治理'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명이 한 것은 오로지 티베트의 僧俗首領들을 冊封하고 回陽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명이 티베트를 통치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명대의 티베트(前後藏)는 俺答汗과 達賴喇嘛, 固始汗과 班禪喇嘛 등에 의해 共治되었다. 俺答汗과 固始汗은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였고 達賴喇嘛와 班禪喇嘛 등은 종교적 권위를 제공하였다. '達賴'(大海)와 '班禪'(大博學者) 등의 稱號

다; 姚兆麟, 147-148쪽.

59) 王貴 等, 86-87쪽.

60) 王貴 等, 86-87쪽.

도 이들 상호간에 서로 贈與된 것으로, 당시 明朝와는 무관하였다. 俺答汗과 固始汗은 비록 明帝의 冊封을 받고 朝貢하였으나, 엄연한 독립적 정치실체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達賴喇嘛과 班禪喇嘛 역시 이와 같았다. 따라서 명대 티베트의 여러 僧俗首領들과 明朝가 冊封朝貢關係를 발전시켰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당시부터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음을 입증하려 하는 것은 무의미한 徒勞라 할 것이다.

6. 西藏-滿清時代의 티베트-中國 관계

(1) 티베트측의 達賴喇嘛-清帝 '檀越關係'論

清과 衛藏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元代의 그것과 흡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양측이 모두 청대와 원대의 상황이 매우 근사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티베트측은 淸의 皇帝와 衛藏 達賴喇嘛의 관계가 元帝와 티베트 政教首領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檀越關係 즉 供施關係였음을 강조하였고, 중국측은 檀越關係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자의 '上下主屬關係'를 더 강조하였다.

van Praag는 "이 시기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티베트에 達賴喇嘛라는 강력하고 통일된 힘이 출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티베트에 滿洲의 지배권이 어느 정도 건립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주요한 주제는 滿洲帝國과 蒙古諸部가 이곳에서 자신들의帝國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로 다툰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元이 蒙古帝國이었고 티베트와 蒙元의 관계는 티베트인과 몽고인의 관계였음을 강조하였듯이, 淸 역시 滿洲帝國이었으며 티베트와 滿淸의 관계도 티베트인과 滿洲人の 관계였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van Praag의 논중에 의하면, "중국의 明朝가 1644년에 멸망하고, 이 나라(티베트)는 다시 한번 더 침범되고 정복되었으니, 이번에는 淸朝를 건립한 滿洲人에 의한 것이었다. 부주의하게 그리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淸帝國을 中國의 제국으로 부르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지만, Owen Lattimore가 올바르게 지적하였듯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滿洲帝國이었으며, 中國은 이 만주

제국을 구성한 한 부분이었을 뿐이다.⁶¹⁾ (滿洲와 中國의) 구별은 당시에 확실히 이루어졌으니, 황제는 모든 軍司令官과 官僚職에 滿洲人을 임명하거나 중국인 관리들과 짝지어 並置하였으며, 만주인과 중국인 사이의 通婚이 금지되었었다. 이들 만주인 지배자들은 앞서 元朝의 몽고인들이 그러하였듯이 中國에서는 외국인이었으며, 그들은 중국인들에 의해 이방인 정복자로 간주되고 불쾌하게 여겨졌다. 언제나 잠재해 있던 중국에서의 反滿 감정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격화되었고, 중국인들이 淸을 전복하고 자기들의 정권을 수립한 1911년의 혁명 때에는 끝내 표출되었다.⁶²⁾ 이처럼 티베트측은 '元'을 蒙古帝國으로 규정하여 '中國'과 구별하였듯이 '淸'을 滿洲帝國으로 규정하여 '中國'과 구별함으로써, 티베트의 중국 남입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였다.

그 다음, 티베트측은 蒙元皇帝와 티베트 喇嘛의 관계를 檀越關係 즉 供施關係로 규정하였듯이, 滿淸皇帝와 티베트 達賴喇嘛의 관계도 檀越關係 즉 供施關係로 규정하였다. 앞서 Shakabpa는 “몽고의 忽必烈汗과 티베트 八思巴 사이에 구축된 供施關係는 티베트인과 몽고인 사이와 이후 滿洲 皇帝와 達賴喇嘛 사이의 정치-종교적 관계의 기초로 유지되었고, 滿洲와의 供施關係는 淸朝가 멸망한 1911년에 종식되었다.”⁶³⁾고 하였으며, van Praag도 티베트 喇嘛와 滿洲人 皇帝의 供施關係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van Praag는 “檀越關係가 전 淸代를 통해 티베트-滿洲 관계의 기초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供施關係 즉 檀越關係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檀越關係는 13-14세기에 薩迦喇嘛와 蒙古汗-뒤에는 元의 皇帝들-사이에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明의 황제들은 烏瑪派 喇嘛를 供施의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나, 俺答汗과 滿洲 皇帝들은 格魯派의 達賴喇嘛에게 供施하였다. 檀越은 두가지의 본질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檀越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타내는 바와 같다. 檀越은 ‘종교적 貢獻의 대상’ 즉 神, 菩薩 등이나 佛教의 聖者나 賢人 등을 가리키는 말과 ‘종교적 사람이나 대상에 貢獻하는 사람’ 즉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에 貢獻함으로써 자신의 경건한 신앙심을 보여주는 俗人을 의미하는 말의 略稱이다. 따라서 첫번째 요소는 섬김과 공헌의 대상으로서

61) O. Lattimore, *Studies in Frontier history* (New York, 1962), p. 77.

62) van Praag, pp. 10-11.

63) Shakabpa, p. 71.

의 喇嘛과 보호자(施主), 섬기는 이, 구호금품의 기증자로서의 汗과 皇帝를 가리킨다. 두번째 요소는 보호다. 檀越關係상의 施主는 자신의 스님과 정신적 승을 ‘신앙의 적’이나 그 가르침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喇嘛는 施主와 그 신하의 정신적 안녕에 유의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고 종교적 도움을 준다. 이러한 보호가 (유럽 중세의 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호를 받는 이에 대한 보호하는 이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무엇보다도 보호받는 이가 승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明證한다. 이는 또한 보호받는 이가 ‘군사적 봉사 등 施主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施主는 이러한 봉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이와 같이 간단한 개괄을 통해, 종교적 檀越關係는 오늘 날의 국제법 용어로 충분하게 분류되거나 정의될 수 없으며 하나의 독특한 관계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와 동시에, 檀越關係를 종교적 관계로 인정함으로써 檀越關係의 정치적 의미를 간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치 固始汗의 ‘보호’(供施)가 達賴喇嘛가 티베트를 통치할 無上의 지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듯이, 그 뒤에 滿洲의 施主들도 檀越關係의 이름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였다.”⁶⁴⁾

淸帝와 達賴喇嘛의 관계가 供施關係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티베트측은 다음의 몇가지 문제를 논쟁의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그 하나로서, 티베트측은 淸代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정립한 최초의 군주, 즉 청의 順治帝와 티베트의 5세 達賴喇嘛의 관계를 수평적, 독립적 관계로 규정하였다. Shakabpa는 역사적인 양자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649년부터 1651년 사이에 중국의 順治帝는 몇 차례 사신을 5세 達賴喇嘛에게 보내어 그를 北京에 초청하였다. 達賴喇嘛는... 1652년에 정부의 여러 부처를 대표하는 13명의 관리를 대동하고 북경으로 떠났다. 그의 수행원과 그 구성은 400여년 전에 중국을 여행하였던 八思巴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티베트의 전통에 따르면, 滿洲 황제가 達賴喇嘛에게 거듭 초청장을 보낸 이유는 1578년에 3세 達賴喇嘛가 80년 안에 俺答汗의 후계자가 蒙古와 中國의 최고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 때문이었다. 티베트인들은 滿洲人을 蒙古人과 밀접하게 관련

64) van Praag, pp. 12-13.

된 이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언의 진실성이 확실한 듯이 여겨졌다. 그러나 중국의 전승에 의하면, (順治帝가) 반복해서 초청한 까닭은 3세 達賴喇嘛가 蒙古와 갖게된 좋은 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4세 達賴喇嘛는 몽고인이었다는 사실이 티베트인과 몽고인을 더욱 가깝게 묶어 주었다. 만주 황제는 5세 達賴喇嘛를 중국에 초청함으로써, 그가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몽고인이 중국 영토를 침입하지 않게 해주도록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만주 황제는 達賴喇嘛로부터 중국 변경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를 만나 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達賴喇嘛에 대한 종교적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만나려 감으로써 다루기 힘든 몽고 칼카部的 복속을 얻어야 할 것인지 말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조정의 만주인 관료와 중국인 관료들이 토론했었다. 만주인들은 황제가 達賴喇嘛에게 가서 맞이할 것을 원하였으나, 중국인 관료들은 만주 황제가 達賴喇嘛에게 몇명의 王公을 보내어 선물을 증정하되 達賴喇嘛가 중국의 본토로 들어오지는 않게 하도록 충고하였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져서, 達賴喇嘛가 약간의 호송원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 적절한 장소에서 만주 황제와 만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만주 황제는 達賴喇嘛에게 ‘大海와 같이 위대한 분, 번개를 잡은 자’라는 의미의 존칭이 만주어와 티베트어, 중국어로 새겨진 金板을 증여하였다. 이에 답하여 達賴喇嘛는 황제에게 金板과 ‘위대한 스승, 뛰어난 분, 하늘의 신, 보살’이라는 뜻의 존칭을 증여하였다.”⁶⁵⁾ Shakabpa는 “5세 達賴喇嘛는 나라를 통일하는데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통해, 達賴喇嘛는 몽고와 기타 이웃 나라들의 정치적인 일, 심지어는 중국의 불교도와 티베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티베트인들이 아직도 그를 ‘위대한 5세’라고 부르는 까닭을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중국의 어떤 기록에서는, 固始汗이 중국인에 복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達賴喇嘛가 1642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으므로, 達賴喇嘛 역시 중국인에 복속하였다고 기술되었다. 그러나 察哈爾, 准葛爾, 和碩特 등 기타 蒙古 諸部가 明末에 독립적이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固始汗이 達賴喇嘛의 권력장악을 도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는 티베트의 내정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으며, 단지 達賴

65) Shakabpa, pp. 113-116

喇嘛의 통치권을 강화하였을 뿐이다... 固始汗은 拉薩에서 거울을 보내고 여물은 자신의 초원목장에서 보내면서, 達賴喇嘛나 第悉(第巴)이 필요로 할 때마다 몽고군을 보내어 주었다. 固始汗과 그 후계자들은 비록 王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공식적 의전식차에서는 達賴喇嘛와 第悉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固始汗은 和碩特蒙古의 독립적 영도자로서 達賴喇嘛의 세속적 통치를 확립하였으나, 행정에 간여하지도 않았고 그 정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궁극적으로 5세 達賴喇嘛가 죽을 때까지 그의 손에 놓여 있었다”⁶⁶⁾고 주장하였다.

van Praag도 5세 達賴喇嘛가 통치하던 시대의 티베트가 독립국가였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증에 의하면, “위대한 5세(達賴喇嘛)’는 자기의 施主인 몽고 和碩特部の 固始汗에게 티베트가 빠져있는 종교적이며 지역적인 권력투쟁에 자기를 대신해서 개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固始汗은 施主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티베트로 들어가 오래 끈 싸움 끝에 경쟁자인 藏軍을 패퇴시키고 1642년에 전 티베트를 達賴喇嘛에게 헌정하였다. 權越關係가 다시 한번 더 티베트의 세속적 지배에 적용될 수 있었다. ‘위대한 5세’는 통일되고 독립된 티베트 국가의 유일한 통치자로서, 그리고 지배적인 國敎의 정신적 우두머리로서, 1679년에 은퇴할 때까지 통치하였다. 나라의 행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達賴喇嘛는 攝政官 혹은 第悉(第巴)라는 관직을 만들어 정부를 통괄하게 하였다. 和碩特汗은 達賴喇嘛를 보호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계속 통제하였으며, 達賴喇嘛로부터 ‘신앙을 따르는 왕’이라는 뜻의 존칭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지위가 達賴喇嘛의 그것보다 낮았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사실, 達賴喇嘛의 지위는 帝國時代의 잔포 이래 그보다 앞서 있었던 어떠한 통치자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위신과 권세는 티베트의 국경을 훨씬 넘어 만주 황제와 몽고 汗 및 王公들, 그리고 라다크, 네팔, 인도, 부탄, 실킴 등의 통치자들로부터도 인정받았다.”⁶⁷⁾ van Praag는 5세 達賴喇嘛와 順治帝의 만남을 통하여 당시 티베트의 독립성을 확인하려 하였다. 그는 “皇帝가 達賴喇嘛를 영접하기 위해 北京 교외까지 여행했다거나, 達賴喇嘛와 처음 만날 때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寶座에서 내려와 20야드나 걸어 갔다거나,

66) Shakabpa, pp. 123-124.

67) van Praag, pp. 10-11.

두 통치자가 동시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셨다는 등, 보기드문 언동들이 당시 (=5세 達賴喇嘛가 北京에서 順治帝를 만났을 때)의 滿洲-티베트 관계의 상황을 시사한다"고 하고 "만주 황제와 達賴喇嘛는 상호 존경의 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비길데 없이 높은 존칭을 중여하였는데, 이는 10년전에 건립된 檀越關係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미국인 학자요 외교관으로서 중국에 주재한 바 있는 William Woodville Rockhill의 "(達賴喇嘛는) 독립국 군주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儀禮로써 대우받았으며, 그가 달리 간주되었음을 시사하는 어떠한 중국 문헌도 발견되지 않는다. 중국-티베트 關係史상 이 시기에, 중국의 황제에게는 固始汗의 군사력과 모든 蒙古人의 신앙심에 기반을 둔 喇嘛의 세속적 권력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⁶⁸⁾라는 말을 인용한 다음, "사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5세 達賴喇嘛와 順治帝는 자신의 영토와 인민을 지배하는 통치자로서 서로 존경하였음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van Praag는 단순히 5세 達賴喇嘛 치하의 티베트가 獨立國이었음을 논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이 중앙 아시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통일국가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는 중국측 기록에 의거하여 "達賴喇嘛와 順治帝의 만남은 단순한 종교적 의의는 넘어, 특히 황제가 제국의 북부와 서부의 변방에 대한 몽고의 위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達賴喇嘛에 대한 거창한 환대는 티베트 군주와 정신적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몽고에 대한 그의 비할데 없는 권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논증한 다음, "위대한 5세는 강력하고 통일된 티베트를 재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개인적, 종교적 권력과 영향력은 자기 나라의 범주를 뛰어 넘어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티베트는 중앙아시아문제에 대해 지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통제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는 힘을 획득하였다"⁶⁹⁾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 티베트측은 청의 티베트 간섭을 강화시켜주었고 이후 중국인들에 의해 중국의 티베트 지배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어온 淸軍의 티베트 進駐를 평가절하하였다. Shakabpa와 van Praag는 准葛爾部の 티베트 침공을 기화로 淸軍이 티베트에 내도하였을 때 티베트인들이 사실상 먼저 准葛爾

68) W. W. Rockhill, "The Dalai Lamas of Lhasa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Emperors of China 1644-1908," T'oung Pao 11 (1910), p. 18.

69) van Praag, pp. 12-13.

部를 축출한 뒤에 淸軍이 내도하였음을 지적함으로써, 淸軍進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Shakabpa는 “많은 사람들이 滿洲人만의 힘으로 准葛爾部를 축출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이 티베트를 정복하였던 것으로 믿고 있지만, 滿洲軍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康濟乃+鼎와 頗羅乃+鼎의 티베트 군대가 拉薩에서 准葛爾部를 축출하고 있었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만주 황제는 티베트를 ‘征服’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맹자인 拉藏汗의 죽음을 보복하고 7세 達賴喇嘛의 권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었다”⁷⁰⁾고 하였고, van Praag도 “滿洲의 첫번째 무력개입은 티베트 정복이라기 보다는 티베트인들이 准葛爾部の 점령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 것이다. 사실, 이 단계에서 황제가 한 일이란 槽越關係로 인해 발생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었다”⁷¹⁾고 주장하였다.

네팔의 침공을 기회로 다시 되풀이된 淸軍의 티베트 進駐에 대해서도, 티베트측은 그 恣意性和 폐해 및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Shakabpa는 “廓爾喀(네팔)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拉薩의 민중들은 만주인 駐藏大臣의 착취와 내정간섭에 항의하고 帝國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벽보를 내걸었다. 티베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국의 군대가 들어왔다거나 제국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廓爾喀의 침입보다 백배나 더 큰 폐해가 티베트인에게 끼쳐지게 되었다는 등을 주장한 벽보와 전단이 (淸軍司令官)福康安이 拉薩에 주둔하는 동안에 유포되었다. 티베트인은 어떠한 외세의 도움 없이도 적을 몰아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티베트인을 회유하기 위해, 拉薩에서 근무하던 두명의 만주인 駐藏大臣이 직권남용으로 면직되어 중국으로 되돌아 갔다”⁷²⁾고 하였고, van Praag도 “乾隆帝는 많이 망설임 끝에 티베트가 네팔인들은 축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福康安將軍 지휘하의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역할을 보호자 혹은 施主로 규정하였지만, 황제는 이 군사적 행위가 자기 왕조의 안보를 위해, 그리고 達賴喇嘛의 지위를 몽고에서 유지하기 위해 취해졌음을 인정하였다... 1792년에 (네팔과 티베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은 滿洲人을 네팔과 티베트 양국의 共主요, 조정자요 보호자로 표현하였으며, 비전은

70) Shakabpa, p. 139.

71) van Praag, pp. 15.

72) Shakabpa, p. 168

확실히 만주제국 세력의 절정에 서있는 淸朝의 것이었다. Prem Uprety라는 네 팔의 역사가는 아무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올바르게 결론을 내렸다.⁷³⁾ 티베트인은 이 전쟁의 직접적 결과로서 만주에 대한 예측이 강화되는 큰 패배를 당하였다. 만주인은 이 원정으로 인해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⁷⁴⁾고 하였다.

티베트측은 淸軍의 티베트 進駐가 티베트인의 이익과 의지와 반하는 것이었음을 淸軍의 제3차 入藏을 초래한 티베트의 反淸運動을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Shakabpa는 “頗羅乃+鼎은 바록 티베트의 유일한 지배자였지만, 그의 滿洲와의 협력은 滿洲人에게, 그 뒤에는 中國人에게, 티베트에 대한 宗主權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의 郡王職을 계승한 아들) 珠墨那杰의 정책은 아버지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이 새로운 지배자는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達賴喇嘛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滿洲人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만주 황제와 駐藏大臣에게 편지를 보내어 滿洲軍이 拉薩에 주둔할 필요가 없으며 티베트 군대도 법과 질서를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인민의 말과 부녀를 약탈하여 인민을 착취하게 할 수도 없었다. 그는 만주의 駐藏大臣이 티베트 내정에 간여한다고 불평하였다... 珠墨那杰은 駐藏大臣과 만주 황제에게 글을 써서 駐藏大臣과 그 소규모 護衛隊의 拉薩駐在을 반대하였다. 그는 티베트 군대가 達賴喇嘛와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珠墨那杰의 고집스러운 요구는 만주 황제에 대한 그의 충성심에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명의 정치가로서 그는 만주인 駐藏大臣의 지속적인 駐在과 만주 군대의 티베트 주둔이 결국은 이 나라 독립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용감하게 외세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고 곳곳하게 군사력을 비밀리에 준비하였다... 그는 티베트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⁷⁵⁾ van Praag도 “사실 頗羅乃+鼎은 王이었다... 『高宗實錄』에서도 ‘達賴喇嘛가 서방 나라들에서 佛教를 주재할 때, 頗羅乃+鼎은 티베트 인민을 통치했다’고 기록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珠墨那杰은 무모하게 滿洲의 이 명목상의 권위조차도 벗어던

73) P. R. Uprety, *Nepal-Tibet Relations 1850-1930* (Hong Kong, 1968), pp. 43-44.

74) van Praag, p. 20.

75) Shakabpa, pp. 147-149.

저 버리고 准葛爾部の 지원을 기대하였던 것 같다. 만주인들은 당연히 경악하였고, 암반들은 이 티베트 지배자를 암살하였다. 무질서한 혼란이 일어나 암반들이 私刑으로 살해되었고, 이 상황은 達賴喇嘛의 개인적 개입으로 곧 종식되었다. 達賴喇嘛는 이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확고한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서 정부의 통제권을 접수하여 세속 정부를 없애고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황제는 達賴喇嘛가 회복한 최고의 지위, 즉 1세기 전에 위대한 5세가 취임한 것과 비슷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임 암반들이 도착한 뒤, 티베트의 행정은 다시 한번 더 達賴喇嘛에 의해 제안된 노선을 따라 재조직되었다. 정부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口+葛厦의 口+葛倫들이 다시 임명되었고, 7세 達賴喇嘛는 다시 '티베트의 군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5세 達賴喇嘛 때처럼, 葛倫들이 그의 신하로 복종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통치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達賴喇嘛의 확장된 권한을 기술한 황제의 勅書가 만들어 짐에 따라, 達賴喇嘛가 새로 회복한 세속적 통치권은 사실상 만주 조정에 의해 승인되었다.⁷⁶⁾ 이러한 티베트측의 주장에 의하면, 頗羅乃+鼎는 淸帝로부터 郡王으로 冊封받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티베트를 통치한 '王'이었으며,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珠墨那杰은 駐藏大臣의 駐在와 淸軍의 주둔을 거부하였고, 7세 達賴喇嘛는 1751년의 내정 개혁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또한 티베트측은 淸軍의 駐在가 檀越關係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그나마 滿淸의 세력이 쇠퇴해진 淸末에 이르러서는 淸軍의 티베트 주둔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Shakabpa는 "이후 중국인들이 티베트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게 된 주요한 근거는 만주 황제 乾隆帝에 의해 廓爾喀를 몰아낼 援兵이 티베트에 파견되었다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滿洲가 오랜 동맹국으로서 帝國 군대를 파송하였다는 사실과 제국 군대는 티베트인을 공격하거나 그들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티베트로 진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達賴喇嘛와 만주 황제의 '施主-喇嘛'關係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에 입각한 것이다. 施主는 세속적 도움을 제공하고 喇嘛는 정신적 敎示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康熙帝와 乾隆帝의 재위기간처럼 滿洲가 中國에서 강력했을 때는, 처음에는 准葛爾

76) van Praag, pp. 16-17.

에 대항하여, 다음에는 廓爾喀에 대항하여 티베트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帝國의 施主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였다. 19세기에 滿洲의 힘이 쇠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이상 티베트에 세속적 원조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결국은 1841-42년의 도그라 전쟁이나 1855-56년의 제2차 廓爾喀戰爭에는 帝國 군대가 참여하지 않았다. 만주의 힘이 중국에서 쇠퇴하자, 拉薩에서 행사된 駐藏大臣의 통제력이 정치적 관찰자보다 더하지 못했던 과거의 수준으로까지 약화되었다... 일제기 전단이나 벽보를 통해 만주인과 중국인의 티베트 주재에 저항하였던 사람들은 攝政과 皇帝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중국인들과 협조한 티베트 관리들을 비난하였고, 駐藏大臣과 駐屯軍의 영구적 철수를 요구하였다”⁷⁷⁾고 서술하였다. 또한 Shakabpa의 논중에 의하면, “拉薩에 주둔한 滿洲軍은 오직 백여명의 군사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티베트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 일어난 위기로 인해, 황제는 주둔군을 강화하기 위해 제국의 군대를 나눌 수가 없었으며, 駐藏大臣은 이들 混血 병사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둔군은 실제로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지 않았으니, 이는 駐藏大臣의 역할이 오로지 갖가지 儀式에 참여하고 티베트 정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만주 황제에게 보고하는 일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口+葛倫이나 기타 관리들이 임명될 때마다, 선물과 청구하지도 않은 직함들이 황제로부터 왔다. 새 사찰이나 수도원이 건립될 때, 황제는 供施의 증거로서 눈에 띄는 장소에 내전도록 보기좋은 액자를 보내어 왔다. 만주 주둔군은 너무나 빈곤한 재정적 조건에 놓여 있어, 병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새해 축제 때나 중요한 관리가 승진했을 때 중국식 龍舞와 獅子舞를 추었다. 이들 혼혈 군대는 티베트인과 중국인에 의해 멸시되었다. 더구나 사람들은 흔히 이들의 접근을 꺼려하였는데, 그 까닭은 티베트에서는 ‘중국인 병’으로 알려진 梅毒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⁷⁸⁾

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한 두차례의 이른바 ‘善後章程’, 즉 내정개혁에 대해서도, 티베트측은 중국측과는 매우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 van Praag의 논중에 의하면, “清 皇帝가 티베트에의 개입을 요청받은 것은 75년 동안에 4차례 있었으며,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나라의

77) Shakabpa, pp. 169-170.

78) Shakabpa, pp. 190-191.

정부, 특히 대외관계의 업무를 자신의 직접적 감독하에 두기 위해 티베트의 행정에 중요한 개혁을 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은 암반에게 제한된 방법으로 티베트의 행정에 참여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것이었다. 티베트 관리들은 중요한 모든 일들을 암반에게 상신하도록 되었으며, 達賴喇嘛와 班禪喇嘛가 皇帝와 연락하려면 암반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록 요구됨으로써 암반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암반은 티베트의 대외관계와 교역, 국방 등도 통제하도록 요구받았다... 또다른 중요한 개혁은 喇嘛, 즉 達賴喇嘛와 班禪喇嘛 등 티베트와 몽고의 고위 승려들의 轉世靈童을 뽑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選舉는 언제나 티베트 고위 喇嘛와 정부의 책임이었으며, 규정된 종교적 규칙에 따라 시행하였다. 勅書에서는 '黃教(즉 格魯派)의 보호자'로서 교회를 不正과 緣故主義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황제의 의무임이 성명되고 金瓶에서 抽籤하는 새로운 선출 절차가 규정되었다. 개혁은 황제에게 轉世靈童의 선출과정에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는 전통적인 중요한 종교적 절차에 대한 이러한 개입이 어쩌면 심각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였다. 티베트의 대외관계를 통제함에 있어, 만주인은 대부분의 외국인, 특히 영국인과 러시아인에게 변경의 문을 닫는 '禁域'政策을 티베트에 효과적으로 강요하였다... 결국, 이 개혁 가운데서 오직 (금역정책) 하나만이 실제로 충분하게 실행되었다. 이론상으로는, 제국의 개혁이 티베트 정부가 자치권을 많이 상실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으로 외세의 통제가 티베트에 강요되었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두가지 요소가 '禁域'政策을 제외하고는 이 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하였으니, 1793년에 제국의 실질적 권위가 거의 중대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뒤에는 곧 약화되기까지 하였다. 두가지 요소중의 하나는 帝國秩序가 실현되기에는 티베트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제국질서는 오히려 암반 개인의 역력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 보다 중요한 이유는 清朝의 이 마지막 군사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직후부터 시작된 왕조의 철저한 쇠락이었다... 그리하여 티베트인들이 새로운 達賴喇嘛를 선출할 첫번째 기회를 맞아, 제국의 개혁이 포고된지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적

방식으로 선출하면서 황제에 의해 규정된 절차는 무시하였다.”⁷⁹⁾

Shakabpa도 특히 淸帝가 요구한 金瓶制+手簽에 의한 達賴喇嘛의 선출방식이 티베트인에 의해 무시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증에 의하면, “廓爾喀戰爭이 끝난 뒤에, 乾隆帝는 達賴喇嘛와 班禪喇嘛와 같은 고위 喇嘛의 轉世靈童을 추천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 하였다. 1793년에 황제는 추천에 사용할 金瓶을 티베트로 보내었다... 그러나 達賴喇嘛의 아홉번째 轉世靈童의 후보가 두명 있었지만, 金瓶制+手簽制는 묵살되었고, 선택은 티베트 관리들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9세 達賴喇嘛가 포탈라에서 즉위하였을 때, 중국과 몽고, 내팔, 부탄 등의 대표가 그 이국적이고 인상적인 坐床儀式에 참석하였다... (10세 達賴喇嘛의 선정시에) 駐藏大臣은 황제에 의해 제정된 金瓶制+手簽制를 소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拉薩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저항하였다... 駐藏大臣은 攝政에게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주 황제의 金瓶制+手簽制가 무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水馬年(1822)에 攝政은 10세 達賴喇嘛가 선정되었음을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金瓶制+手簽制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그 뒤에 일어난 정치적 분규는 당시 섭정의 행동이 실수였고 근시안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하였다. 駐藏大臣에 의해 達賴喇嘛가 金瓶制+手簽制로써 뽑혀진 것으로 꾸며진 이 사건은 그 뒤에 중국인들이 이르는 바 티베트에 대한 ‘지배권’의 증거로 인용되어 왔다.”⁸⁰⁾

원대와 청대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대에는 없었던 駐藏大臣같은 기관이 티베트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관심은 당연히 駐藏大臣의 성격과 기능으로 모아졌다. van Praag와 Shakabpa에 의하면 “1728년에 두명의 滿洲人 대표가 호위대를 대동한 채 拉薩에 다시 한번 더 남겨지게 되었다. 이들은 帝國의 첫 티베트 駐在員으로, 보통 ‘암반’이라는 만주식 직함으로 불리워졌다. 암반의 역할은 티베트에서 일어난 事變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감독하는 것이었으나, 티베트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⁸¹⁾

79) van Praag, pp. 20-22.

80) Shakabpa, pp. 172-175.

81) van Praag, p. 16.

"廓爾喀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 乾隆帝는 駐藏大臣의 위상을 四川總督의 수준으로 승격시키고 지금까지 황제에게 직접 제출된 모든 上奏文이 이제는 반드시 駐藏大臣에게 먼저 보내어지도록 지시하였다... 1792년 이전에는 駐藏大臣이 황제를 위한 정치적 관찰자 정도였고 때로는 별다른 역량과 전결권을 갖지도 못하였다."⁸²⁾ 그러나 1793년에 제2차 내정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駐藏大臣의 위상과 권력도 크게 달라졌다. van Praag도 "암반의 권력도 증대되었다. 駐屯軍을 지휘하고 郵政을 감독하는 것 외에도, 이들 만주인 관리들은 이제 口+葛厦의 조연자가 되었다. 비록 그들이 정부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역할은 암반들에게 폭넓은 감독권을 주었고, 施主의 '보호'와 어쩌면 至高無上의 權力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었다"⁸³⁾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티베트측은 滿清勢力的 쇠퇴와 더불어 駐藏大臣의 권력과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제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van Praag의 논증에 의하면,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만주인의 영향력은 너무나 쇠퇴하여, 티베트인들이 암반과 다른 만주인을 티베트에서 축출하는데 합의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훨씬 뒤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 까닭은 제국의 조정에 남아있는, 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연줄을 이용하려는 귀족과 승려들의 강력한 당파들이 언제나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관리들은 티베트에 있는 만주 당국을 마지 못해 인정하면서도, 대외 교섭에 있어, 특히 영국과 교섭함에 있어,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그들에게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될 때는, 그러한 만주 당국의 개입을 계속 요청하였다. 당시에 티베트를 여행하고 拉薩에 살았던 불란스 선교사 Abbe' Huc은 티베트에 있는 만주 당국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확인하였다. 예컨대, 그는 암반을 단순한 大使로 간주하면서, 암반은 더이상 아무런 실질적 권위를 갖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서 그는 티베트의 口+葛倫은 만주인이 티베트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일체 용허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관찰하였다. 우리는 皇帝 개인이 티베트인들에 의해 높게 평가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황제를 Bodhisattva Manjushri의 화신으로 생각하였기 때문

82) Shakabpa, pp. 169-170.

83) van Praag, p. 17.

이다. 따라서 그의 결정,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를 대리하는 암반의 결정은 拉薩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Abbe' Huc은 암반의 '상임 대사직'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몽고인의 종교적 믿음을 고무하는 것과 北京 정부가 達賴喇嘛의 神性を 독실하게 믿는다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써 티베트 인민을 지배 왕조의 뒤에 재집결시키는 것'⁸⁴⁾이었다고 주장했다."⁸⁵⁾

티베트측은 滿清勢力的 쇠락은 駐藏大臣의 권력과 역할을 위축시켰고, 駐藏大臣의 위상추락과 역할축소는 티베트와 滿清 관계를 변질시켰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淸 황제가 達賴喇嘛와 그 敎法(혹은 敎會) 및 그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전면적으로 放棄하였고 이로 인해 滿洲 朝廷과 티베트 사이에 존재하였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도 철저하게 포기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⁸⁶⁾고 단정한 van Praag는, 이러한 변화의 내용에 대해 당시 유럽인의 관찰보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시기 티베트의 조건과 만주-티베트 관계의 상황은 병갈 총독의 公使로서 티베트에 파견된 두명의 영국인 관리들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들 公使 중 처음으로 부임한) George Bogle은 비록 滿洲 皇帝들의 세속적 宗主權이 많은 티베트인들에 의해 마지못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티베트의 內政은 온전히 티베트인 자신들의 손에 놓여 있었으며 만주인의 駐在는 오직 암반들이 1000여명의 호위대와 함께 머무르고 있던 拉薩에서만 감지되었을 뿐이었다고 보고 했다. 班禪喇嘛 자신도 그의 나라가 만주 황제에 복속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티베트가 淸朝에 완전히 從屬되었음을 시인하기를 거부하였고, 達賴喇嘛와 그 정부의 세속적 권위를 강화하고 티베트 내정에 대한 만주인의 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다바쳐 노력하였다... 1783년에 영국의 두번째 公使로 班禪喇嘛의 조정에 부임한 Samuel Turner 대위의 관찰도 그의 선임자의 그것과 매우 비슷했다. 그는 티베트인들이 淸朝의 영향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으나 그들은 '淸朝의 직접적인 권위하에 굴복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은 중국에 자신이

84) M. Huc, *Decouverte du Thibet, 1845-1846* (1933), pp. 50-51; Huc, *Recollections of a Journey Through Tartary, Thibet, and China* (London, 1852), pp. 296-297.

85) van Praag, p. 22.

86) van Praag, p. 22.

직접 예측되는 것은 반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두명의 公使들의 보고와 그들의 班禪喇嘛와 攝政과의 왕래를 통해 밝혀진 것은 滿洲 조정과 拉薩 정부 사이에 현저히 잘못 규정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淸 황제가 애매모호한 宗主權을 행사하고, 티베트 당국은 이를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몇몇 암반들은 拉薩에서의 상당한 영향력을 황제의 위신으로부터 끌어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티베트인들 자신이 황제에 진정으로 예측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위에 직접 복속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암반의 통치에 의해 티베트에 어떠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심하지 않고 방어하였는데, 보글은 실제로 암반이 '이 나라의 관리에 거의 간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티베트인의 태도는 애매모호하여, 拉薩 당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일 때는 왕왕 외국인들(특히 영국과 네팔인)과 교섭하는 일에 만주인 宗主國의 외양을 빌리려 하였다. 한 세기 동안이나 지배적이었던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이후의 혼란을 자초하고 청 황제에 대한 티베트의 지위를 잘못 표현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티베트-네팔 전쟁 후 1793년에 황제가 주장하기도 전부터 대외관계에서의 역할을 황제의 것으로 마무리까지 했다.⁸⁷⁾ "실제에 있어, 티베트와 네팔은 독립된 국가로 기능하면서, 비록 호혜적이지는 않더라도 상호 평등한 기초위에서 서로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葛倫 샤트라가 1862년에 권력을 장악하고 새 정부를 티베트에 건립하였을 때, 그가 北京에 공식적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네팔 조정에 요청한 것과 그 뒤에 티베트가 네팔가 가장 긴밀하게 교섭한 것은 주목할만 사실이다. 만주와의 관계는 의례적인 요식행위로 후퇴하였다... 만주의 영향력을 입증할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는 100여명의 소규모 호위대를 대동한 암반의 拉薩 駐在였다... 네팔의 역사가 Uprety는 이러한 영향력의 '전면적인 침식'은 '티베트에 대한 (황제의) 전통적 종주권을 하나의 태생적 신화로 바꾸어 버렸다'⁸⁸⁾고 결론지었다."⁸⁹⁾

결국, 티베트측은 淸代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1720년에 있었던 淸軍의 티베트 進駐와 그에 따른 滿淸의 티베트 간섭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 두 시기로

87) van Praag, pp. 18-19.

88) Uprety, p. 119.

89) van Praag, p. 24.

나누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논증에 의하면, 1720년 이전에는 티베트가 滿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독립국을 운영하였으나, 1720년부터 전후 4차례에 걸쳐 淸軍이 入藏하고 2차례에 걸쳐 ‘善後章程’을 체결, 반행함으로써 티베트가 사실상 滿淸의 간섭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滿淸의 간섭이 갖는 본질적 성격에 대해 van Praag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사실, 1720년부터 시작된 티베트 문제에 대한 만주인의 간섭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위대한 5세 達賴喇嘛의 시기 이후, 티베트인들은 빈번한 내부 알력에 더하여 몽고인과 만주인, 廓爾喀人, 심지어는 도그라인의 간섭까지 경험하였다... 그러나 비록 만주인들은 티베트와의 정식 權越關係가 2세기 이상 유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간섭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단명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주인이 티베트에서 행사한 권력이 어떠한 것이었든, 그들은 중국을 통치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고 구별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티베트 문제를 책임받은 帝國의 관청, 즉 理藩院의 지위는 만주인들이 결코 중국의 행정과 다른 영역의 행정을 통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개 만주인들은 특수한 帝國主義的 統制機關을 티베트 고유의 관료제도에 강요하되, 티베트 고유의 관료제도가 내부 문제를 다룰 때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였다’⁹⁰⁾는 사실을 나타낸다.”⁹¹⁾

(2) 중국측의 滿淸-衛藏 ‘上下主屬關係’論

중국측은 元朝나 明朝의 황제와 마찬가지로 淸朝의 황제와 티베트 大喇嘛 사이에도 供施關係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와 동시에 원조, 명조 황제와 마찬가지로, 청조 황제와 티베트 大喇嘛 사이에도 供施關係 외에 다시 上下主屬關係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대 藏傳佛教에 권력을 장악한 格魯派 達賴, 班禪 양대 喇嘛 가운데, 황제와 班禪額爾德尼 간의 상하주속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히 황제와 達賴喇嘛 간의 ‘上下主屬關係’를 입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⁹²⁾

90) E. Sperling, "The Status of Tibet According to Tibetan and Chinese Sources", Tibetan Messenger 9, No. 1(1980), p. 15.

91) van Praag, p. 25.

92) 王貴等, 96-97쪽

清帝와 達賴喇嘛의 上下主屬關係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측이 기울인 첫번째 노력은 당연히 順治帝와 5세 達賴喇嘛의 관계가 상하주속관계였음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5세 達賴喇嘛가 格魯派를 믿는 新疆, 青海蒙古와 碩特部 수령 固始汗의 지지를 얻어 葛瑪教派의 藏巴汗政權을 뒤엎고 拉薩에 ‘甘丹頗章’이라는 格魯派 권위기구를 건립하자, 갓 中國으로 入關한 滿清의 順治帝가 5세 達賴喇嘛를 北京으로 초청하였는데, 중국측은 1652년에 北京에 도착한 5세 達賴喇嘛를 順治帝는 융숭하게 대접하고 막대한 예품을 기증하는 한편 金冊金印을 주어 정식으로 冊封함으로써 “이후 역대 達賴喇嘛가 반드시 중앙정부의 책봉을 받아 하나의 세도를 이루었음”을 특히 강조하였다. 王貴 등은 “5세 達賴喇嘛가 청조황제의 중대한 지지를 얻어, 정식으로 책봉받고 서장으로 돌아온 뒤, 格魯派의 통치지위와 甘丹頗章 기구의 권력은 크게 강화되고, 全藏에서 達賴喇嘛는 號召力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van Praag와 Shakabpa에게 “불교사회에서 受冊封者는 冊封者에 從屬하는가 하지 않는가?... 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한 자에게 종속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5세 達賴喇嘛가 황제로부터 冊封받고 황제로부터 金冊과 金印을 받고, 황제로부터 받은 名號와 職權을 정중하게 宣稱하였음은, 그와 황제 간에 上下主屬關係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楊公素도 “達賴喇嘛라는 尊號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受封한 것이며 中國의 大皇帝가 封賜한 것이요, 格魯派가 西藏에서 획득한 최후 통치지위이자 中國 大皇帝가 扶持한 결과이다... 達賴喇嘛는 格魯派의 고유한 존호가 아니라 外來세력, 특히 中國 清朝 大皇帝가 사급한 것이다... 그가 종교통치지위에 居할 수 있었던 것도 완전히 中國 大皇帝가 부식하고 배양하고 지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達賴喇嘛가 통일적 서장의 主權者였다는 것은 완전히 역사사실이나 법률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⁹³⁾라고 주장하였다.⁹⁴⁾

한편 王貴 등은 티베트측이 “5세 達賴가 독립국 군주의 예우를 받았다”고 한 데 대해, “順治帝는 5세 達賴喇嘛를 일개 독립국가의 군주로 접대한 바 없었고, 皇帝屬下의 본국 邊遠 소수민족 지구의 蒙藏 양쪽에 거대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高僧으로 접대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藏族 畫工이 順治帝와 5

93) 楊公素, 「評范普拉赫的『西藏的地位』」(中國藏學 1990-2) 27-29쪽.

94) 王貴 等, 98-103쪽.

세 達賴喇嘛의 회견장면을 그린 布達拉宮의 벽화에 順治帝가 平視狀으로 5세 達賴보다 높은 좌석에 앉고 5세 達賴는 약간 俯首하는 자세로 앉았음을 들어, 이를 “양자의 上下之分을 보여주는 것”이라 단정하였다.⁹⁵⁾ 楊公素 역시 “저자 (van Praag)는 5세 達賴에 대한 청 順治帝의 예우를 설명하면서 이를 두 主權者의 회견이라 하였으나, 이러한 看法은 착오다. 종교상 清朝의 5세 達賴에 대한 예우는 매우 높았으나 忽必烈이 八思巴를 國師에 봉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정치관계상으로는 분명히 隸屬關係로서, 達賴喇嘛를 책봉한 金冊중에는 西藏의 政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固始汗을 책봉한 金印중에만 있었다”고 하여 達賴喇嘛의 정치적 지위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며, 혹은 “達賴喇嘛의 종교상 지위는 청조 皇帝의 封贈을 경유하여 비로서 全國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었고 서장에서 종교를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神權이 王權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格魯派는 固始汗의 扶植을 받고 固始汗은 이로 인해 西藏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는 施主와 主持의 관계가 아니라 政治관계였다... 황제들도 施主의 신분으로 종교를 보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達賴喇嘛의 종교적 권위조차 清帝가 가진 정치적 권위의 한 산물로 규정하였다.⁹⁶⁾

중국측은 5세 達賴喇嘛 외에도, 衛藏에 실질적 통치권력을 행사한 固始汗도 1653년에 청조로부터 책봉받았고 甘丹頗章을 통솔한 第司도 모두 清廷의 冊封을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청조 중앙정부의 認可와 지지하에, 第司를 지방정권의 수뇌로 하는 蒙藏僧俗 封建主가 서장에 대해 연합통치를 실행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固始汗과 5세 達賴喇嘛, 甘丹頗章이 함께 皇帝에 入朝, 清廷에 귀순, 全藏의 호령 등 중대 정략을 의논하여 예정된 결과를 취득, 西藏과 기타 藏區에 대한 통치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니, 이는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固始汗과 5세 達賴喇嘛는 모두 皇帝와 명확한 上下主屬關係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王貴 등에 의하면 “順治, 康熙帝와 5세 達賴喇嘛時代 青藏高原의 정치 主旋律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몽고족중 최강대한 和碩特部 수령 固始汗과 서장의 5세 達賴喇嘛가 공동으로 朝廷에 귀순하여 황제의 승인과 지지를 얻어 서장지방을 통치할 견고한 권력을 획득한 것이었다.”⁹⁷⁾

95) 王貴 等, 104쪽.

96) 楊公素, 28-31쪽.

중국측은 티베트측과 달리 淸軍 進駐의 당위성과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티베트 내부의 頗羅乃+鼎 등이 먼저 拉薩를 점령하여 准葛爾部를 축출한 뒤에 淸軍이 拉薩에 왔다는 티베트측의 주장에 대해, 중국측은 “만약 淸廷 중앙정권이 중앙 대군을 파견하여 准葛爾部の 평정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頗羅乃 + 鼎 등은 그들을 단기간에 패배, 축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⁹⁸⁾ 티베트 상층 통치집단 안에서 內訌이 일어난 것을 틈타 淸軍이 다시 入藏한 사건을 두고, 티베트측이 다시 淸軍이 拉薩에 도달한 시간이 頗羅乃+鼎軍보다 늦었음을 강조했으나, 王貴 등은 “그가 먼저 拉薩에 들어가 (政敵)3인을 연금하였으나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淸廷의 관원이 와서 처리하기를 기다렸던 사실은 그가 淸廷을 존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⁹⁹⁾ 1788년과 1791년에 내팔軍이 티베트에 대거 침입한 것을 빌미로 淸이 다시 大軍을 入藏시킨 사건에 대해서도, 王貴 등은 “실제로는 拉薩의 상하 각 계층과 각계 藏胞들은 入藏한 淸軍을 열렬하게 환영하였다... 入藏 淸軍의 軍火는 전부 內地에서 운송해 왔으며... 서장에서 구입한 糧禾+末은 모두 청정이 대가를 치른 것으로 藏胞에게는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¹⁰⁰⁾

티베트 내정에 대한 滿淸의 간섭은 중국측의 논리를 강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727년에 淸은 拉薩에 駐藏辦事大臣 2인을 둘 것을 결정하였으며, 정권 다툼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頗羅乃+鼎를 貝子, 혹은 貝勒, 郡王 등으로 책봉하였다. 이에 대해 티베트측은 “頗羅乃+鼎는 실제로 일개 國王이었다”고 하였으나, 王貴 등은 “그는 중국 경내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일개 소수민족지구의 郡王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는 황제에게 보내는 奏文에서 ‘我主大皇帝’ ‘天授大主’ ‘東方大主’ 등으로 표현하여, 淸帝를 그 國主로 여기고 본인은 淸帝의 臣屬으로 자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⁰¹⁾ 頗羅乃+鼎의 次子인

97) 王貴 等, 104-106쪽. 姚兆麟도 “van Praag는 淸朝중앙의 서장에 대한 主權의 행사도 ‘供施關係’로 설명, 施主 대 法主의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로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서장지방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淸初 順治帝부터 서장의 軍政大權은 몽고족 和碩特部수령인 顯實汗에게, 종교영도권은 5세 達賴에게 수여하였으니, 主屬관계가 명확하다.”고 하였다. (姚兆麟, 148쪽)

98) 王貴 等, 109-110쪽.

99) 王貴 等, 110-113쪽.

100) 王貴 等, 124-132쪽.

101) 王貴 等, 116-117쪽.

珠墨那杰 郡王이 駐藏大臣에 의해 살해되고 駐藏大臣 2인도 그 잔당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티베트와 滿淸 사이에 이른바 '西藏善後章程' 13條가 체결되어, 郡王 제도가 폐지되고 4 葛倫이 辦公하는 口+葛厦 정부가 건립되어 達賴喇嘛의 직접적 영도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내정 개혁에 대해, van Praag는 "황제는 達賴喇嘛가 회복한 최고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여 7세 達賴喇嘛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王貴 등은 "황제가 비준한 '西藏善後章程' 13조는, 達賴喇嘛가 西藏에서 단지 최고의 종교지위만을 갖고 '領天下釋教'할 따름이었지 최고의 정치지위는 갖지 않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최고의 종교지위와 최고의 정치지위를 가진 서장지방의 통치자가 되었으며, 이는 완전히 황제가 입법하는 형식으로 결정된 것임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滿淸의 의지와 강제를 부각시켰다.¹⁰²⁾

네팔의 침공을 계기로 淸軍이 티베트에 다시 進駐하고 1793년에 '藏內善後章程 29條'가 체결되어, 達賴喇嘛와 班禪額爾德尼 등의 轉世가 '金瓶制+手簽'의 수속을 통해 확인되고 駐藏大臣의 권한이 크게 강화됨과 아울러 정액 3000명의 티베트 常備軍이 건립된 데 대하여, van Praag는 "이러한 개혁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王貴 등은 "이 章程으로 만들어진 常備軍은 그 뒤에 英帝國主義의 서장침입을 막는 투쟁에 참가하였고... '金瓶制+手簽'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達賴喇嘛의 轉世靈童을 확정하는데 이용되었으며... 이 장정으로 인해 達賴喇嘛, 班禪喇嘛와 駐藏大臣의 지위가 相等하고 葛倫 이하 관원이 駐藏大臣에 隸屬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章程은 황제와 達賴喇嘛 사이가 절대로 擅越關係에만 국한되지 않고 명확히 上下主屬關係에 있었음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세 達賴의 확인과정에서 '金瓶制+手簽' 의식을 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王貴 등은 "9세 達賴의 확인, 坐床, 金瓶制+手簽 면제 등은 모두 황제의 비준과 頒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의 논중에 의하면, "9세부터 13세 達賴喇嘛까지 매 轉世靈童은 확인된 뒤에 청조 황제의 정식 비준을 받아 達賴喇嘛가 되었을 때, 拉薩에서는 장엄한 接旨儀式이 행해졌다. 駐藏大臣이 정면에서 聖旨를 읽고, 轉世靈童은 주장대신이 가진 성지를 향해 足+危拜하였으며, 攝政王과 經師, 西藏 지방정부의 僧俗관원 등은

102) 王貴 等, 119-120쪽.

轉世靈童의 뒤에서 꿰어 앉아 주장대신의 성지 宣讀을 들었다. 그 뒤 達賴轉世靈童은 皇恩에 감사를 표하고 동향하여 3足+危9叩의 大禮를 올렸다. 이는 분명 황제와 達賴喇嘛가 君臣上下關係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3세 達賴喇嘛는 金瓶制+手籤을 사용하지 않은 두번째 達賴喇嘛가 되었다. 이로보아 5명 達賴喇嘛의 최후 결정권은 모두 황제의 수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세 達賴喇嘛도 그 이전의 達賴喇嘛와 마찬가지로, 轉世靈童의 확인, 坐床大典의 거행, 金冊金印의 啓用, 黃轎의 乘坐, 經師의 인선 등 모두가 황제에게 奏請한 뒤에 황제의 비준을 받아 유효하게 실행하였다."¹⁰³ 楊公素도 "達賴喇嘛와 班禪喇嘛의 轉世靈童을 확인할 때 황제가 사급한 金瓶抽籤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乾隆 57년(1792)에 황제가 반포한 「欽定藏內善後章程」에 있음은, 서장지방이 작자(van Praag)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독립된 주권을 가진 정치실체가 아니었고, 達賴喇嘛도 정치상 주권을 가진 존재나 절대권력이 아니라 駐藏大臣으로부터 제약받은, 최후는 중국황제가 결정권을 갖는 존재였으며, 서장지방과 중국 중앙정부가 무슨 施主와 主持의 檀越關係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隸屬關係에 놓여 있었음을 증명한다"¹⁰⁴고 주장하였다.

駐藏大臣이 일개 '大使'에 지나지 않았다는 티베트측의 주장은 중국측에 의해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되었다. 王賁 등은 내팔과 英國이 티베트를 침공하였을 때 滿清이 무력하게 대응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淸廷과 서장지방의 統屬關係는 개변되지 않았다. 청조가 공포한 각항의 治藏法典과 規章이 의연히 서장에서 유효하게 실행되었고, 駐藏大臣은 여전히 西藏에 주재하면서 達賴喇嘛와 班禪喇嘛 등과 함께 서장지방을 治理하였으니, 황제와 達賴喇嘛 간의 上下主屬關係는 의연히 유지되었다... 즉 淸廷의 서장통치 정도에는 量變이 있었으나, 主屬關係에는 質變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고집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淸 황제가 達賴喇嘛와 그 教法(혹은 敎會) 및 그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전면적으로 放棄하였고 이로 인해 滿洲 朝廷과 티베트 사이에 존재하였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도 철저히 포기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van Praag의 주장은 "量變과 質變을 혼동하여 과장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¹⁰⁵ 그들은 駐藏大臣은 "단지 大使였을 뿐"이라는 티

103) 王賁 等, 132-138쪽.

104) 楊公素, 「評范普拉赫的『西藏的地位』」, (中國藏學 1990-2) 32쪽

베트측의 주장은 “완전한 오류”라고 규정하면서, “駐藏大臣은 서장에 파견한 欽差大臣으로, 副都統이나 內閣學士, 侍郎 등 2品 大官이 맡은 것으로 그 품계는 각 省의 總督, 巡撫와 같았다. 또한 29조 章程에 규정된 駐藏大臣의 권한은 매우 컸다. 첫째, 達賴와 공동으로 口+葛厦와 口+葛倫이하 대소 문무관원 및 活佛을 관할하고 전 서장 인구와 戶籍등을 조사하는 행정권을 관장하였으며, 둘째, 金瓶制+手籤 의식을 주관하여 조정에 達賴喇嘛, 班禪喇嘛 및 黃教 각 大活佛 轉世靈童을 보고하고 達賴喇嘛와 회동하여 葛倫, 代本 이하 각급 서장지방정부 관원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졌고, 西藏軍의 병력을 徵調하고 達賴喇嘛와 함께 代本 이하 각급 軍官을 뽑으며 매년 서장군대를 사열하는 軍事權을 가졌다. 셋째, 범죄자를 재판, 처벌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藏漢 관리를 조사하는 司法權을 가졌고, 다섯째, 淸廷의 뜻에 따라 인근 국가와의 교섭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外事權을 가졌으며, 여섯째, 화폐주조와 賦稅, 정부수지 등을 감독하고 세금부과와 差役의 증감을 결정하는 財政金融權을 가졌다”고 하면서, “외국에 주재하는 大使가 어떻게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¹⁰⁶⁾

한편, 중국측 논설 가운데는 滿淸의 황제와 티베트의 大喇嘛 사이에 교환된 冊封과 朝貢의 관행을 통해 티베트 獨立論을 비판하려는 입점도 포함되었다. 한 예로, 李風珍은 “朝貢이 具有한 정치 및 경제의 두가지 성격” 가운데서 특히 정치적 성격을 주목하여, “西藏과 淸朝 양자는 모두 朝貢關係 중에서도 정치관계를 제1 요소로 삼았으니, 청조는 朝貢을 厚往薄來함으로써 藏族의 綏服을 기하여 그 통치의 정치목적에 강화하였고, 서장의 喇嘛首領은 청조의 冊封과 朝覲를 생취하여 본 민족을 통치할 정치자본을 취득하였다. 授封후의 大喇嘛와 俗官은 모두 進京朝貢하였다. 청조는 그 朝貢 여부를 허락할 때, 일정한 정치요구를 표준으로 삼았다... 朝貢은 정치상의 冊封과 경제상의 貿易 양자의 상관관계를 모두 갖추어 서로 불가분의 성질을 갖고 있었으나, 단지 정치를 주로 하고 경제는 次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서방학자 등 티베트측이 “朝貢의 내용 중의 정치와 경제의 연계를 할단하고, 그 가운데서 정치상의 예측관계는 버리고 단지 경제상의 무역관계만으로써 서장의 청조에 대한 조공을 해석하여, 서

105) 王貴 等, 147-149쪽.

106) 王貴 等, 150-151쪽.

장 喇嘛 貢使의 朝貢을 서장과 청조의 ‘외교와 무역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서장과 청조의 예측관계를 부정하여 서장이 ‘독립국가’임을 고취하려 기도하였고, 서장과 內地 무역의 발전적 역사가 서장과 청조의 정치예속관계와 동반하여 발전해온 특수한 역사현상임을 왜곡하여, 경제무역으로써 정치를 엄폐, 서장이 중국영토임을 부정하려는 정치목적에 도달하려 망령되어 도모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李鳳珍은 “서장 達賴喇嘛과 班禪 및 속관 등 政教合一의 통치자의 청조에 대한 朝貢은 土司의 朝貢과 성질이 같다”고 하고 “토지를 賞給받은 達賴는 그 正賦를 면제받고 단지 朝貢만 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티베트측의 주장처럼 “서장의 청조에 대한 朝貢이 단지 일종의 외교와 무역관계일 뿐이어서 서장이 중국영토에 속하지 않는 독립국가라면, 여러 土司들이 청조에 대한 朝貢은 왜 ‘외교와 무역관계’가 아닌가? 청조의 광대 판도내 각족 土司들은 청조에 독립한 ‘독립국가’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였다. 요컨대, 그의 주장에 의하면, “喇嘛 頭人의 清朝에 대한 朝貢은 청조 주권국가가 그 통합범위내 소수민족에 대해 실시한 일종의 羈縻政策으로서... 청조정부의 서장지방에 대해 행한 완전한 主權을 설명한다.”¹⁰⁷⁾

(3) 滿清과 티베트의 대등한 檀越關係와 불평등한 冊封朝貢關係

사실 清代의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는 元代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 까닭은 그 국제적 상황이 근사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청대의 중국은 원대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바깥, 특히 遼東 방면에서 흥기한 征服國家에 의해 통합, 지배되고 있었으며, 당시의 티베트는 政教合一의 권위를 중심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또한 중국을 지배한 정복국가는 統合國家의 정치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티베트 불교를 활용하려 하였으며, 티베트의 政教首領은 중국과 몽고, 요동 등 복수의 역사공동체를 통합한 강대한 정복국가의 정치, 군사적 역량의 의지하여 政教合一의 통치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이처럼 근사한 元清 양대의 상황적 배경은 두 시대 중국-티베트 관계의 실질적 전개과정을 비슷한 방향과 양상으로 유도하였다.

107) 李鳳珍, 「清代西藏喇嘛朝貢概述-兼評理查遜的西藏朝貢是外交和貿易關係的謬論-」, (中國藏學 1991-1) 78-79쪽.

청대의 중국을 지배한 滿淸 皇帝와 西藏의 政敎首領도 元帝와 烏斯藏 政敎首領과 마찬가지로 서로 冊封과 朝貢을 교환하면서 이른바 冊封朝貢關係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淸帝를 施主로 하는 이른바 檀越關係 즉 供施關係도 유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티베트측은 양자 관계 가운데서 供施關係만을 강조하여 양자가 상호 평등하고 독립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측은 冊封朝貢關係를 더 중시하여 양자가 '上下主屬關係'에 놓여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元代와 마찬가지로, 양자 간에 供施關係와 冊封朝貢關係가 공존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한 예로, 滿淸의 順治帝는 5세 達賴喇嘛를 冊封하여 金印金冊을 주었지만, 스스로 施主를 자처하며 5세 達賴喇嘛를 尊崇하며 供施하였다.

양자의 檀越關係만을 강조한 티베트측의 논의가 편중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양자의 冊封朝貢關係를 통해 양자의 '上下主屬關係'를 강조하고, 나아가서는 당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음을 입증하려한 중국측의 노력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책봉조공관계는 從屬關係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평등하지만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王貴 등은 5세 達賴喇嘛와 順治帝가 北京에서 만나는 장면을 그린 布達拉宮의 壁畵를 통해 양자의 이른바 '上下主屬關係'를 입증하려 하였으나, 이 그림은 양자가 上下의 불평등한 관계에 있으나 완전히 독립된 두 집단을 대표하였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오로지 5세 達賴喇嘛 등 티베트의 역대 政敎首領들이 淸帝로부터 金印金冊을 받고 朝貢使節을 북경에 보내었다고 해서 당시의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지탱한 冊封朝貢體制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티베트측이 淸帝와 達賴喇嘛의 관계를 단일관계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장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시 티베트의 정치체제가 政敎合一의 것이었고 滿淸 역시 티베트 불교를 사실상 國敎처럼 존숭하였기 때문에, 淸帝와 達賴喇嘛의 檀越關係를 순수한 종교적 관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측이 양자의 檀越關係를 종교적 관계로만 간주하고 정치적 책봉조공관계와 엄격히 분별하여 설명하려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적지않은 문제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원래 종교적 관계였던 檀越關

係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冊封朝貢關係와 미묘하게 결합되어 제3의 독특한 국제관계가 티베트-중국관계사상에서 창출, 유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티베트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는가 여부는 중국의 국가가 실제로 티베트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켜 국가의 일부로 통치했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질 것이다. 중국의 국가가 티베트를 사실상 통치했는가 여부는 중국 국가의 군대가 티베트에 영속적으로 주둔하고 중국 국가의 관리가 티베트에 파견되어 그 인민을 통치하며 중국 국가의 법률이 티베트에서 실행되고 티베트의 인민으로 부터 人頭稅와 兵役 등을 착취할 수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중국인들이 티베트를 역사상 중국의 일부로 이해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淸軍의 衛藏 進駐, 駐藏大臣의 파견, 達賴喇嘛 轉世靈童의 金瓶制+手籤, 西藏善後章程13條(1751)와 藏內善後章程29條(1793)의 체결을 통한 駐藏大臣 권한의 강화 등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과연 중국 국가의 티베트 통치와 나아가서는 청대 티베트의 중국 판도 남입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자못 의문스럽다.

첫째, 중국측은 淸軍의 入藏이 티베트인을 위하고 티베트인의 願意에 따른 것이라 강변하지만, 그것이 滿淸의 국익을 추구하여 恣意的으로 이루어진 侵略이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淸軍의 入藏은 모두 蒙古나 英國 등 列強과 티베트를 다룬 戰略的 고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侵略'의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淸軍의 衛藏 進駐가 얼마나 영속적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있어 청군의 衛藏 주둔이 매우 斷續적인 것이었음은 중국측도 부인하지 않는다.

둘째, 達賴喇嘛+麻와 口+葛倫 등 티베트를 통치 혹은 관리한 통치자나 관리들은 모두 중국인이 아니라 티베트인이었다. 이들의 일부는 淸帝로부터 冊封받는 형식을 빌어 就位하였으나, 淸帝의 책봉은 기왕에 확정된 사실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冊封 자체가 권력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문제는 駐藏大臣의 파견인데, 과연 이를 두고 地方官(流官)의 파견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측은 티베트측이 淸代 駐藏大臣은 "일개 大使였을 뿐"이라고 한 데 대해 두 차

레 체결된 '章程'의 내용을 들어 그 기능과 의미를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駐藏大臣이 일개 外交官에 불과하였다는 티베트측의 주장도 과장된 것이 분명하지만, 章程의 文句만으로 당시 駐藏大臣의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논단하는 중국측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章程이 현실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철되었는가 하는, 名實의 일치 여부와 정도를 역사의 현실에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清代 駐藏大臣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근사한 경우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없다. 예컨대 淸은 朝鮮에도 '駐韓辦事大臣' 袁世凱를 보내어 '監國'케 하였는데, 조선에서 보여준 袁世凱의 활동내용은 '駐藏(辦事)大臣'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그러면 駐藏大臣의 파견을 통해 淸의 衛藏 통치를 입증하고 나아가서는 清代 중국의 판도에 衛藏이 納入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駐韓大臣이 파견되어 '監國'된 朝鮮도 淸의 통치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이 때의 한국도 중국의 판도 안에 남입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중국측이 駐藏大臣의 존재와 역할을 통해 티베트의 중국 귀속을 증명하려 한다면, 이와 동시에 駐韓大臣이 파견되었던 기간 동안의 한국도 중국에 귀속되었다는 주장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達賴喇嘛의 轉世靈童을 확인하기 위해 티베트인이 찾은 3명의 후보 가운데 한명을 추첨으로 뽑는 金瓶制+手籤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淸이 티베트인에게 요구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情實 등 확인과정의 부작용 배제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확인과정에 淸이 개입하여 淸帝의 達賴喇嘛 冊封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의 實效性은 현실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첫번째 적용대상인 9세 達賴喇嘛는 이 방법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전통적 방법에 의해 확인되었고 13세와 14세 達賴喇嘛도 전통적 방법으로 확인되었으며, 金瓶制+手籤에 의해 확인된 10세와 11세, 12세 達賴喇嘛도 티베트인들이 轉世靈童으로 찾아 확신한 아동이 추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淸이 요구한 金瓶制+手籤制는 기왕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達賴喇嘛 확인과정의 결과를 사실상 전혀 변경시키지 못함으로써, 達賴喇嘛 轉世靈童의 확인과정에 淸帝의 의지를 개입시키려는 淸廷의 의도는 무산되었다.

네째, 西藏善後章程13條(1751)와 藏內善後章程29條(1793)에 의한 티베트 권력구조의 제도적 변혁 역시 그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衛藏의 대소 관원을

은 여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達賴喇嘛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티베트인에게는 티베트의 법률이 적용되었고, 티베트인이 낸 세금은 達賴喇嘛의 葛厦政府로 귀속되었다. 淸帝는 達賴喇嘛와 葛倫 등 일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형식적 冊封權만 가지고 있었을 뿐, 티베트인에게 淸法을 적용시키지도 못하였으며, 티베트인에게 人頭稅와 兵役을 착취하지도 못하였다. 독자적인 貨幣 주조권과 郵票 제조권도 葛厦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두 차례의 章程締結로 인해 티베트의 內政과 外交의 主權이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淸의 실질적 티베트 통치를 의미하고 티베트의 중국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중국측이 제시한 어떠한 논거 가운데서도 滿淸이 티베트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다는 만족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淸帝와 達賴喇嘛의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檀越關係와 冊封朝貢關係만이 확인될 뿐이다. 청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출현한 駐藏大臣의 경우도 滿淸이 티베트를 통치했다는 증거로 논의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滿淸이 티베트를 장악하는 역량은 그 후기로 갈수록 현저히 저하되었다. 帝國主義 세력이 중국을 침탈한 民國時代에는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가 더욱 약화되었다.

7. '티베트'와 '中國'의 歷史的 概念을 통해서 본 傳統時代 티베트와 中國의 관계

티베트가 중국 국가에 의해 지배, 통치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논하기 위해, 논쟁의 양측은 티베트가 과거에 중국 국가에 의해 지배, 통치되었는가 하는 역사는쟁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논쟁은 다시 과거에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였는가 하는 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러면 티베트가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결국 양측은 '티베트'와 '중국'이란 말에 담겨진 역사적 개념을 통해 티베트 중국 귀속문제의 답을 얻으려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蒙古'와 '滿洲'가 '中國'의 일부인가, 즉 蒙元和 滿淸도 中國 王朝 혹은 國家의 하나로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도 양측의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 티베트측의 '티베트非中國'論과 '滿蒙均非中國'論

서장독립론자들은 서장이 중국에 귀속하는가 여부를 양자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논증하기 이전에, '티베트'와 '中國', '티베트인'과 '中國人'의 역사적 개념 자체가 이미 서로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로 인해 티베트측은 언제나 '티베트'와 '중국'이란 말을 평행, 병렬하여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측은 '티베트'와 '중국'을 엄격히 구별하였듯이, '蒙古'나 '滿洲'도 '中國'과 엄격히 구별하였으며, 蒙元이니 滿清 국가를 蒙古와 滿洲의 국가로 이해하였지 '中國'의 국가로 간주하지는 않음으로써, 이른바 '滿蒙均非中國'論을 개진하였다. 예컨대, Shakabpa는 "蒙古는 中國을 통치하고 티베트와는 供施關係를 가졌으며, 獨立自主의 티베트의 토지와 백성은 근본적으로 蒙古人과 中國人의 통치와 간섭을 받지 않았다"¹⁰⁸⁾라거나, "帝國을 세운 몽고인은 먼저 티베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한 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마침내 중국을 정복하였다. 티베트는 強曲堅贊時期에 蒙古로부터 독립을 얻었으며, 中國은 1368년에 朱元璋의 영도하에 독립을 쟁취하였다"¹⁰⁹⁾고 하여, '蒙古'와 '中國', '티베트'를 병렬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티베트측은 蒙元과 滿清을 '蒙古帝國'과 '滿洲帝國'으로 각각 규정하고, 티베트와 蒙元 혹은 滿清의 관계를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가 아닌, 티베트와 몽고, 혹은 티베트와 만주의 관계로 환원시켰다. 즉 van Praag는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에 대하여 "1279년에 忽必烈이 宋代 중국에 거둔 승리는 독립적 중국의 종말을 의미하였다. 89년 동안, 中國은 전 蒙古와 티베트, 中國, 韓國의 일부, 시베리아, 安南 일부, 북부 버마 등으로 구성된 東蒙古帝國의 일부였다... 티베트는 忽必烈이 중국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忽必烈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중국이 독립을 얻기 전에 이미 그 실질적 독립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몽고의 티베트 정복과 몽고의 중국 정복은 서로 관련이 없었다. 더구나 몽고와 티베트의 관계는 몽고인과 티베트인 사이의 종족적, 문화적, 무엇보다도 종교

108) 夏格巴, 「易·刀出曲解腰包之推針」(印度, 藏文『知識』月刊 1986-4,5); 湯池安, 「夏格巴自欺欺人之談可以休矣」(西藏研究 1987-1) 50쪽. 이 글은 湯池安, 「評夏格巴『西藏政治史』中所謂供施關係的政治涵義」(西藏研究 1985-1)를 비평한 글임.

109) Shakabpa, p. 73.

적 類緣性的 표현이었는데, 이러한 類緣性은 중국인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하였다.¹¹⁰⁾ 그는 “中國에서 건립된 明은 蒙古帝國 전체를 접수하지는 못하였으며, 티베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¹¹¹⁾고 하여, 明은 中國의 국가로 인정하였으나 明이 지배한 中國은 ‘蒙古帝國’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중국의 明朝가 1644년에 멸망하고, 이 나라(티베트)는 다시 한번 더 침범되고 정복되었으니, 이번에는 清朝를 건립한 滿洲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 淸은 ‘滿洲帝國’으로 규정하였다. van Praag는 “부주의하게 그리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淸帝國을 中國의 제국으로 부르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滿洲帝國이었으며, 中國은 이 만주제국을 구성한 한 부분이었을 뿐”¹¹²⁾이라는 Owen Lattimore의 견해를 ‘옳바른 지적’이라고 지지하였다. 그는 “(滿洲와 中國의) 구별은 당시에 확실히 이루어졌으니, 황제는 모든 軍司令官과 官僚職에 滿洲人을 임명하거나 중국인 관리들과 짝지어 並置하였으며, 만주인과 중국인 사이의 通婚이 금지되었었다. 이들 만주인 지배자들은 앞서 元朝의 몽고인들이 그러하였듯이 中國에서는 외국인이었으며, 그들은 중국인들에 의해 이방인 정복자로 간주되고 불쾌하게 여겨졌다. 언제나 잠재해 있던 중국에서의 反滿 감정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격화되었고, 중국인들이 淸을 전복하고 자기들의 정권을 수립한 1911년의 혁명 때에는 끝내 표출되었다”¹¹³⁾고 하고, 袁世凱가 1912년에 선포한 漢滿蒙回藏 5族共和의 文告를 인용하면서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티베트와 蒙古가 中國 영토의 일부이고 그 인민이 웅당 중국의 공민임을 제창한 것이라”¹¹⁴⁾하여, ‘滿洲’와 ‘中國’이 엄격히 구별하고 ‘滿洲人’이 ‘中國人’의 ‘外國人’이요 ‘異邦人’으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van Praag는 “수세기 이래, 亞洲의 전략 중심 지구에 위치한 西藏은 이 대륙의 여러 大帝國-蒙古人 俄國人 滿洲人 영국인 中國人의 제국 포함-의 옛보는 대상이 되었다”¹¹⁵⁾고 하여, ‘蒙古帝國’이나 ‘滿洲帝國’을 ‘中國帝國’과 구별하기에 이르렀다.

110) van Praag, pp. 6-7.

111) van Praag, pp. 7-8.

112) O. Lattimore, *Studies in Frontier history* (New York, 1962), p. 77.

113) van Praag, pp. 10-11.

114) van Praag, p. 51.

115) van Praag, p. III.

이처럼 티베트측이 '蒙古'나 '滿洲'를 '中國'과 구별한 까닭은 물론 蒙元이나 滿清과 티베트의 관계를 蒙古나 滿洲와 티베트의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시대의 티베트가 中國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논증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티베트의 '중국'납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Shakabpa나 van Praag의 입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蒙古와 滿洲를 中國과 구별한 논법은 원래 티베트문제에 깊이 관여한 영국 외교관 H. E. Richardson이 먼저 제기한 것이었으니, 그는 元代의 蒙古人과 清代의 滿洲人은 中國人이 아니며 外國人일 뿐이라 하고 元清 양대의 皇帝는 "中國人의 中國皇帝가 아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元清 양대의 티베트를 통치한 역사도 근본적으로 중국역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¹⁶⁾ van Praag의 서문을 쓴 Franz Michael도 "중국인들이 中國人의 일부가 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티베트인이 과거와 현재에 중국 '民族'의 일개 '少數民族'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현대 민족국가의 관점에서 중세의 帝國的 關係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형식의 中國帝國主義를 합리화하려는 기도의 일부이다"¹¹⁷⁾고 하였다. 티베트인과 중국인의 언어, 종교, 정치제도, 예술, 문학과 역사의 차이를 비교연구한 인도인 G. Sandberg도 "(1950년까지의)티베트는 중국의 역사에 속하지 않고 티베트의 전통은 중국의 歷史邊界와 구분된다. 1750년과 1850년 사이의 1세기를 제외하고는, 정치역사상으로도 서장이 중국역사에 納入된적은 없다"¹¹⁸⁾고 결론내렸다. 심지어는 중국측 입장에 유리한 논거를 지지하여 중국측으로부터 매우 호의적 평가를 받은 캐나다인 A. Tom Grunfeld조차도 그의 저서 附錄2 '獨立'項에서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는 일종의 특수한 관계였으니,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述語로서의) '獨立'은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티베트가 '中國의 不可分割의 一部分'이었음을 표명하지도 않은 관계였다"³⁴¹¹⁹⁾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중국측으로부터 '분명한 錯誤'라고 비판받았다.¹²⁰⁾ 따라서 '티베트'와 '몽고' '만주' '중

116) H. E. Richardson, *A Short History of Tibet* (New York, 1962); 黎吉生『西藏簡史』, 柳升祺, 「評范普拉赫先生的西藏史觀及其他」, (中國藏學 1992-1)(해방전 國民政府 蒙藏委員會 駐藏辦事處 英文秘書) 17쪽에서 재인용.

117) van Praag, p. XIV.

118) G. Sandberg, *The Exploration of Tibet, History and Particulars*(Delhi, 1973), p. 13.

119) A. Tom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 (Bath Press, Avon, 1987; 蒙 戈倫夫, 『現代西藏的誕生』, (中國藏學出版社, 北京, 1990) 364쪽.

국' 등의 역사적 개념을 통해 티베트의 역사적 독립성을 논증하려는 입장은 당연히 티베트가 元代 이래로 中國의 不可分割의 一部分이라고 확신하는 중국측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비판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2) 중국측의 '티베트'-'中國'概念 '包含被包含關係'論과 元清 '改朝換代'論

역사상 '중국' 개념에는 '티베트'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주'와 '몽고'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티베트측의 주장은 중국측을 '경악'시켰다. 이에 중국측을 대표하여 王貴 등은 "서장독립'론을 선양하는 자들은 역사를 엄폐하고 왜곡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는 외에, 용어를 混淆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예컨대, 서장의 중국귀속 문제에 부딪히면, 그들은 항상 '西藏'(Tibet), '藏人'(Tibetan), '中國'(China), '漢地'(China), '漢人'(Chinese or Hans), '中國人'(Chinese) 등의 명사상에 혼란을 일으켜 이들 명사의 概念을 바꾸어 버린다. 謹嚴한 학자와 엄숙한 공작인원이라면 概念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를 토론하지 않는다"¹²⁰⁾고 하면서, 이들 말들의 역사적 개념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王貴 등의 개념분석에 의하면, '中國'이란 말은 西周후기, 東周초기에 처음으로 발견될 때는 '中國'은 京師와 같은 뜻을 갖는 말로서 어떤 때는 商周王朝의 직접통치구를 가르켰으나, "그 뒤 中國의 지역은 부단히 확대되어... 中國은 華夏族을 주체로 한 하나의 多民族的 통일 대국을 이루었으며... 唐宋이래로 중국 각민족 대가정의 성원 가운데 정식으로 藏族이 포함되었다... 1247년에 西藏이 元朝에 歸順하여 中國의 版圖가 서남방면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明代에도... 元代 中國의 기타 강역을 그대로 據有하였다... 清代에도 元代的 기본 판도를 대체로 擁有하였다." 그들은 또한 '中國' '中國人' '中華民族' 등의 말도 분석하여, 그것이 "처음부터 多民族을 의미하였으며, 절대로 일개 漢族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중화민족 多元一體 格局이라"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王貴 등은 '西藏' 등 티베트를 가리키는 漢字語를 분석하여, "西藏"은 漢語중에서, 唐代에는 '吐蕃'이나 '吐蕃' 등으로 칭하고, 宋代에는 '西蕃' 등으로,

120) 鄧銳齡, 「評譚 戈倫夫新著『近代西藏的誕生』」(中國藏學 1988-1) 28쪽.

121) 王貴 等, 6쪽.

元代에는 ‘烏思藏納里速古魯孫’ 등으로, 明代에는 ‘烏思藏’ 등, 清代에는 ‘衛藏’ 등으로 칭해졌다. 1663년(康熙 2년)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西藏’이란 칭호는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 元代 이후, 漢語 중의 ‘西藏’이란 말은 ‘中國’의 일부분이었고, ‘西藏人’은 ‘中國人’이란 말의 일부분, ‘藏族’은 ‘中華民族’이란 말의 일부분이었다. 이들 말들은 모두 포함포함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는 天經地義의이요 無可爭辯의인 것이라”고 단정하였다.¹²²⁾

한편 王貴 등은 서방인들을 의식하여 중국과 중국인의 서구식 명칭도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中國’의 번역어가 유럽문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기원전 5-4세기이고 희랍인이 ‘中國’을 ‘Seres’라 칭하였는데, 이는 絲國을 뜻한다... 秦이 강성하여 주변국인이 중국인을 ‘秦人’이라 칭하자, 당시 고 인도, 희랍, 로마 등지인들은 ‘中國’을 ‘Cina’, ‘Thin’, ‘Shnae’ 등으로 불렀다. 5세기에 영어가 처음으로 형성되었을 때, 영어 가운데서도 ‘China’(中國)란 말이 출현했다. 이처럼 朝代의 명칭(國號)이 국가의 명칭(國名)보다 더 顯赫하여, 세인이 국가명칭을 상칭하지 않고 조대명칭을 常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인들은 朝代 명칭으로 國家 명칭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왕왕 國人 명칭을 대체하기도 하여, ‘漢國’이 ‘中國’을 대칭하고, ‘唐人’이 ‘中國人’을 대신하였다... ‘China’란 명칭은 ‘秦’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는 漢族뿐만 아니라 秦朝가 통할한 西南夷人和 동남 百越人 등의 거주지역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후 이천 년이 지난 뒤까지, 秦朝에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른 中國이라는 정치실체는 시종 개변되지 않았다.” 그들은 “영어의 China와 Chinese란 말의 개념내용은 漢語 ‘中國’과 ‘中國人’의 개념내용을 따라 변화해 왔으므로, 漢語 ‘中國’과 ‘中國人’이 가리키는 것은 영어의 그것과 같다”고 하면서, “中國人의 절대다수는 漢族人이기 때문에, Chinese는 영미 등 외국인의 관념 가운데 두 가지의 含意 즉 하나는 ‘중국인’이고 들은 ‘漢人’이라는 의미를 형성하였다... ‘Chinese’의 廣義는 ‘중국인’이요 협의는 ‘漢人’이다.... 이로 인해, 新中國은 특별히 ‘Han Nationality’를 ‘漢族’의 英文譯名으로 정하고, ‘Hans’ 혹은 ‘Han people’을 ‘漢人’의 영문역명으로, Chinese는 ‘中國人’의 영문역명으로 규정하여, 혼란을 제거하였다”고 하였다. 티베트와 티베트인의 서구식 명칭도 王貴 등에 의해 분석

122) 王貴 等, 6-14쪽.

되었다. 그들은 “Tibet란 말은... 突厥語 T“up”ot에서 나왔다. T“up은 돌궐어로 ‘宗族’이란 뜻이고 p“ot은 ‘西藏’이란 뜻의 藏語 ‘蕃’의 음에서 연변해온 것으로, 이 말의 뜻은 ‘蕃部族’으로 해석되니, 이는 돌궐어와 藏語가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다”¹²³⁾라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인용하고, Marco Polo가 그 『見聞錄』에서 티베트를 가리켜 ‘Province of the Tibet(Thebeth)’라 칭한 것에 근거하여, “마르코 폴로 시기의 元代에는 西藏이 정식으로 중국의 판도에 귀입되어 중국의 일개 省이 되었으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어 중의 Tibet(西藏)는 China(中國)의 일부분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Tibetan과 Chinese의 관계에 관해서는, “만약 民族의 각도에서 말하여 ‘漢人’만을 가리키는 Chinese의 狹義를 취한다면 Tibetan(藏人)은 Chinese의 일부분이 아니며 양자의 관계는 全異關係이지만, 만약 國人の 각도에서 말하여 ‘中國人’을 가리키는 Chinese의 廣義를 취한다면 Tibetan(西藏人, 藏人)은 Chinese의 일부분이며, 양자의 관계는 포함과 피포함의 관계다”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王貴 등은 “van Praag선생과 Shakabpa는 모두 ‘서장문제와 국제법 연구의 권위’로 칭해지는 만큼, 이러한 역사 어문상식을 모를리가 없건만, Tibet이 China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니, 이는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고의로 혼란을 제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van Praag선생은 Chinese의 광의와 협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중국정부가 明文으로 廢用을 규정한 협의의 Chinese(漢人)만을 취하여, 암암리에 광의와 협의의 두 뜻을 갖는 Chinese(中國人, 漢人)개념을 일개 협의의 Chinese(漢人)개념을 갖는 것으로 바꾸려 하였다. 이는 실제로 일종의 우리나라 定名主權을 침범하고 우리나라 內政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전 중국인민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²⁴⁾

그러나 티베트와 중국을 가리키는 漢字語나 서구어는 중국인과 서구인의 티베트와 중국 개념을 담고 있을 뿐, 티베트인의 티베트 개념이나 중국 개념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王貴 등은 티베트어로 씌여진 티베트와 중국 명칭을 분석하여 그 역사적 개념을 추출하는 빠뜨릴 수 없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그들의 논중에 의하면, “7세기에 藏王 松贊干布시기에 藏文을 창제한 이후, ‘甲’이란 말로써 ‘漢’을 칭하고 ‘甲城’이란 말로써 ‘漢地’를, ‘甲米’란 말로써 ‘漢人’을,

123) 安才旦, 『吐蕃—稱語源及含義述評—兼論吐蕃源自古突厥語說』, (中國藏學 1988-4) 127-141쪽.

124) 王貴 等, 15-27쪽.

‘甲杰’이란 말로써 ‘皇帝’를 칭하여 ‘藏王’을 가리키는 ‘舊杰’이란 말과 구별하였다... 宋代에 출현한 ‘甲那’란 말도 1949년 이전까지 ‘漢地’를 의미하였다... 元朝에 西藏이 中國의 판도내에 귀입되었을 때, 梵語 ‘中國’의 개념이 ‘西藏’을 포괄하였으므로, 藏語중의 ‘中國’도 옹당 ‘藏區’를 포괄하였다... 元代부터 藏文 가운데는 ‘중국’을 칭하는 ‘東昆’ ‘東貴’ ‘東貴’ 등 3종 말이 출현하였다... ‘甲那’는 과거 장기간 藏胞가 ‘中國’에 대해 가장 常用하고 가장 통속적인 칭호였으며, ‘支那’나 ‘東昆’ ‘東貴’ 등은 비교적 적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국을 가리키는 티베트어가 ‘漢地’만을 뜻하였다는 사실은 중국측의 주장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藏語文 중에 나오는 ‘甲那’ ‘支那’ ‘東昆’ 등 말의 개념 가운데는 ‘藏區’가 포괄되어 있지 않아, 논리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들은 포함피포함관계가 아니라 全異關係였음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王貴 등은 “서장은 邊邊에 처해있고 조국 내지와 關山으로 격절되어... 藏文에서는 ‘蒙古’ ‘維吾爾’ ‘回族’ 등 몇몇 소수민족의 이름만 보일 뿐이므로... ‘漢地’를 가리키는 말이 전 中國을 代稱한 것은 가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전국 대다수의 藏胞들이 ‘中國’과 ‘中華’라는 두 말을 알지 못하고 단지 ‘甲那’(漢地)란 말만 알고 있었다”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中華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가 ‘티베트를 포괄하는 中國’과 ‘티베트인을 포함하는 中華民族’을 가리키는 두가지 티베트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한 일련의 과정과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清末民國初에 ‘서장독립’구호가 출현하고, 제국주의와 서장분열주의분자들이 이러한 정황을 ‘藏區’가 ‘甲那’(漢地, 中國)의 일부분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이용하려 하자, 중화민국정부는 이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민정부의 藏語文翻譯工作者들은 ‘中華民國’을 뜻하는 藏語를 만들어... 충분히 嚴謹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주로 ‘漢地’를 가리키는 ‘甲那’라는 말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통치시기에는 ... 전국 대다수 藏胞들은 이 말을 알지 못한채 여전히 ‘甲那’로써 ‘中國’을 대칭하였다... 신중국이 성립된 뒤... 藏族 漢族 語文翻譯工作者들은 역사상 형성된 祖國 國名을 譯寫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 音譯의 藏文인 00로써 ‘中國’을 가리키고 意譯에 意譯을 가미한 藏文인 000로써 ‘中華人民共和國’를 칭하도록 확정하였다... 동시에 ‘中國’이란 藏語는 ‘中國人’이라는 藏語를 파생하였는데, 이는 藏文중 전국

56개 민족인의 총명칭이 되었고, ‘西藏人’과 ‘藏人’을 가리키는 藏語를 그 안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藏文의 ‘中華民族’이란 말도 자연히 산생케 되어, 전국 56개 민족의 총칭이 되고 ‘藏族’이란 藏語를 그 안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칭은 현재 모두 절대다수 藏胞가 접수, 통용하면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王貴 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티베트어의 개념을 통해 ‘中國’과 ‘티베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따라서 논리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藏語文중 국민당시기의 ‘중화민국’과 ‘서장’이라는 藏語의 관계는 포함피포함관계이며, 해방후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서장’의 관계도 포함피포함관계이며, 그 簡稱이요 역사명칭인 ‘중국’과 ‘서장’, ‘중국인’과 ‘서장인’, ‘중화민족’과 ‘장족’의 관계도 모두 포함피포함관계다. 이처럼 장어문상에서 정확 엄격히 체현된 ‘중국’과 ‘서장’, ‘중국인’과 ‘서장인’, ‘중화민족’과 ‘장족’의 개념관계는 원대 이래로 7백년 이상 實實在在의 관계였다. 당연히 Shakabpa가 대표하는 서장분열주의 분자들론 ‘중국’과 ‘중국인’이라는 藏語의 사용을 기본적으로 반대, 不願한다. 그들은 ‘중국’ ‘중국인’이란 말의 개념을 ‘漢地’ ‘漢人’으로 축소하려 하고, 장어문중에서 ‘甲那’ ‘甲米’란 말을 계속 장기간 사용하여, ‘중국’ ‘서장’과 ‘중국인’ ‘藏人’의 개념 사이의 포함피포함관계를, 정확하지 못한 藏文의 낱은 譯寫방법을 통해, 계속 全異關係로 만들려 기도한다. 그러나 포함피포함의 관계는 7백년 이래 ‘中國’과 ‘西藏’, ‘中國人’과 ‘藏人’ 개념 사이의 실제관계이므로, 이러한 기도는 실제에 배리된 것이다... 자기 조국의 정확한 장어문 칭호를 결정하는 권력은 당연히 광대 장족인민과 그 선거에 의해 산생된 인민정부에만 귀속되는 것이지, 제국주의자와 조국을 배반하여 외국인에 의부한 소수의 분열주의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¹²⁵⁾

티베트측이 역사상 ‘티베트’와 ‘중국’ 개념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蒙古’나 ‘滿洲’와 ‘中國’도 분별하여 ‘蒙古帝國’과 ‘滿洲帝國’을 중국 국가의 범주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중국측도 당연히 이를 비판, 반박하는 논증을 전개하였다. 王貴 등은 “元朝의 몽고인황제와 청조의 만주인 황제는 중국 황제인가 아닌가? 당연히 중국의 황제다. 이는 우리나라 억만 소학생도 모두 아는 상식이고, 국제 역사학계에서도 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문제인데, ‘권위있는’ 학자라는 Shakab

125) 王貴 等, 28-36쪽.

프pa와 van Praag선생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改變을 기도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中國’ 개념에 대한 이해, 國家名稱(國名)과 朝代名稱(國號)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그들은 “고대 我國에서 출현한 허다한 王朝들은 비록 ‘中國’이라는 말로 장기적, 기본적 國名을 삼았지만, 朝代名은 國號이고, 國號는 왕왕 비교적 짧은 일개 朝代의 國名이 되었다... 이러한 國號가 轉變하여 온 國名 개념은 모두 ‘中國’이라는 장기적 國名の 總概念 중의 각개 不同的 역사시기의 分概念이다”라고 하여, ‘中國’은 ‘國名’이고 ‘元’ ‘清’ 등은 ‘國號’로 구별함으로써, 蒙元和 滿清을 ‘중국’의 일개 국가로 포함시키려 시도하였다. 이와 아울러, 王貴 등은 ‘중국 주변의 藩屬’을 ‘內藩’과 ‘外藩’으로 구별하고 “內藩은 國內의 각 邊疆部族, 예컨대 烏思藏(西藏), 畏兀兒(新疆維吾爾), 室韋(蒙古) 등으로, 皇帝에 朝貢하는 외에 朝廷이 當地에 封王, 派官, 設治, 심지어는 駐軍하여 직접 통치를 진행하는, 中國版圖의 일부본이며, 外藩은 각 小邦, 예컨대 高麗(朝鮮), 琉球, 安南(越南), 手+單國(緬甸), 尼泊爾 등으로, 朝廷과 朝貢關係만을 가질 뿐, 조정이 封王, 派官, 設治하여 직접 통치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기한에 맞추어 貢物을 접수하면 될 뿐이었다”고 하여, 몽고와 만주, 티베트 등을 모두 ‘중국에 포함되는 內藩’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蒙古汗國’과 ‘元朝中國’, ‘後金’과 ‘清朝中國’을 다시 ‘2개의 不同的 개념’으로 분별하여, 前者는 중국의 ‘內藩’ 즉 일개 ‘지구성 왕국’으로, 後者는 ‘정통적 중국왕조’으로 각각 규정하였다.¹²⁶⁾

중국측이 몽고인과 만주인에 의해 건립된 蒙元和 滿清을 ‘정통적 중국왕조’로 규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이 두 국가가 중국 국가적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王貴 등은 “忽必烈 때에 이르러 年號를 세우고 國號를 정하며 詔書를 반포하여 稱帝하였는데, 이는 中國 역대 漢族 통치자가 세운 왕조와 완전히 같은 작법이었으므로... 元朝는 중국 소수민족 황제가 전 중국을 통치한 최초의 정통적 중국왕조였으니, 이는 세계가 공인하는 역사사실이다”고 하고, “後金과 清이 國號를 세우고 年號를 정하고 詔書를 반포하며 帝位에 오르는 등의 방식이 모두 중국 역대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므로... 入關 이후의 清朝는 元朝 이후 중국소수민족황제가 전 중국을 통치한 두번째의 정통적 중국왕

126) 王貴 等, 152-158쪽

조였으니, 이는 세계가 공인하는 역사사실이다"고 하면서, "따라서 '滿洲'의 개념도 '中國'개념보다 적어, '중국'은 '만주'를 포함하였지 '만주'가 '중국'을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王貴 등은 滿淸을 中國의 정통왕조로 간주해야 할 이유로서 이외에도 滿淸의 皇帝가 '中國'의 황제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滿淸이 '淸'이라는 '國號' 대신에 '中國'이란 '國名'을 자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거론하기도 하였다.¹²⁷⁾

중국측 연구자 가운데서 '티베트'와 '蒙古' 및 '滿洲'를 '中國'에 포함시키고 元과 淸을 중국의 정통왕조로 간주하는 王貴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국의 저명한 티베트학 전문가 湯池安도 "당시 中國의 최고통치자는 忽必烈이었다. 漢地의 漢人은 그의 통치를 받았으며 藏區의 藏人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만약 忽必烈의 통치하에 있던 漢土와 藏區등을 中國이라 稱하지 않는다면 元朝의 版圖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실질상 아무런 구별이 없으니, 당시의 中國은 元朝가 아니었는가?"¹²⁸⁾라고 하였으며, 少數民族 연구자 姚兆麟도 "당시의 中國은 곧 元帝國이었고 원제국은 곧 중국이었다. 이 제국은 漢族과 蒙古族 藏族 등 모든 민족의 統一的 多民族國家였으므로, 각 민족의 인민은 모두 '中國人'이었으며, 이 국가 안에는 van Praag가 臆造해낸 것과 같은 '國家'는 없었다는 것이 鐵的 史實이다"¹²⁹⁾고 하였다. 법학자인 宋岳은 "元朝와 明朝, 淸朝 및 中華民國이 중국 역사상의 不同朝代요, 그것이 대표하는 것이 모두 하나의 國家, 즉 中國임은 세계가 공인하는 것이고 중국의 소학생도 아는 常識이지만, van Praag선생만이 이 상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元朝 明朝 淸朝 및 中華民國은 동일한 國際法主體-中國-의 不同한 역사단계에서의 계속이다... 中華民國을 건립한 목적은 大清帝國의 판도에서 분리되어 나와 새로운 국가를 새우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淸政府의 썩은 통치를 뒤엎고 帝制를 廢除하여 새로운 국가체제와 政權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中華民國은 '新中國'이고... 大清帝國은 '舊中國'을 대표하는 것이지 外國이 아니다. van Praag는 新國家와 新政府의 법률적 의의를 혼동하여... 元朝와 淸朝가 中國이 아니라 하였

127) 王貴 등, 160-167쪽.

128) 湯池安, 「評Shakabpa『西藏政治史』中所謂『供施關係』的政治涵義」(西藏研究 1985-1), 15쪽.

129) 姚兆麟, 「西藏和祖國的關係不容歪曲-駁van Praag『西藏的地位』一書-」(西藏研究 1992-4, 1993-1) 172쪽.

다”고 하면서, “몽고인이나 滿洲인이 皇帝가 되었을 때 漢人(van Praag가 말하는 中國人)이 外國의 통치를 받았다면, 현재 중국 경내의 少數民族도 외국의 異族통치를 받는 것인가”¹³⁰⁾라고 반문하였다. 臺灣人 張駿逸도 “혹자는 元清이 서장에 대해 主權을 確有하였으나, 단지 元代는 蒙古族, 清代는 滿族에 의해 건립된 朝代이고 그들은 모두 外族으로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中國을 대표하여 서장에 主權을 僉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似而非 설법이다. 중국은 自古로 多民族國家였기 때문에, 누구든 이 토지의 사람을 통치할 능력이 있으면 그 族別을 不論하고 모두 中國人의 共主가 되었으며, 辛亥革命후에 孫中山도 역사상의 이러한 ‘五族共和’관념을 폈으니, 그 의의가 비범하다”¹³¹⁾고 하였다.

그러나 蒙元과 滿清에 ‘정통적 중국왕조’로서의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노력한 중국측 연구자는 국제법학자 李澤銳였다. 그는 van Praag가 “元明清 3조는 蒙古인이 中國을 멸망시키고, 明朝가 중국의 독립을 회복하였으며, 清朝가 다시 中國을 멸망시켰고, 民國이 다시 중국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이를 “중국역사에 대한 지극한 왜곡과 무지”라고 비판하였다. 그에 설명에 의하면, “中國人은 宋元明清과 民國의 교체가 단지 중국의 改朝換代일 뿐, 趙家王朝과 勃-力兒只斤氏王朝, 朱家王朝, 愛親覺羅氏王朝의 멸망이지 ‘中國이 망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 까닭으로 李澤銳는 다음의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역대 왕조는 모두 중국 전통적 世界觀을 접수하여, 중국이 天下의 중심에居하여 四夷를 鎮撫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改朝換代의 또다른 특징은 역대 首都가 모두 van Praag선생이 ‘中國’地區라고 생각하는 곳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元清 양조가 모두 北京에 수도를 둔 것은 곧 양조 왕실이 中國人이 되어 와서 中國을 통치하였음을 표명한 것이다... 셋째, 元朝와 清朝는 모두 매우 큰 정도로 중국의 역대 정치체도를 따랐으니, 唐代 이래의 科擧제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관제, 종교신앙자유 등 모두 중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따랐다. 특히 원조와 청조는 중국 역대 建國號와 建年號의 제도를 따라 漢

130) 宋岳, 『對歷史的篡改對國際法的歪曲-簡評van Praag『西藏的地位』一書』, (中國藏學 1994-2) 5-6쪽.

131) 張駿逸, 『中國歷朝主權在西藏的承繼及確定-由行政觀點看-』, 『臺灣西藏與中原關係國際學術討論會』, (中國藏學 1992-3) 159쪽.

武帝부터 淸末까지 역대 왕조의 年號가 綿延 不斷하게 하였다. 넷째, van Praag는 서방국가정부와 개인이 일반적으로 淸朝를 中國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부주의하게 그리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淸 帝國을 中國의 제국으로 부르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그는 책에서 인용한 허다한 서방인의 저작과 서방국가정부의 문건이 모두 滿淸政府를 '中國의' 정부 혹은 '中國人'이라 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an Praag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면서, '中國의'이란 말 뒤에는 '滿洲의'이란 글자를 첨가하여 原作을 糾正하였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과 서방정부들이 '滿淸은 中國이라'고 한 것은 모두 어리석은 것이고, 단지 van Praag 일 개인만 가장 高明하여 한개의 括弧로써 경망하게 중국의 역사를 모두 개변하였으니, 정말 위대하다!"¹³²⁾

(3) 두개의 독립된 歷史共同體; 中國과 티베트

"謹嚴한 학자와 엄숙한 공작인원이라면 概念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들을 토론하지 않는다"는 王貴 등의 전제는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中國'과 '티베트'의 역사적 개념을 통해 티베트의 중국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증의 방향도 매우 올바르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념의 구체적 이해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그들은 '中國' 개념의 구체적 분석을 생략하였고, 事例의 例舉도 생략하였으며, 기존 연구성과의 인용표시도 생략하였다. 오로지 근거없는 독단적 결론만 제시되었다. 예컨대, 王貴 등이 "그 뒤 中國의 지역은 부단히 확대되어... 秦王朝의 中國疆域은 동과 남으로 바다에 이르고 북으로는 陰山, 서로는 甘肅과 四川, 서남으로는 雲南과 廣西, 동북으로는 遼東에 이르고... 中國은 華夏族을 주체로 한 하나의 多民族的 통일 대국을 이루었다. 따라서 '中國'이란 말의 內涵에는 더욱 확대된 바가 있었다. 漢代 中國 疆域의 동남북면이 이르는 바는 대체로 秦代의 그것과 같았고, 서로는... 지금의 新疆이 정식으로 中國 版

132) 李澤銳, 「殖民主義者優華策略의 自白-評范普拉赫先生近著『西藏的地位』」- (中國藏學 1990-2) 10-11쪽.

圖에 列入되었다”¹³³⁾고 하였을 때,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혹은 기존의 어떤 연구에 의거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이러한 결론은 이후 그들이 티베트의 中國歸屬論의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王貴 등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학문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둘째, 王貴 등은 ‘國’ 즉 ‘나라’와 ‘國家’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상 ‘中國’ 개념과 ‘中國의 國家’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사실 이들도 “朝代의 명칭(國號)이 국가의 명칭(國名)보다 더 顯赫하여, 세인이 국가명칭을 상칭하지 않고 조대명칭을 常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인들은 朝代명칭으로 國家명칭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왕왕 國人명칭을 대체하기도 하여, ‘漢國’이 ‘中國’을 대칭하고, ‘唐人’이 ‘中國人’을 대신하였다”¹³⁴⁾고 하여, ‘中國’을 ‘國名’이라 하고 ‘秦漢唐宋明清’ 등을 ‘國號’라 구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中國’을 ‘國家’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王貴 등은 “中國이라는 명사의 함의는 祖國이며, 朝代는 통치계급이 각 不同의 시기에 건립한 國家의 칭호이다... 朝代는 혹은 흥하고 혹은 망하며 한개가 다른 한개와 대체되었지만, 中國의 本身은 모두 존재하고 발전하였다”¹³⁵⁾고 한 范文瀾의 글을 인용하였으나, ‘中國’을 ‘國家名稱(國名)’, ‘秦’ ‘漢’ 등은 ‘朝代名稱(國號)’로 해석한 王貴 등의 이해는 ‘朝代’를 ‘國家’, ‘中國’은 ‘祖國’으로 이해한 范文瀾의 이해와 모순된다. 王貴 등은 “國名 개념은 모두 ‘中國’이라는 장기적 國名の 總概念중의 각개 不同의 역사시기의 分概念”이라 하였으나, ‘中國’과 ‘朝代’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오류는 王貴 등이 역사상 ‘中國’ 개념을 스스로 엄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생략하였기 때문에 자초한 필연적 결과였다. 이들이 秦漢時代의 ‘中國’ 범위를 설명할 때, 그것은 ‘中國’이 아니라 ‘秦’ ‘漢’이라는 특정한 국가의 영토 범위였다. 이들은 ‘秦’ ‘漢’이라는 ‘國家’와 당시의 ‘中國’을 일치, 혹은 혼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秦漢時代人들의 ‘中國’ 개념은 당시의 ‘秦’ ‘漢’概念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中國’ 범위는 ‘秦’ ‘漢’의 영토 범위와 일치하지도 않았다. 당시의 ‘中國’ 범위는 ‘秦’ ‘漢’ 영토의 일부, 특히 黃河 중하류역의 ‘中原’ 일대를 의미하였다.¹³⁶⁾ 이처럼

133) 王貴 等, 6쪽.

134) 王貴 等, 15-17쪽.

135) 范文瀾, 『中國通史簡編』 修訂本 제1편 (人民出版社, 1949(1964)), 64-66쪽.

136) 金翰奎, 「中國概念을 통해서 본 古代中國人들의 世界觀」(『全海宗博士華甲紀念論叢』, 1979) 25-42쪽.

럼 역사상 ‘中國’ 개념이 ‘國家’ 개념과 일치되지 않은 상황은 國家의 이름을 ‘中國’이라 표현한 ‘中華民國’時代に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中國’과 ‘秦’‘漢’ 등은 그 공간적 범주가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도 전혀 달리하였다. ‘秦’‘漢’이 國家라면, ‘中國’은 나라, 즉 歷史共同體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설명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중국측에 의해 노출된 논리적 무리와 역설의 대부분은 바로 역사상 ‘중국’을 ‘나라’=역사공동체로 이해하지 않고 ‘國家’로 이해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포함된 ‘中國’이 中原 일원에서 수천년간 지속적으로 존속해온 역사공동체를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中原 및 기타 지역과 그 인민을 지배한 특정한 國家들을 가리키는가에 따라, 이 질문의 답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중국측은 이를 먼저 분명히 밝혀야 그 다음의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

셋째, 王貴 등이 역사상 중국과 티베트를 가리키는 티베트어를 설명하는 과정도 매우 비논리적이다. 티베트어에서는 ‘甲’이 ‘漢’을 의미하고, ‘甲那(甲城)’는 ‘漢地=中國’를, ‘甲米’는 ‘漢人=中國人’을 의미하였으니, 티베트인에게는 ‘中國’은 곧 ‘漢地’였을 뿐이며 ‘中國人’은 곧 ‘漢人’이었을 뿐이다. 皇帝는 ‘甲傑’이라 하고 藏王은 ‘蕃傑’이라 하여, 皇帝의 지배영역과 藏王의 지배영역을 구별하였다. 이는 王貴 등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王貴 등은 1950年以後에 中國 中華民族 中華人民共和國를 뜻하는 藏語를 創製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中國’이 ‘티베트’를 포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50년 이후에 중국인들이 창제한 藏語는 ‘1950년 이후의 중국인들’의 의식을 담고 있을 뿐, 1950년 이전 전통시대의 티베트인들의 의식은 조금도 반영하지 못한다. 1950년 이전의 藏語에 ‘1950년 이후 중국인들’의 ‘中國’ 개념이나 ‘中華民族’ 개념을 담은 말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1950년 이전의 티베트인들에게는 ‘中國’은 곧 ‘漢地’ 즉 ‘漢人’의 거주지역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전통시대 티베트어에서는 ‘蕃’, ‘藏’과 ‘中國’, ‘漢’은 王貴 등이 이르는 바 ‘全異關係’에 있었지 ‘包含被包含關係’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역사상 중국과 티베트를 가리키는 전통시대 티베트어를 통해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包含被包含關係’가 아니라 ‘全異關係’였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한 ‘자기 조국

의 정확한 장어문 칭호를 결정하는 권력은 당연히 광대 藏族 인민과 그 선거에 의해 탄생된 인민정부에만 귀속되는 것이지, 제국주의자와 조국을 배반하여 외국인에 의부한 소수의 분열주의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설이다. 왜냐하면 1950년에 새로운 藏語를 창제한 실질적 주체가 "광대 장족인민과 그 선거에 의해 탄생된 인민정부"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國家'의 명칭과는 달리 '나라' 즉 역사공동체의 명칭은 특정한 '권력'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위적 방법에 의해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공동체 성원의 의식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상 '中國'과 '티베트' 개념을 통해 전통시대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과정을 좇아야 한다. 첫째, 역사상 '中國' 개념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³⁷⁾ '中國'이란 말이 문헌 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商周時代는 城邑國家時代였으며, 이 시대의 '中國'은 주변 城邑群 즉 '四國'에 의해 에워싸인 중심 城邑國家 즉 商周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성읍국가시대가 끝나고 領土國家가 출현하는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면, '中國'은 中原 일원에 형성된 歷史共同體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가진 '中國'은 이후 清代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세계가 권위의 새로운 세계와 만나 전통적인 세계관이 동요, 세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中國'의 범주도 확장되는 清代에 이르러 '中國'은 '淸國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새 관념이 '中華民國'이라는 國號를 낳으므로써, 이제 역사공동체를 가리키는 '中國'과 특정한 국가를 가리키는 '中國' 등 양종의 '中國' 개념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 날의 중국인들은 역사공동체로서의 '中國'과 국명으로서의 '中國'을 혼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전통시대의 '中國' 개념에 대해서도 잘못된 상식을 갖게 되었다. 王貴 등이 말하는 '中國'은 이러한 상황이 낳은 왜곡된 인식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전통시대의 '中國', 즉 역사공동체로서의 '中國'이 갖는 공간적 범주는 시대에 따라 신

137) 金翰奎, 위의 論文; 「古代 東아시아의 民族關係史에 대한 現代中國의 社會主義的 理解」(東亞研究 24, 1992); 「歷史上 '遼東'概念과 '中國史'範疇」(「吉玄益教授停年紀念論叢」, 1996) 등 참조.

축면화하였으나, 대체로 黃河 중하류역 일대, 즉 中原 일원에 국한되었으며, 그 바깥 지역은 중국인들에게는 '中國'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통시대의 '中國' 개념에는 당연히 티베트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蒙古나 遼東(즉 滿洲)도 역시 '中國'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들의 '中國'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전통시대의 티베트인들도 '티베트'와 '中國'을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티베트어의 '甲那'는 歷史共同體로서의 '中國' 즉 漢人이 거주하는 中原을 의미하였을 뿐, 티베트와 중국을 포함하는 개념은 티베트에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吐)蕃' 혹은 '(西)藏' 즉 '티베트'는 '中國'에 포함된 한 지역이 아니라 '中國'이라는 역사공동체와 병존한 또다른 역사공동체를 의미하였다. 의식은 언어를 낳으며 언어는 의식을 표현한다. 따라서 전통시대의 중국인과 티베트인들의 '中國'과 '甲那'의 개념이 다 같이 서로 독립되고 병존하는 역사공동체를 각각 의미하였다 함은 곧 전통시대의 두 역사공동체의 역사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넷째, 중국측은 蒙古와 滿洲가 中國의 일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內藩'과 '外藩' 개념을 설정하였으나, 과연 이러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實在한 것이었는지 논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도 생략하였다. 무엇보다도 王貴 등이 말하는 '內藩'과 '外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王貴 등에 의하면 "內藩은 國內의 各邊疆部族, 예컨대 烏思藏(西藏), 畏兀兒(新疆維吾爾), 室韋(蒙古) 등으로, 皇帝에 朝貢하는 외에 朝廷이 當地에 封王, 派官, 設治, 심지어는 駐軍하여 직접 통치를 진행하는, 中國版圖의 일부분이며, 外藩은 각 小邦, 예컨대 高麗(朝鮮), 琉球, 安南(越南), 手-單國(緬甸), 尼泊爾 등으로, 朝廷과 朝貢關係만을 가질 뿐, 조정이 封王, 派官, 設治하여 직접 통치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기한에 맞추어 貢物을 접수하면 될 뿐이었다"고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外藩'에도 封王과 派官, 設治 등이 있었음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예컨대, 王貴 등은 高麗(朝鮮)를 '外藩'의 하나로 例擧하였으나, 元은 高麗의 王을 冊封하고 高麗에 征東行省을 설치하여 그 고위관리를 파견하였으며 이 기구를 통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清末에도 朝鮮王의 冊封은 물론이거니와 朝鮮에 駐朝鮮大臣을 파견하여 내정과 외교를 관리하였다. 다른 시대에도 비록 관리를 파

전하거나 관청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封王의 과정은 생략되지 않았다. 그러면 高麗나 朝鮮도, 특히 元代의 高麗와 淸末의 朝鮮은 ‘外藩’이 아니고 ‘內藩’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王貴 등이 ‘內藩’으로 例舉한 烏斯藏 新疆 蒙古 등도 冊封이나 파관, 설치, 駐軍 등이 이루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관리의 파견이나 통치기구의 설치, 군대의 주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의 티베트와 新疆, 蒙古 등은 ‘內藩’에서 ‘外藩’으로 그 위상이 바뀌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王貴 등이 굳이 ‘역사적’ 개념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內藩’과 ‘外藩’이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양자를 구별하려한 까닭은 外國임을 부인할 수 없는 ‘外藩’과는 달리 ‘內藩’은 ‘中國’의 일부임을 전제한 다음, 티베트와 몽고, 만주 등을 ‘內藩’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蒙元과 滿淸을 中國의 한 王朝로 자리매김 하고 나아가서는 티베트가 中國의 일부였음을 논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른바 ‘內藩’과 ‘外藩’을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인즉, 만약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다음의 과정도 진행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측이 蒙元과 滿淸을 ‘정통적 중국왕조’로 규정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못하다. 王貴 등은 “忽必烈 때에 이르러 年號를 세우고 國號를 정하며 詔書를 반포하여 稱帝하였는데, 이는 中國 역대 漢族 통치자가 세운 왕조와 완전히 같은 작법이었으므로 元朝는 중국 소수민족 황제가 전 중국을 통치한 최초의 정통적 중국왕조였으며... 後金과 淸이 國號를 세우고 年號를 정하고 詔書를 반포하며 帝位에 오르는 등의 방식이 모두 중국 역대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므로 入關 이후의 淸朝는 元朝 이후 중국 소수민족 황제가 전 중국을 통치한 두번째의 정통적 중국왕조였다”라고 하여, 蒙元과 滿淸이 ‘정통적 중국왕조’로 간주되어야 할 이유로서 蒙元이 중국 국가와 같이 年號와 國號를 세우고 稱帝한 것을 들었으나, 이것이 蒙元과 滿淸을 정통적 중국왕조로 규정할 이유가 된다면 중국 국가와 같이 年號와 國號를 세우고 稱帝한 다른 국가들, 예컨대 韓國이나 日本, 越南 등의 여러 국가들을 ‘정통적 중국왕조’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王貴 등이 滿淸을 ‘정통적 중국왕조’로 간주한 또 하나의 이유는 滿淸의 皇帝가 ‘中國’의 황제임을 매우 강조하고 滿淸이 ‘中國’의

로 國號를 대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滿淸의 황제가 '중국'의 황제임을 자칭한 까닭은 滿淸이 '滿洲' 즉 遼東뿐만 아니라 '中國'까지 통합, 지배한 '統合國家'였기 때문이며, 滿淸이 '中國'을 國號로 사용한 까닭은 이 무렵에 이르러 '동아시아 세계'관이 깨어지고 '동아시아 세계'가 전 세계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함으로 인해 종래의 '中國' 개념이 변화하고 그 공간적 범주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측은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귀속시키려는 이론적 노력의 일환으로 蒙古와 滿洲를 '中國'의 일부로 간주하고 蒙元和 滿淸을 '정통적 중국왕조'의 하나로 규정하여, 元淸의 중국 지배를 단순한 '改朝換代'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통적 中國國家와 統合國家의 차별성에 대한 沒理解에 기인한 것이다. 역사상 중국을 지배한 국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중국에서 발생, 발전하여 중국을 지배한 '정통적 중국국가'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중국 바깥에서 발생, 발전하여 중국을 통합, 지배한 '통합국가'였다. 전자의 발생과 발전, 및 쇠망과 교체과정은 王貴 등이 말하는 '改朝換代'로 설명될 수 있다. 정통적 중국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禪讓'에 의한 왕조교체 즉 '禪代'로써 연속되었다. 그러나 통합국가는 '禪讓'에 의해 중국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征服'에 의해 중국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자는 征服國家로 규정할 수도 있다. 단, 통합국가는 中國 이외의 다른 歷史共同體와 中國이라는 역사공동체를 함께 통합, 지배하였다는 특성도 갖고 있었다. 秦이나 漢, 晉, 隋, 唐, 宋, 明 등이 정통적 중국국가라 한다면, 遼, 金, 元, 淸 등은 통합국가라 할 것이다. 후자는 모두 蒙古나 遼東 등 제3의 역사공동체에서 발생, 성장하여 蒙古와 遼東 등을 지배하다가 中國을 침공하여 中國까지 아울러 지배하였다. 따라서 티베트 독립론자들이 蒙元和 滿淸을 非中國國家로 간주하는 것도 올바른 이해라 할 수는 없지만, 양국을 오로지 정통적 중국국가의 관점에서만 보겠다는 중국측 입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蒙元和 滿淸은 蒙古 혹은 遼東과 中國을 함께 지배한 統合國家였음을 전제한다면, 티베트와 蒙元, 티베트와 滿淸의 관계는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 결 언

티베트는 “전시기를 통해 實際的, 形式上으로 獨立된 地位를 容有하였고 전 역사상 확실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개 獨立國家”였는가, 아니면 “元代 이래 中國의 不可分割의 일부”였는가? 이는 티베트 독립론자와 그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전개되어온 치열한 논쟁의 주요한 주제였으며,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양측에 의해 수없이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의 대부분은 중국 국가의 군주와 티베트 군장의 정치적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과연 이러한 논의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던지자 않을 수 없다.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하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당시의 티베트인과 중국인들에게서 이 질문의 답을 듣는 것이다. 한 예로서 蒙元帝國이 東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지배하였을 때의 경우를 알고 싶다면, 당시 티베트고원에서 살고 있던 이들에게 ‘당신은 티베트인인가 아니면 중국인인가’라고 물어보고 중국인에게도 ‘저 티베트고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인가 아닌가’라고 물어 보면, 元代的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라는 의문의 답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라’ 즉 歷史共同體란 일정한 공간과 혈통, 문화, 역사적 경험 등을 共有하는 공동체를 가리키지만, 역사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共同體意識의 공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 아니면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역사공동체를 따로 형성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헌기록에서 발견되는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개념을 분석하여 그 언어속에 내재한 당시인들의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방면의 연구는 지금까지 반쪽 부분만 진행되어 왔다. 역사상 ‘中國’概念을 분석하여 그 내재된 의미를 찾는 일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역사상 ‘티베트’개념, 특히 티베트 문헌상의 ‘티베트’개념을 분석하여 티베트인의 고유한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라는 문제를 더욱 깊이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상 ‘티베트’개념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티베트가 독자적 역사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쟁에 부과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일반성 안에서 티베트-중국관계의 특수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동아시아 세계질서와 티베트-중국관계사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논쟁에 참여한 이들의 편편을 보면, 대부분 國際法을 전공한 연구자이거나 外交官이 아니면 政治人 출신의 티베트문제 연구자여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시각의 결여가 처음부터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인다. 서구적이며 근현대적인 국제법학적 관점이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교관 혹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세계질서와 티베트의 고유한 국제적 위상을 적확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 논쟁이 '擅越關係'와 '上下主屬關係'의 다름으로 시종일관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전통시대의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나라'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여러 성분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적 세계를 형성케 한 정치적 매체는 '冊封'과 '朝貢'이었다. 즉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는 기본적으로 '冊封朝貢體制'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운영체제에 의해 유지된 '冊封(과) 朝貢(을 교환하는)關係'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나 독립적인 관계'였다. 전통시대의 티베트 역시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이었던 만큼, 티베트와 중국 국가의 정치적 관계 역시 이러한 책봉조공체제에 의해 규정되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의 일방인 중국측은 '上下主屬關係'라는 非歷史的인 표현으로 전통적 티베트-중국관계를 규정하면서도 정작 '上下主屬關係'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일방인 티베트측도 종교적 성격이 강한 '擅越關係'라는 말로써 전통시대 티베트와 중국의 정치적 관계까지 모두 규정하려 하면서도 '擅越關係'가 정치적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는 논리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제한 '冊封朝貢體制'와 티베트 喇嘛와 중국 국가의 군주 사이에 특수하게 작용한 '擅越關係'가 어떻게 결합하여 티베트와 중국의 전통적, 정치적 관계의 模式을 창출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 논쟁 참여자에게 주어질 또다른

과제라 할 것이다.

‘역사상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하는 문제는 곧 ‘역사상 티베트는 중국과 다른 별개의 역사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가’하는 문제와 사실상 일치하지만, ‘역사상 티베트의 국가가 중국의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는가’하는 문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티베트’나 ‘中國’은 歷史共同體를 가리키는 말이 지 國家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역사공동체와 국가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상 티베트의 국가가 중국의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는가, 혹은 예속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 해답은 ‘역사상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는가’라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줄 열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여러개의 열쇠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역사상 티베트가 별개의 역사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공동체 즉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즉 공간, 혈통, 문화, 언어, 정치적 경험, 공동체 의식 등의 측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비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쟁을 통해 충실한 학문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국가와 국가, 군주와 군주의 정치적 관계를 규명하는 범위를 넘어 논의의 범주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역시 이 논쟁 참여자들이 말아야 할 또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논쟁의 참관자라면 누구나 논쟁의 당사자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와 민족적 정서 및 전통적 선입견에 함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학문적 객관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논쟁이 수준 높은 학문적 성과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사실 ‘역사상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인가’하는 문제의 해답이 ‘티베트가 中華人民共和國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라는 현실문제의 직접적 답이 될 수는 없다. 역시 역사공동체와 국가는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답을 역사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양측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 논쟁이 아직 진정한 학문적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 머릿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시대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주요하면서도 매력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학문의 영역 바깥에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비록 “중국인도 티베트인도 아닌 제3국인이 왜 간여하려 하는가”라는 비난을 듣게 되더라도, 바로 ‘중

국인도 티베트인도 아닌 제3국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정치적 이해와 민족적 정서, 전통적 선입관 등의 장애에서 벗어나 학문적 논리에만 충실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에, 한국 등 제3국의 학계에서도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 글이 두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갖는 것임을 밝혀둔다. 그 하나는 19세기말 이전의 전통시대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근현대의 주제와 함께 총합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구사적 정리라는 글의 성격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논리적 모순을 간단히 지적, 비판하는데 그치고 필자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말 이후, 즉 청말 이후의 근대적 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나 독자적인 자료의 제시와 분석은 後稿로 미룰 수 밖에 없다.